

문 학 박 사 학 위 논 문

森鷗外 文学 研究

—작품에 나타난 <舟>를 중심으로—



2014년 1월 24일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일어일문학과

김 옥 지

문 학 박 사 학 위 논 문

森鷗外 文学 研究

—작품에 나타난 <舟>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윤일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월 24일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일어일문학과

김 옥 지

김옥지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年 2月



主 審 김 상 규 (印)

委 員 윤 대 일 (印)

委 員 최 연 희 (印)

委 員 진 명 순 (印)

委 員 추 석 민 (印)

森鷗外 文学 研究
—작품에 나타난 <舟>를 중심으로—

김 옥 지

부경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요약

모리 오가이(森鷗外, 이하 오가이로 표기함)는 明治에서 大正期에 이르기까지 활약한 인물이다. 그를 두고 ‘문호 모리 오가이·군의학감 모리 린타로’라 했다. 그는 군의 관료로서 인정받는 한편 「舞姫」를 비롯한 유학 3부작을 발표하여 문학자로서 이름을 알렸다. 그와 같은 명성의 이면에는 문학자로서 고난이 있었음을 「鷗外漁史とは誰ぞ」에 나타났다. 오가이는 문단의 지위를 다투지 않는 자신을 ‘빈 <舟>’로 지칭하며 집필활동에 몰두했던 것이다. 이것은 10년 이상 작품을 발표하지 못한 문학자로서의 입장과 군의로서 고쿠라 좌천을 겪던 시기에 나온 것으로, 이후 방대한 창작활동을 개시한 것을 생각하면 상징하는 바가 크다. 빈 <舟>에 비유한 자신의 의지를 한자 ‘船’이 아닌 ‘舟’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한학에 정통했던 오가이의 의식이 있었다. 자신의 본질적인 내면이나 의지를 드러냈던 <舟>는 ‘舟’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데뷔작 「舞姫」의 <舟>는 유럽과 일본을 오가는 巨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船’으로 표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舟’를 사용하였다. 「山椒大夫」는 冒頭に ‘舟’와 ‘船’을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정작 사건이 전개되는 시점부터는 ‘舟’를 사용했다. 「高瀬舟」에서도 평소 자신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안락사>와 <知足>에 관한 문제의식을 ‘舟’를 통해 제시했다. ‘舟’를 통해 내면문제를 다룬 것은 그의 유년시절 무코지마의 생활에서 비롯되었다. 무코지마에서의 <舟>는 통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한 이동수단이었고 늘 볼 수 있는 대상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어린 오가이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雁」을 비롯한 만년의 「細木香以」, 「渋江抽斎」 등에 이르기까지 무코지마와 <舟>는 작품전반의 배경이 되었다. 일상의 <舟>는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航西日記」와 「徂征日記」 등에 나타내는데 공통적으로 <舟>를 타는 시점부터 기록했다. 독일유학을 기록한 「航西日記」에는 유학을 떠나기 위한 3개월의 수속과정을 <舟>를 타던 날 모두 적었다. 그리고 청일전쟁·러일전쟁을 기록한 「徂征日記」에는 상부로부터 참전명령을 받은 며칠간의 과정을 <舟>를 타던 날부터 적었다. <舟>는 인생의 전환기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점에 수반된다는 오가이의 인식이 투영된 것이다. 나아가 일상의 <舟>는 「独逸日記」에 추억의 매개이며 희망의 수단이었고 「妄想」에는 현실의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百物語」에서는 중년이 된 오가이의 문학자로서의 복잡한 심경을 나타냈다. 육군군인이었던 오가이는 <舟>를 통해 관료의식과 자신이 살았던 근대의식을 나타내기도 했다. 「堺事件」에서 <舟>는 근대의 경제력과 첨단기술의 경쟁력을 갖춘 군함으로 일본에 불법 침략한 프랑스 해군을 상징했다. 군함은 근대화에 뒤떨어진 일본사회의 이면, 군과 전쟁에 대한 비판의식을 표현했던 것이다. 이러한 비판의식은 「うた日記」와 「徂征日記」에도 나타내는데, 적군이 탄 군함은 ‘艦’으로 표기하고 아군이 탄 군함은 주로 ‘舟’로 표기했다. <舟>를 통한 비판의식은 ‘艦’에 비취졌고 이와 상응되는 <舟>는 ‘船’이 아닌 ‘舟’로 나타났다. ‘舟’로 표현한 것은 유년시절에 비취진 일상의 <舟>가 ‘船’이 아니라 ‘舟’였음이 문학작품에 작용한 것이다. 오가이는 흔히 볼 수 있는 <舟>를 의식적 혹은 고의적으로 작품에 투영하여 오가이 특유의 <舟>를 구사하였다. 요컨대 오가이의 생애 빠뜨릴 수 없었던 <舟>는 각 작품을 통해 여러 양상으로 재편되고 있어 작품의 해석에 키워드의 하나임을 규명할 수 있었다.

A Study of Mori Ogai
- centering on the boat his works -

Ok Ji Kim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Mori Ogai (森鷗外, hereinafter “Ogai”) was a big figure called the “Literary Giant Mori Ogai or Japanese Army Surgeon general official Mori Rintaro”. He was an acknowledged military official and well-known literary man who published the Yuhak trilogy including 「Maithime, 舞姫」 as well. 「Ogaigyositowadarezo, 鷗外漁史とは誰ぞ」 revealed his hardships as a literary man behind his reputation. Calling himself ‘*Bae* <舟>’, Ogai did not dwell on holding a position in the literary world but instead was focused on writing activities. This resulted from his stance as an auteur who did not publish any works for more than ten years including the period when he was demoted to an army surgeon in Gokura. However, given that he later began working on a wide range of creative writings, this also means a lot. With respect to ‘*Bae* <舟>’, Ogai who was conversant with the Chinese classics, showed his consciousness by attaching more meanings to a ‘boat (舟)’ other than merely

‘ship (船)’. ‘*Bae*’ demonstrated his focus on a ‘boat (舟)’ in order to represent his inherent inner self or will. Although *Bae* 「Mailhime, 舞姫」 was a huge ship which travelled to and from Europe and Japan, in his earliest works, he consistently described it as a ‘boat’, not as a ‘ship’. At the beginning of 「Sanshowdayou, 山椒大夫」, he mixed the ‘boat’ and the ‘ship’ but only used the ‘boat’ from a point where incidents fully developed. In 「Takasebune, 高瀬舟」, he used the ‘boat’ to suggest issues about euthanasia and satisfaction. His way of dealing with issues about our inner life through the ‘boat’ was derived from his childhood experiences in Mukojima. Because ‘*Bae*’ in Mukojima was an inevitable tool in commuting to school and daily life as well as a common subject, it naturally influenced young Ogai. Therefore, ‘*Bae*’ and Mukojima was the background of his entire literary works from 「Gan, 雁」 to 「Saikikoi, 細木香以」 and 「Sibuechousai, 渋江抽斎」 in his later days. ‘*Bae*’ in daily life, was represented as a simple means in 「Kouseiniki, 航西日記」 and 「Soteiniki, 徂征日記」 where it was described from a point where he boarded ‘*Bae*’. In 「Kouseiniki, 航西日記」, the records of studying in German, a three-month procedure for studying overseas was all written on a day when he boarded ‘*Bae*’. Moreover, in 「Soteiniki, 徂征日記」, in his records of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on boarding ‘*Bae*’, he began writing about what happened for several days after he had received an order from the superior authority.

Ogai’s recognition reflects a connotation of ‘*Bae*’ that involves a new starting point at the turning point of our life. Furthermore, ‘*Bae*’ in daily life was the medium of memories and a tool for hope in 「Toitusniki, 独逸日記」; its meaning was extended to a subject with a lot of issues in reality in 「Mousou, 妄想」; and in 「Hyakumonogatari, 百物語」, and it showed the complicated feelings of middle-aged Ogai as a literary man. As an army

surgeon, Ogai also represented the bureaucracy and modern awareness through 'Bae'. In 「Skaijiken, 堺事件」, 'Bae' symbolized the French navy that had illegally invaded Japan with warships equipped with modern economic power and cutting-edge technology. A warship represented the hidden side of the Japanese society that had fallen behind the modernization and the criticism of the armed forces and wars. The criticism was shown in 「Utaniki, うた日記」 and 「Soteiniki, 徂征日記, where a battleship with enemy forces was described as a 'warship' while a battleship with our forces usually as a 'boat'. The criticism through 'Bae' was projected to a 'warship' while 'Bae' projected to a 'boat' instead of a 'ship'. With the expression of the 'boat', 'Bae' in daily life in his childhood was described as a 'boat', not as a 'ship' in his writings. Ogai made use of Ogai's own unique 'Bae' by projecting 'Bae' commonly seen in everyday life consciously or intentionally to his writings. In short, 'Bae', the essential element of his life takes on many aspects through each literary work; therefore, it turns out to be one of key words used in interpreting his works.

목 차

* Abstract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10
II. 본론	22
제1장 오가이 생애와 <舟>	22
1. 들어가기	22
2. 유년시절의 <舟>	27
3. 출발선상의 <舟>	33
4. 나가기	39
제2장 「舞姫」와 <舟>	42
1. 들어가기	42
2. <舟>를 통한 自覺	45
3. <恨>의 공간과 <舟>	50
4. 현실적인 공간과 <舟>	55
5. 나가기	63

제3장 「鷗外漁史とは誰ぞ」와 <舟>	66
1. 들어가기	66
2. <舟>의 역설적 표현	69
3. 「灰燼」과 「伊沢蘭軒」의 <舟>	75
4. 나가기	82
제4장 「うた日記」와 <舟>	84
1. 들어가기	84
2. 관료의식과 <舟>	87
3. 「妄想」와 <舟>	96
4. 나가기	105
제5장 「山椒大夫」와 <舟>	107
1. 들어가기	107
2. 역사소설과 <舟>	110
3. 현실의 한계와 <舟>	115
4. 나가기	120
제6장 「高瀬舟」와 <舟>	122
1. 들어가기	122
2. <안락사>와 <舟>	125
3. <知足>과 <舟>	131
4. 나가기	137

Ⅲ. 결론	138
【참고문헌】	147



I. 서론

1. 연구목적

모리 오가이(森鷗外, 이하 오가이로 표기함)는 明治에서 大正期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활약한 인물이다. 그를 두고 ‘문호 모리 오가이·군의총감 모리 린타로(文豪森鷗外·軍医総監森林太郎)’라 불렀다. 문학자로서 명성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육군 군의로서 최고의 직위인 군의총감까지 오른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明治 초기 독일에서 위생학을 연구하고 귀국 한 오가이는 군의 관료로서 인정받는 한편, 처녀작 「舞姫」¹⁾를 비롯한 유학 3부작을 발표하여 문학자로서 이름을 알리며 명성에 걸맞은 방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성을 얻는 이면에는 문학자로서 많은 고난을 겪었음을 아래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다.²⁾

장자의 빈 배의 비유가 있다. 지금의 나는 뭐라 해도 문단의 지위를 다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화내는 자는 없다. 그것은 빈 배와도 같다.

위의 「鷗外漁史とは誰ぞ」³⁾를 통해 오가이는 군의로서 문학 활동을 하는 자신에 대한 주변의 제약과 「舞姫」 이후 10년 이상 작품을 발표하지 못한 문학자로

1) 鷗外森林太郎(1890) 「舞姫」 『国民之友』 第六卷第六九号新年附録.

2) 森林太郎(1974) 「鷗外漁史とは誰ぞ」 『鷗外全集』 二十五卷, 岩波書店, p.127.

莊子に虚舟の譬がある。今の予は何を言っても、文壇の地位を争うものでないから、誰も怒るものは無い。彼虚舟と同じである。

3) 森林太郎(1900) 「鷗外漁史とは誰ぞ」 『福岡日日新聞』

서의 입장을 밝히고 있었다. 오가이는 문단의 지위를 다투지 않는 자신을 ‘빈 배 (‘배’는 이하, 오가이 작품분석에 한하여 <舟>로 표기함)’로 지칭하며 오로지 집필활동에 몰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당시 문단에 대해 자신의 문학 활동에 관한 의지를 빈 <舟>에 비유한 것이다. 이와 같은 빈 <舟>의 비유는 10년 이상의 공백기에 나온 것으로 그 후 방대한 창작 활동을 개시한 것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상징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빈 <舟>에 비유한 자신의 의지를 한자 ‘주(舟)’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한학에 정통했던 오가이가 본연의 뜻을 파악하고서 ‘선(船)’보다는 ‘舟’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본다. ‘舟’와 ‘船’의 어원을 살펴보면 자신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으면 ‘舟’이고 서쪽에 있으면 ‘船’이라 한다.⁴⁾ 즉 오가이는 동쪽의 ‘舟’를 동양적인 요소, 서쪽의 ‘船’을 서양적인 요소로 여겨 자신의 본질적인 내면이나 의지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舟’로 나타낸 것이다.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장자(莊子)의 빈 <舟>’에 쓰인 한자가 ‘舟’가 아닌 ‘船’이었다면 오가이가 문학자로서의 고난을 표현한 문장에 인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舟’로 나타낸 오가이가 문학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육군 군의관인 오가이에게 배의 소재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당시 문학가로서는 매우 드물게 청일전쟁·러일전쟁의 양 전쟁에 종군했던 경험과 독일유학을 통해 자주 등장하였다. 유럽으로 독일 유학을 떠난 오가이는 프랑스 선박 ‘멘자레호’를 타고 갔으며⁵⁾, 청일전쟁·러일전쟁의 참전 당시 주로 군함

4) 諸橋轍次(1995)『大漢和辞典』 大修館書店, p.478

〔舟〕、自関而西、謂之船、自関而東、或謂之舟。

〔배〕는 자신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배는 ‘船’이라 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배를 ‘舟’라 한다.

5) 坂内正(2001)『最大悲劇』 新潮選書, p.21

明治十七年八月二十四日、ドイツ留学を命じられた陸軍二等軍医森林太郎は、横浜でフランス船メンザレエ号に乗り込んだ。

明治17년 8월 24일 독일 유학을 명령받은 육군 2등 군의 모리 린타로는 요코하마에서 프랑스선박 멘자레(Menzare)호를 탔다.

‘초문고(長門号)’를 탔었고, 이동할 때는 수송선 ‘요코하마(横浜丸)’와 순시선 ‘도에이마루(東英丸)’ 등을 이용했다.⁶⁾

일본사회에 있어서 근대 초기의 배는 1853년 ‘구로부네(黒船)내항’⁷⁾ 사건 이후 서구열강 침략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서구의 배는 일본이 열세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요소로 비쳤다. 부국강병을 추진한 일본은 서구의 기술을 도입하여 조선업에 몰두했다. 청일전쟁·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은 조선업의 인식이 더욱 강해졌으며, 1890년에는 나가사키(長崎)에서 일본 최초의 철선을 제작했다.⁸⁾ 조선업의 발달로 배는 경제성장의 결과물로서 근대화의

6) 森林太郎(1975)『徂征日記』『鷗外全集』三十五卷, 岩波書店, pp.237~239

四日。午前七時三十分馬関に達す川卯に宿る午前四時東英丸に乗り発す家書を作る(略)二十一日。上陸して大同江司令部に至り司令官武田信賢に逢ふ司令部五里浦に在り漁蔭洞の東なる小部落なり丘陵起伏松櫟等を生ず尺を過ぐれば伐り去る故に長大なるものなし処々玫瑰叢を成せり人家を觀る一廠あり礮臺を安置した牛環りて之を行る転じて長門号船に至り土岐頼徳を見る横浜号船に至る亀井伯主僕あり夜舟に帰る。

4일. 오전 7시 30분 마관에 도착하여 센류에 머문다. 오전 4시 도에마루를 타고 출발해 집으로 편지를 쓴다. (중략) 21일. 상륙하여 대동강 사령부에 들러 사령관 다케다 노부가타를 만난다. 사령부 고리우라에 있는 어음동의 동쪽에 소부락이 있는데, 구릉 기복에 겨우살이 등이 자라 그 사이를 지나려면 장대한 것이 있어야 된다. 여기 저기 해당화에 둘러싸인 인가로 보이는 곳간이 있고, 맷돌을 안치한 소를 보러 갔다가 장문호에 들러 도키 요리노리를 둘러본다. 요코하마호에 이르니 가메이백작과 하인이 있어 밤배로 돌아간다.

7) 下中邦彦世(1966)『世界大百科事典 7』平凡社, p.35.

1853年浦賀に来航したペリー提督がひいたアメリカ艦隊を浦賀奉行がく退陣自由にて艀楫を用ゐず迅速に出没しと幕府に上申したように、その自由迅速な行動に驚怖の念がふくまれたようになった。

1853년 요코스카에 내항한 페리 제독이 이끈 미국함대를 요코스카 봉행이 <퇴진이 자유로운 노를 사용하지 않고 신속하게 출몰한다>는 막부에 상소한 것과 같이, 그 자유 신속한 행동에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8) 下中邦彦世(1966)『世界大百科事典 11』平凡社, p.434.

明治初年は、ヨーロッパ諸国で木船と鉄船または鋼船との切換時代にあたり、日本の木船は、あまり大形のものは建造されなかった。(略) 1890年長崎三菱造船所で輪の鋼材を用いて建造された大阪商船の筑後川丸級は日本最初の鋼商船である。(略) 日清・露日の兩戦争を契機とした日本經濟の急伸の伴い海運・造船も、<航海奨励法><造船奨励法>の立法や諸情勢の好転と相まち、1911年(明治31)には船腹量は120万トン(世界6位)に達した。

상징이 되었으며 오가이의 작품에서도 근대화의 상징으로 배가 등장했다.

「堺事件」⁹⁾에 등장하는 <舟>는 근대의 경제력과 가장 발달된 첨단기술의 경쟁력을 갖춘 군함으로 일본에 불법 침략한 프랑스 해군을 상징한다. 군함은 불법 침범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일본을 침략하고서도 일본 군인에게 책임을 추궁하여 죽음으로 내모는 불합리한 상황의 중심에 있었다. 「堺事件」에서의 군함은 <舟>를 통한 작가의 근대화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정신은 청일전쟁·러일전쟁을 기록한 「徂征日記」¹⁰⁾, 「うた日記」¹¹⁾에서도 나타난다. 「徂征日記」에는 자신이 타고 있던 군함은 ‘주(舟)’로 표기하는 반면에 적의 군함은 ‘함(艦)’으로 표기하였다.¹²⁾ 「うた日記」에서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군함을 표기할 때, 읽는 방법으로 ‘이쿠사부네(軍ぶね)’, 즉 ‘군(軍)의 배(舟)’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표기하였다. ‘艦’을 피하려는 의식과 ‘舟’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려는 오가이의 의도가 비춰졌다. ‘舟’와 ‘艦’(또는 ‘船’)의 차이가 근대화에 뒤떨어진 일본의 현실을 나타낸 것만은 아니었고 ‘艦’보다 ‘舟’를 선호하는 오가이의 문

명치 초년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목선과 철선 또는 강철선으로 전환시대를 맞아, 일본의 목선은 대형선은 건조하지 않았다. (중략) 1890년 나가사키 미쓰비시조선소에서 프로펠러가 철재를 이용해 건조된 오사카 상선 치쿠고가와마루 큐는 일본 최초의 철 상선이다. (중략) 청일전쟁·러일전쟁 두 전쟁을 계기로 일본 경제의 급신장에 따라, 해운·조선도 <항해장려법> <조선장려법>의 법과 여러 정세의 호전과 맞물려, 1911년(명치31)에는 선박량은 120만 톤(세계 6위)에 올랐다.

9) 鷗外(1914) 「堺事件」 『新小説』 第一九 年第二卷

10) 森林太郎(1907) 「うた日記」 『明星』 九月

11) 鷗外漁史(1890) 「徂征日記」 『衛生新誌』 第二十号

12) 森林太郎(1972) 「徂征日記」 『鷗外全集』 三十五卷, 岩波書店, pp.237~239

二十九日。山田大尉平壤より帰る詳に戦況を談ず夕に敵艦一隻大聯湾に近き処にて自焚せしを聞く。(略) 二十二日。同舟の人多く上陸す。

29일. 야마다대위 평양에서 상세한 전황을 얘기하는 저녁에 적함 한 척이 대만 가까운 곳에서 전소한 것을 듣다. (중략) 22일 같은 배에 탄 많은 사람이 육지에 내린다.

학적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이를테면 ‘艦’과 ‘舟’의 표기는 작가의 의도 즉 오가이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오가이의 처녀작인 「舞姫」의 <舟>는 유럽과 일본을 오가는 巨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船’으로 표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舟’를 사용하였다. 동시대의 문학자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¹³⁾도 「夢十夜」의 ‘第七夜’에서는 ‘船’을 사용하였다¹⁴⁾.

무엇이든 커다란 배를 타고 있다. 이 배가 매일 밤낮으로 끊임없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파도를 가르고 항해한다. 엄청난 소리를 낸다.

‘第七夜’의 첫 문장에서 무엇이든 신고서 밤낮으로 연기를 내뿜는 커다란 배는 ‘船’의 한자를 사용하였다. 소세키의 ‘船’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근대화의 상징적인 교통수단이었다.

일반적으로 화물이나 사람을 태우는 여객은 ‘船’로 표기하고 수동식의 소형 배는 ‘舟’로 표기한다.¹⁵⁾ 이러한 것을 모를 리 없는 오가이는 유학을 떠날 때 자신

13) 新村出(1993)『広辞苑』第四版, 岩波書店, p.1916.

英文学者・小説家。名は金之助。江戸牛込生れ。東京大卒。五高教授。1900年(明治33)イギリスに留学、帰国後東大講師、のち朝日新聞社に入社。○五年「吾輩は猫である」、ついで「倫敦塔」を出して文壇の地歩を確保。他に「坊っちゃん」「草枕」「美人草」「三四郎」「それから」「門」「彼岸過迄」「行人」「こころ」「道草」「明暗」など。

영문학자・소설가. 이름은 긴노스케. 에도우시고메 출생. 동경대학 졸업. 오고 교수. 1900년 영국에 유학, 귀국 후 동경대학 강사, 이후에 아사히신문사에 입사. 05년에 「吾輩は猫である」, 「倫敦塔」을 내고 문단의 입지를 확보. 그 외에 「坊っちゃん」「草枕」「美人草」「三四郎」「それから」「門」「彼岸過迄」「行人」「こころ」「道草」「明暗」등.

14) 夏目漱石(1974)「夢十夜」『夏目漱石集』 筑摩書房, p.325.

何でも大きな船に乗っている。この船が毎日毎夜すこしの絶間なく黒い煙を吐いて浪を切って進んで行く。凄じい音である。

15) 相賀徹部(1993)『日本国語大辞典』第九卷, 小学館, p.470.

이 탄 배를 ‘船’으로 썼다.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舞姫」의 <舟>는 ‘船’이 아니었다. 오가이는 <舟>를 외관상의 형태나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문학적인 의미를 담아 나타내고자 한 것 같다.

본 연구는 오가이 문학에 사용되고 있는 <舟>를 작품 전반에 걸쳐 분석하여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물론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오가이 개인의 일상에 나타난 <舟>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우선 작품에서 사용하는 <舟>는 「舞姫」와 더불어 역사소설 「山椒大夫」¹⁷⁾와 「高瀬舟」¹⁸⁾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山椒大夫」는 설화집 『説経節』¹⁹⁾을 각색한 작품으로서 ‘역사 벗어나기’를 시도한 작품이지만, ‘역사 벗어나기’를 하지 못한 작품이었다고 작가 스스로 언급했다. 「山椒大夫」의 결말은 설화집의 내용과 다르게 노예해방을 다루었으나, 결국 ‘역사 벗어나기’를 하지 못했다고 고백한다.²⁰⁾ 본론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오가이가 시도한 ‘역사 벗어나기’는 자신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이러한 시도는 작중인물을 통해 그려져 있다. 주인공이 <舟>의 공

16) 森林太郎(1975)「独逸日記」『鷗外全集』三十五卷, 岩波書店, p.103.

穂積、樋山、佐藤の三氏伯林より至る。穂積は航西の時、余と船を同うせし人なり。

호즈미, 오키야마, 사토의 세 사람이 베를린에서 온다. 호즈미는 유럽으로 올 때, 나와 배를 같이 탄 사람이다.

17) 森林太郎(1915)「山椒大夫」『中央公論』1月第三十卷一号, 学灯社

18) 森林太郎(1915)「高瀬舟」『中央公論』第三一年第一号

19) 荒木繁·山本吉左右 編注(2009)『説経節』, 平凡社

20) 森林太郎(1973)「歴史其假と歴史離れ」『鷗外全集』二十六卷, 岩波書店, p.511

兎に角わたくしは歴史離れがしたさに山椒大夫を書いたのだが、さて書き上げた所をみれば、なんだか歴史離れがし足りないようである。これはわたくしの正直な告白である。(略)伝説が人買の事に関してあるので、書いてゐるうちに奴隷解放問題なんぞに触れたのは、やむことを得ない。

어쨌든, 나는 역사 벗어나기를 하고 싶어 산초대부를 적었지만, 막상 다 적고 보니, 역사 벗어나기를 하지 못한 듯하다. 이것은 나의 정직한 고백이다. (중략) 전설이 인신매매에 관한 것인데, 적는 동안에 노예해방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간을 통해 수동적인 인물에서 능동적인 인물로 변화되었으며 공간으로서의 <舟>는 적지 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高瀬舟」에서는 <안락사>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룬다. 이는 실제 자신이 체험한 중대한 사건으로 실제 의사로서 오가이가 오랫동안 의구심을 가졌던 문제였다. 이 또한 본문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소재로서 <舟>는 <안락사>의 소극적인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가이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舟>는 쓰와노(津和野)에서 태어난 그가 10살 경에 동경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사용한 이동수단이었다.²¹⁾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독일유학과 청일전쟁·러일전쟁의 경험 속에서 <舟>는 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주로 독일 유학에 관한 기록 「航西日記」²²⁾, 「還東日乗」²³⁾과 청일전쟁·러일전쟁 참전 기록 「日清役自紀」²⁴⁾ 와 「徂征日記」²⁵⁾에 나타나 있다.

「航西日記」는 1884년 9월 24일 <舟>를 탄 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은 6월 17일 유학명령을 받은 날부터의 일을 적은 것으로 일련의 유학일정을 기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학 명령은 6월 17일에 받았다. (중략) 24일 7시 30분에 배를 탔다²⁶⁾.

21) 森まゆみ(1997)『鷗外の坂』 新潮文庫, p.76

もしかすると鷗外は十歳のとき、この土山を通ったかもしれないという考えが湧いた。鷗外が父静男と共に上京したルートはまだはっきりしていない。おそらく津和野から瀬戸内海の三田尻の港へ出、そこから船にのったであろう。

어쩌면 오가이는 10살 때, 이 산을 지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가이는 아버지 시즈오와 함께 상경한 루트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아마 쓰와노에서 세토나이카이의 미타지리의 항구로 나와, 거기서 배를 탔을 것이다.

22) 鷗外森林太郎(1889)「航西日記」『衛生新誌』第二号~十八号

23) 鷗外漁史(1890)「還東日昇」『衛生新誌』第二十号~二十二号

24) 森林太郎(1894)「日清役自紀」『中路兵站軍医別報第一』

25) 鷗外漁史(1890)「徂征日記」『衛生新誌』第二十号

「航西日記」의 첫 기록은 유학명령을 받고 의학부 졸업장을 수령하여 유학을 떠나기 위해 준비한 3개월간의 일정을 <舟>를 타던 날부터 적었던 것이다. 또한 청일전쟁·러일전쟁을 기록한 것으로 「日清役自紀」가 있다.

명치 27년 9월 4일 소관임지는 부산에 도착하여 기무라 군의의 후임을 맡는다²⁷⁾.

「日清役自紀」의 첫날은 히로시마(広島)에서 한국의 부산으로 이동하는 <舟> 안에서 적은 내용이었다. <舟>를 타고나서 전월 28일 사령부로부터 명령을 받아 동경에서 히로시마에 도착해 <舟>를 타기까지 8일간의 일정을 첫날에 적은 것이다. 「日清役自紀」는 공적인 업무를 기록하는 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부로부터 명령을 받은 날이 아닌 <舟>를 타던 날부터 기록하였다. 그리고 「還東日乗」와 「徂征日記」도 첫 기록은 <舟>를 탄 날부터 시작하였다. 독일유학과 청일전쟁·러일전쟁 참전을 기록한 일지의 공통점은 모두 <舟>를 타던 시점에 기록됐다는 것이다. 오가이가 자신의 행적을 적은 앞의 일기와 기록들에서 <舟>를 타기 전의 일들이 전부 배제된 채, <舟>에 승선한 시점에서 시작한다는 공통점은 매우 흥미롭다. 오가이는 <舟>를 본인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는 출발 선상에 놓고 있었다.

한편으로 「キタ・セクスアリス」²⁸⁾, 「雁」²⁹⁾, 「渋江抽斎」³⁰⁾, 「伊沢蘭軒」³¹⁾, 「細木香以」³²⁾ 등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舟>의 문제는 본론에

26) 森林太郎(1973) 「航西日記」 『鷗外全集』 三十五卷, 岩波書店, p.75

此行受命在六月十七日。(略) 二十四日 午前七時三十分上船。

27) 森林太郎(1973) 「日清役自紀」 『鷗外全集』 三十三卷, 岩波書店, p.3

明治二十七年九月四日小官任地ハ釜山二着シ木村軍医正ノ後ヲ襲グ。

28) 森林太郎(1909) 「キタ・セクスアリス」 『スバル』 第七号

29) 鷗外(1909) 「雁」 『スバル』 第三年第九号

30) 森林太郎(1916.1.13~5.17) 「渋江抽斎」 『大阪毎日新聞』 『東京日日新聞』

서 상세히 다루겠으나 빼놓을 수 없는 작품들이다. 오가이의 일상이 투영된 문학은 그의 작가로서의 의식이나 군의 관료로서의 의식과 그가 살아온 시대적인 시점이 접목되어 작품에 나타나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오가이 문학에 있어서의 <舟>는 신변을 다룬 작품과 신변의 사건을 연관시켜 접근하는데 하나의 단서이고 이는 작품해석에 대한 작가의 의도를 살필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한다. 문학자가 자신의 작품에서 사용하는 기교는 그의 문학관을 반영하는 가장 핵심적인 범주라 할 수 있다. 오가이가 문학작품에서 <舟>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船’보다 ‘舟’에 중점을 둔 것은 어떠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작품 속 <舟>는 그의 문학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양상과 기능을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1) 森林太郎(1916)「伊沢蘭軒」『大阪毎日新聞』九月

32) 森林太郎(1917)「細木香以」『大阪毎日新聞』『東京日日新聞』九月

2. 선행연구

오가이의 전기문학은 낭만주의 문학과 계몽적 문예평론, 후기는 사상소설과 역사소설, 번역 등으로 나타나는데 그의 문예적인 업적은 장르를 막론하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높이 평가된다. 이 외에도 그가 업적을 남긴 영역은 위생학, 의사평론, 미학, 미술평론, 사회사상 등으로 오가이는 종합적인 지식인이자 거인이자 불리기도 한다. 이에 많은 연구자가 오가이 전·후기 문학에 있어서 장르별 집중적인 탐구로 그의 생애와 문학의 업적에 대한 독자성과 특이성을 개괄해왔다.

우선, 오가이의 출생과 성장과정에 관한 작가론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쓰와노에서 태어난 오가이의 어린 시절과 ‘신동’으로 집안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성장과정¹⁾과 모친의 가정교육으로 인해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대담한 성격이 형성되었²⁾ 또한 오가이의 문학적 자질과 성향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밝혔다³⁾. 그리고 모친과의 관계가 특별했던 오가이는 그의 실패한 두 번의 결혼 또한 모친의 영향이었고 이는 문학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⁴⁾ 오가이는 10살 경에 동경으로 거주지를 옮기는데 당시 오가이가 살았던 무코지마(向島) 세 곳의 주거지와 7년간의 행적을 당시 지도를 소개하며 설명했다.⁵⁾ 성장과정에 관한 연구는 집안의 가업을 이어야 했던 오가이에게 집중된 조기교육과 남다른 교육열을 가졌

1) 山崎一穎(1997) 「鷗外における津和野」 『講座 森鷗外 鷗外の人と周辺』第一卷, 新曜社

2) 山崎国紀(1997) 「鷗外にかかわる母性」 『講座 森鷗外 鷗外の人と周辺』第一卷, 新曜社

3) 磯貝英夫(1981) 「森鷗外の人と作品」 『鑑賞日本近代文学 ①森鷗外』 角川書店

4) 平川祐弘(1997) 「鷗外の母と鷗外の文学」 『講座 森鷗外 鷗外の人と周辺』第一卷, 新曜社

5) 上杉伸夫(2005) 「鷗外旧居考」 『森鷗外記念会』43号

던 모친의 영향이 그의 성격형성뿐만 아니라 문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었다. 오가이의 모친은 그의 진로와 결혼과 같은 사생활에도 깊이 개입했고 이에 따른 내면의 갈등이 그의 문학성향으로 나타났다는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살에 동경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오가이는 明治期에 독일유학을 다녀와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다. 오가이의 작품에 대해 유학체험과 견문이 작품에 투영되어 근대적 정신을 깨달은 지식인의 고뇌가 있었고⁶⁾, 유럽에서 배운 지식과 일본 전통사회와의 충돌로 일본에 맞춰 재생산된 문학적인 기법을 나타냈다고 했다⁷⁾. 또한 고급 관료이고 지식인이었던 오가이의 고뇌와 사상을 엿볼 수 있었고⁸⁾, 동서양문화에 입각한 감각, 일본의 유교도덕이론과 서양의 의학·문학·사상과의 상호관계에서 明治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물려 오가이의 감성이 익숙해져 가는 성향을 규명했다⁹⁾. 데뷔작 「舞姫」에 대해 오가이는 주인공 도요타로(豊太郎)를 통한 자아각성과 悔恨을 토로하였다고 했으며¹⁰⁾, 베를린에서 오가이의 행적을 바탕으로 작품과의 연계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¹¹⁾, 근대청년의 꿈과 좌절을 통한 근대인의 의식과 현재인식을 드러냈다고 했으며¹²⁾, 「舞姫」의 표기에 있어서 한자어·외래어·번역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¹³⁾ 「舞姫」의 에리스가 일

6) 이기섭(1997) 「森鷗外の 독일 유학에 대해」 『일본어문학』 3집

7) 박성희·권혁건(2009) 「回遊하는 智識과 近代留学—森鷗外를 중심으로—」 『日本語教育』 48집

8) 西垣勤(1996) 「일본 근대화와 지식인의 고뇌— 삼구외(森鷗外)의 경우—」 『石堂論叢』 제24권

9) 萩原孝雄(1997) 「森鷗外における西洋と日本—子宮の感性をめぐる—」 『講座 森鷗外 鷗外の知的空間』 第三卷, 新曜社

10) 권태민(1996) 「森鷗外の 『舞姫』 考察」 『日本文化学報』 3집

11) 平岡敏夫(1990) 『「舞姫」への遠い旅』 大修館書店

12) 山田有策(1998) 「舞姫」 『国文学』 1月号第43卷1号

13) 최춘화(2005) 「森鷗外の 『舞姫』 表記意識」 『일어일문학』 27집

본에 입국한 정황과 그녀가 입국하자마자 출국을 강행해야 했던 경위 즉 오가이 가족과 오가이 소속 육군내부의 관계자들과의 일화와¹⁴⁾, 에리스와 결혼을 추진한 오가이가 육군 측에 사표를 낸 사건과 에리스의 출국에 따른 오가이의 실의, 한편으로 에리스를 두고 ‘거리의 꽃’라고 지칭했던 오가이의 여동생 고가네이 기미코(小金井喜美子)의 언급에 반박하기도 했다.¹⁵⁾ 이어 에리스가 다녀간 후 20년이 지나 발표한 「我百首」에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어 오랫동안 잊지 못하는 오가이의 심정을 기술했다.¹⁶⁾ 그리고 「舞姫」와 더불어 독일유학 3부작으로 「うたかたの記」에 대해서는 집필 시기가 오가이의 장남이 태어나자마자 도시코(登志子)와 이혼을 강행했던 상황이라 오가이의 곤혹스런 내면의 위기를 극복하려던 과정의 작품으로 ‘작가’로서의 갈등이 담긴 작품으로 꼽았다.¹⁷⁾ 그리고 「うたかたの記」의 배경이 신화적이고 전설적이며 심층적인 매력에 자극을 받아 연구자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정황에 대한 관점이 있었다.¹⁸⁾ 「文づかい」는 독일의 실제 체험을 전하는 공문서와 같다는 설명이 있었다.¹⁹⁾ 오가이의 전기문학인 유학 3부작에 대한 연구는 서구의 문물을 체득한 오가이의 사상과 일본 사회의 시대적인 상황이 작품에 묘사된 요소를 연구자들은 놓치지 않았다. 「舞姫」는 주로 지식인의 사상과 고뇌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舞姫」의 에리스가 일본에 입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구는 더 활발해졌다. 「舞姫」에 대한 재해석과 작중인물이 실존인물임이 밝혀지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나아가 이전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연구도 이뤄져 연

14) 林尚孝(2005) 『仮面の人・森鷗外』 同時代社

15) 植木哲(2000) 『新説 鷗外の恋人エリス』 大進堂

16) 小平克(2006) 『森鷗外「我百首」と「舞姫事件」』 同時代社

17) 山田有策(1998) 「舞姫」 『国文学』 1月号第43卷1号

18) 山田有策(1998) 「うたかたの記」 『国文学』 1月号第43卷1号

19) 宗像和重(1998) 「文づかい」 『国文学』 1月号第43卷1号

구범위가 확대되었다.

한편 오가이의 후기 문학은 크게 사상소설과 역사소설로 나뉜다. 사상소설 및 신변소설의 출발은 「半日」로 시작되는데, 「半日」는 자신의 부부의 문제와 고부간의 갈등 등 오가이의 실생활이 깊게 개입되었다고 했다²⁰⁾. 사상소설 「雁」, 「追儼」, 「青年」, 「かのように」 등과 번역소설 「みれん」에 묘사된 ‘찰라’라는 어휘에는 작가의 심적 상태를 고찰한 오가이의 의식세계가 있다고 했으며²¹⁾, 「雁」에 대해서는 오가이의 인생체험이 투영된 것이고²²⁾, 「青年」은 근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공간이 묘사되었다고 했다²³⁾. 「ㄱ타・섹스아리스」는 오가이가 주인공 ‘君’와 ‘話り手’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대응시킨 것이고²⁴⁾, 「普請中」는 오가이 눈에 비친 일본 근대화의 양상을 나타낸 작품이라 했으며²⁵⁾, 그리고 「妄想」은 「蛇」와 「カズイチカ」와 마찬가지로 오가이가 영원한 불평²⁶⁾임을 보여준 작품이라 했다. 나아가 『その紋様』에서는 ‘변모하는 아이러니’와 ‘쓸쓸한 사람들을 보조선으로’이라는 테마로 주로 사상소설 「かのように」와 「あそび」, 「雁」, 「蛇」, 「妄想」 등의 분석을 했다.²⁷⁾ 「雁」을 비롯한 「青年」, 「かのように」, 「妄想」등은 자신의 체험을 투영한 신변소설의 형태로 작

20) 青田寿美(2002) 「鷗外『半日』における《家》」 『神女大國文』第一九卷三月号

21) 신영언(1983) 「森鷗外의 一断面」 『연구논문집』 17집

22) 노해두(2004)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기러기(雁)』考察 - 등장인물에 투영된 작가의 인생체험을 중심으로」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0호

23) 石崎公一(1998) 「雁」 『国文学』 1月号第43卷1号

24) 掛井みち恵(2001) 「『ㄱ타・섹스아리스』一試論」 『早稲田大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

25) 이평(2006) 「森鷗外の目に映った日本明治維新近代化—『普請中』」 『경희대학교 비교문학연구소』 10집2호

26) 重松泰雄(1997) 「妄想の生まれる時、生まれるところ—鷗外『妄想』一解」 「鷗外における津和野」 『講座 森鷗外 鷗外の人と周辺』 第二卷

27) 竹盛天雄(1984) 『鷗外 その紋様』 小沢書店

가의 의식세계를 드러내고 있어서 사상소설에 대한 연구는 작가론 영역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오가이의 의식이나 사상, 철학 등 작가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오가이는 자신의 사고가 현실과 맞지 않아 방관자적 자세로 불평하는 인물로 평가되었다. 사상소설을 통해 실험적 집필을 거치면서 작가로서의 창의력 부족을 극복해 간 오가이는 역사소설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역사소설을 집필하는데, 첫 작품 「興津弥五右衛門の遺書」에 대해서는 작중인물의 유서를 통한 오가이의 역사인식을 서술한 것이라 했다.²⁸⁾ 나아가 오가이는 역사소설의 여주인공들을 통해 권위에 대항하거나 승리하는 구도를 보였다고 한다.²⁹⁾ 「興津弥五右衛門の遺書」와 「阿部一族」 등의 역사소설에 묘사된 할복자결에 대한 설명과³⁰⁾ 역사의 해석방식을 통해 근대 지식인의 역사인식을 묘사한 것임을 기술했고³¹⁾, 「高瀬舟」의 배경은 재산에 대한 관념과 안락사라고 하였다³²⁾. 「山椒大夫」에는 입센의 신여성의 영향을 받은 근대의 신여성이 배후에 작용한 것이라고 했고³³⁾, 「山椒大夫」의 안쥬(安寿)와 「高瀬舟」의 기스케(喜助)의 희생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³⁴⁾. 나아가 역사소설은 「涉江抽齋」와 같이 오가이 특유의 史伝소설로 발전하는데, 史伝소설이 史実考証의 단순한 문서적 문헌

28)한정숙(2008) 「森鷗外「興津弥五右衛門の遺書」論—<遺書>というを形式をめぐって—」 『日本学報』 77집

29) 유진우(2003) 「모리 오가이(森鷗外)와 권위 —권위에 대한 대처방식과 권력 비판의 양상—」 『日本近代文学』 2집

30) 송현순(1998)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역사소설 『아베(阿部) 일족(一族)』의 순사(殉死)를 중심으로」 『日語日文学研究』 33집1호

31) 최재철(2001) 「모리 오오가이(森鷗外)의 역사소설」 『일본연구학회』 16호

32) 고호석(1995) 「森鷗外の『高瀬舟』에 관한 小考」 『논문집』 18집

33) 고영자(1994) 「森鷗外の 역사소설 『山椒大夫』 背景—<신여성>」 『東国大学校 研究所』 13집

34) 유진우(1995) 「모리 오가이(森鷗外) 역사소설의 同質 構造論—「山椒大夫」「高瀬舟」의 ‘献身’의 구조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10호

적 고증에 그친 게 아니라 인간적 고증에도 철저를 기했다는 점을 규명했다³⁵⁾. 나아가 史伝소설의 성립은 이전의 역사소설처럼 자료에 근거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기 위한 것이라 했으며³⁶⁾, 역사소설 「伊沢蘭軒」과 「北条霞亭」은 오가이 특유의 史伝소설의 경향을 나타냈다고 했다³⁷⁾. 史伝소설이라는 특유의 영역을 개척한 오가이는 작가다운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후기문학의 역사소설은 연구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분야이기도 했다.

그리고 오가이는 연극개량운동 적극 참여하는데, 오가이를 근대극의 개척자라 칭하며 그가 창작한 희곡이 상당수가 공연되었음을 밝혔고³⁸⁾, 오가이는 正劇(드라마)과 情劇(오페라)의 분립, 소극장과 국민연극의 문제, 극평의 확립 등의 신연극운동의 이론을 확립하였다고 했다. 또한 가부키중심의 연극개량운동에 적극적이었음을 설명했다.³⁹⁾

한편 군의관이었던 오가이가 청일전쟁·러일전쟁에 참전했을 때 주장한 각기병에 대한 문제의 지적이 있었으며⁴⁰⁾, 한국에서의 오가이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와 연구의 문제점 등 연구 성과에 대한 현황을 밝히고 있었다⁴¹⁾. 오가이는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전한 기록이나 의학저서를 집필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연구 또한 여러 방면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최

35) 이남근 (1984) 「森鷗外の 歴史小説 및 史伝小説 小考」 『일어일문학연구』 5집

36) 이종덕(1984) 「森鷗外の研究ノート ― 史伝成立論への試み」 『세종대학 논문집』 11집

37) 柴口順一(1997) 「『伊沢蘭軒』と『北条霞亭』 ― いわゆる史伝の位相」 『講座森鷗外 鷗外の作品』 二卷, 新曜社

38) 金子幸代(1997) 「近代劇の誕生―鷗外と戯曲―」 『講座森鷗外 鷗外の作品』 二卷, 新曜社

39) 카네코 사치요(金子幸代)·유진우(2005) 「모리 오오가이(森鷗外)와 근대극 - 『카부키(歌舞伎)』를 시점으로 하여」 『일본근대문학』 4집

40) 山本俊一(1997) 「鷗外と脚気問題」 『鷗外と知的空間』 三卷, 新曜社

41) 권태민(2005) 「한국에서의 모리 오가이(森鷗外) 문학 연구 성과와 과제 조명」 『日本学報』 62집

근 들어 오가이에 대한 연구추세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오가이 문학은 일반인에게도 관심이 낮아지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 같은 현상은 오가이 문학은 문장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이미지가 강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로 본다. 또한 오가이 문학의 폭 넓은 장르에서도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너무나 방대한 오가이 문학을 장르별 연구로 접근하기 보다는 하나의 키워드를 설정하여 작품의 해석 연구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독일유학과 청일전쟁·러일전쟁의 종전 등을 생각하면 <舟>는 오가이 인생의 전환기에 출발시점에 수반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舟>는 작가의 일상에서 생활의 수단으로 불가분의 요소이었고 이에 문학 속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있었다. 따라서 <舟>는 오가이 문학의 키워드로 작품해석의 단서로 비춰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전반적이며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연구는 오가이와 <舟>의 관계에 주목한 것으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오가이의 생애를 통해 <舟>를 살펴보면, 오가이가 태어나 자란 쓰와노의 생가는 쓰와노강(津和野川)의 경계에 있어 <舟>를 보며 학교를 다녔던 일상이 있었음을 밝혔다.⁴²⁾ 그리고 오가이가 10살 경에 쓰와노에서 동경 무코지마로 이주할 때 <舟>로 이동했다는 설명과⁴³⁾, 또한 쓰와노에서 히로시마의 미타지리(三田尻)로 나온 오가이는 거기서 요코하마까지 증기선을 탔다는 주장도 있었다⁴⁴⁾. 무코지마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오가이의 일상에서 <舟>

42) 鈴木満(1997)「鷗外の受けた教育」『講座 森鷗外 鷗外の人と周辺』第一巻, 新曜社, p.85

43) 森まゆみ(1997)『鷗外の坂』新潮文庫, p.76

44) 鈴木満(1997)「鷗外の受けた教育」『講座 第一巻 鷗外の人と周辺』新曜社, p.101

는 생활수단이었고 늘 바라보던 정경의 하나라고 했으며⁴⁵⁾, 장년이 된 오가이가 살았던 관조루에서 바라본 앞바다에 떠다니는 <舟>⁴⁶⁾ 또한 일상적인 요소였음을 밝혔다. 오랜 기간의 일상의 <舟>는 「キタ・セクスアリス」를 비롯한 「渋江抽斎」, 「伊沢蘭軒」에서 <舟>는 일상의 불가분의 요소로 일련의 작품에 하나의 장면으로 나타났다.⁴⁷⁾ 나아가 일상의 <舟>는 문학작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그것은 「我百首」에 유학시절 사랑했던 연인을 떠올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관조루에서 바라보던 <舟>는 그녀를 연상케 한 것이라고 했다.⁴⁸⁾ 게다가 <舟>는 오가이가 문학자로 입문하기 위해 필명을 정하던 시점, ‘오가이(鷗外)’의 유래에도 나타나 있는데, 물위에 떠 있는 갈매기 사이로 유유히 지나가는 작은 <舟>가 있었다.⁴⁹⁾ 이와 같이 그의 일상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던 <舟>는 독일유학과 청일전쟁·러일전쟁 참전 등 신변의 변화를 기록한 일지에도 나타났다. 독일유학의 기록「航西日記」, 「還東日乗」와 청일전쟁·러일전쟁 참전 기록「日清役自紀」, 「徂征日記」에서는 출발하기 위한 여러 날의 수속과정이 있었음에도 <舟>를 타는

45) 富崎逸夫(1989)「鷗外縁かりの土地一向島の旧居」『森鷗外記念会』43号, p.280

46) 森まゆみ(1997)「鷗外の坂」『講座 森鷗外 鷗外の人々の周辺』第一巻, 新曜社, pp.234~235

47) ①森鷗外(1973)「キタ・セクスアリス」『森鷗外全集』五卷, 岩波書店, p.102

僕は分れて、今戸の渡しを向島へ渡った。

나는 헤어져, 이마도 다리를 건너 무코지마로 건너갔다.

②森鷗外(1973)「渋江抽斎」『森鷗外全集』十六卷, 岩波書店, p.497

ただ向島であつたというだけである。

다만 무코지마였던 것만은 기억한다.

③森鷗外(1973)「伊沢蘭軒」『森鷗外全集』十七卷, 岩波書店, p.50

十九日に犬塚印南、今川槐庵、蘭軒の三人と一しよに、お茶の水から舟に乗つて、墨田川に遊んだ。(略)次で十六日に蘭軒は向島に遊んだ。

19일에 이누쓰카 인난, 이마가와 가이안, 란켄의 세 사람이 함께 오차노미즈에서 배를 타고 스미다강의 독길에서 놀았다. (중략) 다음에 16일에 란켄은 무코지마에서 놀았다.

48) 小平克(2006)『森鷗外「我百首」と「舞姫事件」』 同時代社, p.216

49) 森鷗外(1977)『鷗外全集』七卷, 筑摩書房, p.316

시점부터 기록한 것을 확인했다.⁵⁰⁾ 일련의 기록에서 단순한 이동 수단인 <舟>는 신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불가피한 요소로 여겼던 오가이의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이 같은 <舟>의 인식은 만년이 된 오가이의 에피소드에도 나타났다. 장녀 마리(茉莉)가 결혼하여 그녀의 남편과 함께 유럽으로 가려했지만 시가의 반대에 부딪히자 오가이는 일단 <舟>의 예약부터 하였다는 것이다.⁵¹⁾ 또한 독일로 유학을 떠나는 청년의 유학생살을 다룬 데뷔작 「舞姫」의 첫 장면이 <舟> 안에서 전개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여겨졌다.⁵²⁾ 「舞姫」에 등장하는 <舟>는 오가이가 유럽으로 유학에서 돌아올 당시에 탔던 프랑스 여객선이라고 기술하였다.⁵³⁾ 한편으로 「舞姫」의 주인공 에리스가 가상인물이라는 것에 대해 그녀가 일본으로 입국할 때 승선한 <舟>의 선객명부를 통해 실제 인물이었음을 밝혔다.⁵⁴⁾ 실제로 에리스는 오가이보다 일본에 8일 일찍 도착하였고 이에 대한 경위와 도항비용, 항해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했다.⁵⁵⁾ 그리고

50) ①森鷗外(1974)「航西日記」『森鷗外全集』三十五卷, 岩波書店, p.75

夢駕長風万里船。二十四日 午前七時三十分上船。

배는 만 리 길을 타니 순풍에 돛 단 듯 달려가니 꿈 만 같다. 24일 오전 7시 30분, 배를 탔다.

②森鷗外(1974)「日清役自紀」『森鷗外全集』三十三卷, 岩波書店, p.3

船ヲ辞シテ此ニ留ルモノアリヤト問フ云ク絶テコノ事ナシ四日釜山港ニ入ル天明クルヲ候チテ兵站監部ニ往キ事務ノ授受ヲナス実ニ辞令ニ接スル後八日ナリ

배로 가서 여기에 머무르는지 묻고 나서 4일 부산항에 입항하니 새벽이다. 병참 감부에게 가서 사무를 인수받으니, 실제로 사령을 받은 지 8일째이다.

51) 須田喜代次(1997)「研究回顧展望」『講座 森鷗外 鷗外の人と周辺』一卷, 新曜社, p.466

52) 森鷗外(1971)「舞姫」『森鷗外全集』一卷, 岩波書店, p.426

今宵は夜毎にこゝに集ひ来る骨牌仲間も「ホテル」に宿りて、舟に残れるは余一人ひとりのみなれば。

오늘밤은 밤마다 여기에 모여 게임을 하던 무리들도 ‘호텔’에 투숙하고, 배에 남은 것은 나 혼자뿐이다.

53) ロバートキャンベル・戸松泉・宗像和重(1997) 「『舞姫』注釈」『文学』季刊 第八卷・第3号, 岩波書店

54) 林尚孝(2005)『仮面の人・森鷗外』 同時代社, pp.14~30

「舞姫」에서 도요타로가 <舟> 안에서 자각을 표출한 것에 대해 도요타로는 <舟>를 타고 유럽을 출발하고 나서 열흘쯤 지났을 때 자신은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자세를 취하며 살아왔다는 자기변명을 토로한 것이라 했으며⁵⁶⁾, 그동안 남에게 드러내지 못한 도요타로의 <恨>은 에리스와의 비극적인 사랑에 대한 회한으로 이 같은 감정이 그녀와 이별 후 본국으로 입국하던 <舟> 안에서 비로소 생겨났다고 했다.⁵⁷⁾ 도요타로는 입국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자신이 유학을 떠났던 5년 전의 내용임을 冒頭に 설명하고 작품을 전개하고 있어서, 자기변명이라든가 비극적인 사랑에 대한 <恨>은 귀국 당시의 감정이 아니라 집필하던 시점의 감정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恨>의 표출은 도요타로를 ‘공허한 중등실’에 두고 그의 과거를 인식해가는 오가이의 문학적 기교가 있었다는 것이라 했고⁵⁸⁾, <舟>의 중등실은 도요타로가 원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하였다⁵⁹⁾. ‘공허한 중등실’은 오가이가 <舟>를 선택할 수 밖 없는 관점을 간파하고 있었으며 <舟>는 도요타로가 남에게 드러내지 못한 <恨>을 토로하기 위해 철저하게 의도된 공간이었다. 의도된 공간의 <舟>는 오가이 문학에 나타난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어 타 작품과의 비교가 필요했다. 「独逸日記」 통해 유학시절 친구와 즐거운 때를 보냈던 추억의 <舟>를 소개하였고.⁶⁰⁾ 「独逸日記」에서 친구에게 띄우는 한편의 詩에 나타난 <舟>는 힘든 현실에서 친구와 같이 먼 미래를 갈 수 있는 수단이었다.⁶¹⁾

55) 小平克(2006)『森鷗外「我百首」と「舞姫事件」』 同時代社, p.42

56) 高田知波(2000)「バイリンガルの手記—『舞姫』論への一視点—」『駒沢国文』三七卷二月号

57) 谷口巖(2003)「『舞姫』小考—物語中の<時間>を読む—」『岐阜女子大学紀要』第32号3月号

58) 小泉浩一郎(2004)「『舞姫』『うたかたの記』『文づかい』」『森鷗外全集—新日本古典文学大系明治編—』p.539.

59) 金子幸代(1992)『鷗外と<女性>』大東出版社, p.32

60) 竹盛天雄(1984)「流離と邂逅」『その紋様』小沢書店, p.11

61) 森鷗外(1974)「独逸日記」『森鷗外全集』三十五卷, 岩波書店, p.100

한편 <舟>는 청일전쟁·러일전쟁의 참전 때 기록한 「うた日記」에 여러 양상으로 나타났다. 「老船長」과 「浪の音」 등은 <舟> 안에서 長詩와 단가, 하이쿠를 기록한 것이라 했다.⁶²⁾ 「老船長」은 오가이가 나이가 든 자신의 모습을 <舟>에서 늙은 선장에 비유하여 적은 詩이고 「浪の音」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詩인데 직접적으로 <舟>를 묘사한 것은 아니지만 <舟> 안에 집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학시절 연인이 떠올라 적었던 「扣鈕」에도 직접적으로 <舟>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전쟁터에서의 오가이의 선상생활을 감안하면 <舟> 안에서 적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전쟁터라는 불안한 현실에서도 <舟>는 문학적으로 직접 표현되거나 詩想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舟>를 통한 묘사는 전쟁의 공포나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반면 「徂征日記」에는 전쟁에 대한 비판의식도 있었다. 오가이는 <舟>를 통해 감상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빈 <舟>로 나타냈다. 빈 <舟>가 묘사된 「灰燼」에 대해, 주인공 후시구라(節蔵)의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감을 인식하고 이를 언어로 설정한 것이라 했고⁶³⁾, 게다가 「灰燼」의 빈 <舟>가 의미하는 것은 침체된 허무주의라 하였다⁶⁴⁾. 오가이는 후시구라의 존재감에 자신을 발견, <舟>처럼 대처해 가길 바라는 작가의 의지를 투영시켜 후시구라가 대처하길 바라는 의도가 있었다. 빈 <舟>의 의지는 고쿠라 좌천시절 스스로의 마음을

舟は日本にて競漕に用ゐるものに似て一艇艫より三艇艫までの差あり。舟首には黄灯、舟尾には赤灯を点し、その進退を識別すべからしむ。余等もまた舟を借り、河上に泛ぶ。

배는 일본에서 경주에 쓰이는 배와 비슷하며, 노가 한 개에서 세 개까지의 차이가 있다. 뱃머리에 노란색 등, 배 후미에 빨간색 등을 켜고, 그 진퇴를 식별한다. 우리들도 또한 배를 빌려 강위를 떠다닌다.

62) 末延芳晴(2008)『森鷗外と日清・日露戦争』 平凡社, p.183

63) 竹盛天雄(1984)「『灰燼』の再考」『その紋様』 小沢書店, p.657

64) 萩原孝雄(1997)「森鷗外における西洋と日本—子宮の感性をめぐる—」『講座 森鷗外 鷗外と知的空間』 第三卷, 新曜社, p.418

비우려는 자세로 창작활동에 매진하던 시점에 생겨난 관점이었고, 이후 문학의 ‘풍숙(豊熟)의 시대’를 맞았다.

위의 설명한 바와 같이 오가이 문학작품에서 <舟>와 관련된 연구를 조사해본 결과, 방대한 그의 업적과 이에 따른 연구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舟>라는 키워드로 작품을 분석해 가는 연구는 되어 있지 않아 오가이 문학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발상이 필요할 시점으로 여겨졌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山椒大夫」는 <舟>안에서 사건이 전개되었고, 「高瀬舟」는 <舟>안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내용임에도 <舟>와 관련된 논문은 없어 작가의 의도나 작품의 의의를 간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료되어 적극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가진다.



II. 본론

제1장 오가이 생애와 <舟>

1. 들어가기

동경대학 의학부에 수석으로 입학한 오가이는 최연소 입학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입학규정이 14살 이상인데 12살이었던 오가이는 원서에 2살을 올려 예과대학에 입학했다.¹⁾ 이는 에도막부 가메이(亀井)藩의 의료를 9대째 맡아 온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동경대학 의학부를 지향하며 철저한 교육을 받고 자랐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오가이가 10살이 되던 해 明治를 맞아 오가이 집안은 동경의 외곽에 있는 작은 섬 무코지마로 이사를 하였다. 무코지마에 정착한 것은 독일어를 가르치는 사립학교 진문학사(進文学舎)가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어 학교는 무코지마 앞을 흐르

1) 山崎穎一(1997)「鷗外における津和野」『講座 森鷗外 鷗外の人と周辺』第一巻, 新曜社, p.45

当時「予科への入学者の年令は十四歳から十九歳まで」(『東京大学医学部百年史』)に限っていたので、生年月日を文久二年(一八六二)から万延元年(一八六〇)に改めている。二歳早めても明治七年(一八七四)一月にならないと、規定の年齢に達しなかつたことは事実である。

당시「예과의 입학자 연령은 14살에서 19살까지」(『동경대학의학부백년사』)에 한하기 때문에, 생년월일을 문구 2년(1862)에서 만연원년(1860)으로 고쳤다. 2살 빠르더라도 명치 7년(1874) 1월이 되지 않으면, 규정된 연령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는 스미다강(隅田川) 건너편에 있었으므로 매번 <舟>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오가이는 어느 날 돈이 없어 곤혹을 치른 적도 있었다.²⁾

진문학사를 다녔던 린타로에게 뱃삿이 없었던 에피소드를 모리 데쓰조는 『명치인물일화사전』에 적어두었다. 뱃삿은 동전 한 개, 즉 1리 5모였다. 린타로의 용돈은 2리 5모, 매주 주말 무코지마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배삿을 남겨둬야 했다. 어느 날 동전 한 개가 없었던 린타로는 선착장에 가까이 있는 목재상의 계산대에 있는 아저씨에게 내일까지 한 장 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탁했다. 「아침 일찍부터 짜증스럽게」라는 아저씨의 말투가 신경에 거슬렸겠지만, 일방적으로 타버렸고 다음날 갚으러 갔더니 필요 없다고 한다. 린타로는 화가 나서 동전을 아저씨의 얼굴에 던지고 달아났다고 한다.

집으로 가기 위해 선착장에 도착한 오가이는 돈이 없어 <舟>의 티켓을 근처의 목재상 아저씨에게 한 장 빌려 탔던 적이 있었다. 이러한 에피소드를 통해 <舟>는 통학을 위한 불가피한 이동수단이었고 그것은 무코지마에서는 배제할 수 없는 일상적인 요소였음이 들어난다. 오가이가 이사 왔을 무렵 무코지마에서의 <舟>는 더욱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스미다강의 독길에 뱃길의 안전을 위해 가로등이 설치된 것이다. 독길의 등불과 어우러진 벚꽃놀이 축제는 이 시기에 생겨나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³⁾ 그리

2) 森まゆみ(2008) 『鷗外の坂』 新潮文庫, pp.56~57

進文学舎へ通う林太郎に渡し賃がなかったエピソードを、森鉄三は『明治人物逸話辞典』に書きとめている。渡し賃は文久銭一つ、すなわち一厘五毛であった。林太郎の小遣いは一週間二厘五毛、毎週末、向島に帰るためには渡し賃を残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ある時、文久銭一つがなかった林太郎は渡し場近くの材木問屋の帳場の爺さんに、明日まで一枚貸してくれまいか、と頼んだ。「朝っぱらからいまいましい」という爺さんの言い草も腹にさわったが、背に腹は替えられずに借りて乗り、翌日返しにいくと、要らない、という。林太郎は腹が立って文久銭を爺さんの顔に投げつけて逃げたというのである。

고 오가이 집안은 다시 센주(千住)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독일어 공부를 계속 해야 했던 오가이는 홀로 남게 되었다. 무코지마의 가메이 영주의 업무를 맡고 있던 그의 부친은 혼자 살던 오가이의 집에 거의 매일 방문하였다. 때로는 오가이가 선착장에 부친을 마중하러 나가기도 했고, 주말이면 부친과 함께 <舟>를 타고 센주의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기도 했다. 오가이의 유년시절에서 <舟>는 일상의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부친과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요소로 기억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상을 보내며 무코지마에 7년간 지냈던 것을 감안하면 <舟>는 오가이의 정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정서는 그의 문학작품에 그대로 반영되어 「伊沢蘭軒」⁴⁾에 무코지마와 <舟>가 나타난다.⁵⁾

가을로 접어들어 7월 9일에 차야마 란켄 일행은 다시 스미다강에 배를 띄워 불꽃놀이를 봤다. (중략) 봄에 띄우는 시는 실재를 기록했기 때문에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배를 띄우는 구절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중략) 친구들은 보내 시나가와의 요릿집에 이르러 이별을 고했다.

3) 森まゆみ(2008) 『鷗外の坂』 新潮文庫, p.56

明治四年、鷗外が上京した前年には牛島神社の常夜灯が建てられている。これは隅田川の船の航行の安全のためであり、墨堤の桜見物時には灯籠となり、現存する。明治五年、いまの桜橋のあたりに浅草待乳山聖天と牛島神社をむすぶ竹屋の渡し(待乳の渡し)がはじまった。

明治 4년, 오가이가 상경하기 전년에는 우시지마 신사의 가로등이 세워졌다. 이것은 스미다강에 다니던 배의 항로의 안전을 위해, 독길의 벚꽃놀이를 하면 등불이 되어 현존한다.明治 5년 지금 사쿠라 다리 근처에 아사쿠사맛치야마쇼텐과 우시지마 신사를 잇는 다케야노 다리가 생겼다.

4) 森林太郎(1916) 「伊沢蘭軒」 『大阪毎日新聞』 九月

5) 森林太郎(1972) 「伊沢蘭軒」 『鷗外全集』 十七卷, 岩波書店, pp.57~59

秋に入ってから七月九日に、茶山蘭軒等は又墨田川に舟を泛べて花火を觀た。(略) 春游の詩は実を記したので無いとも見られようが、舟を泛ぶる約は必ずあつたのであらう。(略) 友人等は送つて品川の料理店に至つて別を告げた。

스미다강에서 <舟>를 띄워 불꽃놀이를 보면서 詩를 읊는데 <舟>를 띄우는 구절은 반드시 넣었을 거라고 한다. 이 같은 무코지마의 일상은 「キタ・セクスアリス」 6), 「雁」 7), 「渋谷抽斎」 8), 「細木香以」 9) 등 만년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나타나 있어 유년시절의 기억이 오가이 문학에 상당히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일련의 작품에는 무코지마와 <舟>, 아울러 시나가와(品川) 거리, 단고자카(団子坂) 등이 묘사되어 있었다. 시나가와 거리와 단고자카는 오가이가 30년간 지냈던 관조루(觀潮樓) 일대이므로 <舟>는 관조루 시절 일상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동경대학에 합격한 오가이는 무코지마를 떠나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대학생활을 했다. 의학부 동기생 중에서도 성적이 우수했던 오가이는 졸업 후 국비 유학으로 독일유학길에 올랐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 모교의 교수가 되거나 육군 장교가 되는 특전으로, 오가이로서는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오가이가 유학을 떠날 때의 격앙된 감정은 당시 일본에서 유럽까지 50여 일 정도 걸리던 뱃길을 기록한 「航西日記」와 처녀작 「舞姫」에 나타나 있다. 「航西日記」에 의하면 서양의학에 대한 동경과 이를 습득하려는 강한 의지로 <舟>를 탄 오가이는 유럽을 향하던 뱃길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¹⁰⁾ 또한 「舞姫」에서는 유학길에 <舟>를 타고 이국의 항구에 도착하니 세상에 어떤 것도 새롭지 않은 것이 없다고 기술하였다.¹¹⁾ 독일유학은 그의 삶에 있

6) 森林太郎(1909)「キタ・セクスアリス」『スバル』第七号

7) 鷗外(1909)「雁」『スバル』第三年第九号

8) 森林太郎(1916.1.13~5.17)「渋谷抽斎」『大阪毎日新聞』『東京日日新聞』

9) 森林太郎(1917)「細木香以」『大阪毎日新聞』『東京日日新聞』九月

10) 森鷗外(1974)「航西日記」『森鷗外全集』三十五卷, 岩波書店, p.75

公教阿逖着鞭先。昂々未折雄飛志。夢駕長風万里船。(略) 母喜不可得也。二十四日 午前七時三十分上船。

선진 의학을 배우러 떠나는 먼 길을 채찍하며, 큰 뜻을 저버리는 일 없이, 순풍에 배를 타니, 만 리 길이 꿈만 같고, (중략) 기뻐하지 말라 해도 기쁘지 않을 수 없다. 24일 7시 30분. 배를 탔다.

어서 큰 변화였을 것이다. 이는 「航西日記」에 나타나는데 일기를 쓰기 시작한 날짜가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던 시점이 아닌 <舟>를 타던 날부터 적힌 것에서 알 수 있다.¹²⁾ 이를테면 행정적으로 유학허가가 확정된 날이나 상부의 명령으로 출발하던 시점이 아니라 <舟>를 타던 날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舞姫」에서 주인공이 <舟> 안에 홀로 남아 있는 모습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과 유사하다. 독일유학 못지않게 그의 삶에 있어서 큰 변화는 청일전쟁·러일전쟁의 참전일 것이다. 따라서 참전 당시의 기록 「日清役自紀」와 「徂征日記」, 「北游日記」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舟>에 대한 인식은 두 번이나 전쟁에 참전했던 시기를 전후로 하여, 오가이 생애에서 일상생활에 비친 <舟>와는 어떻게 연계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독일유학 이전의 무코지마에 살던 유년기라든가, 청일전쟁·러일전쟁 참전 이후 관조루에서의 일상의 <舟>는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내고자 했는지 그 유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11) 森鷗外(1972)「舞姫」『鷗外全集』一卷, 岩波書店, p.426

今宵は夜毎にこゝに集ひ来る骨牌仲間も「ホテル」に宿りて、舟に残れるは余一人ひとりのみなれば。五年前の事なりしが、平生の望足りて、洋行の官命を蒙り、このセイゴンの港まで来し頃は、目に見るもの、耳に聞くもの、一つとして新ならぬはなく、筆に任せて書き記しつる紀行文日ごとに幾千言をかなしけむ、当時の新聞に載せられて、世の人にもてはやされしかど、今日になりておもへば、釋き思想、身の程知らぬ放言、さらぬも尋常の動植金石、さては風俗などをさへ珍しげにしるしを、心ある人はいかにか見けむ。

오늘 밤은 밤마다 여기에 모여 게임을 하던 무리도 ‘호텔’에 투숙하고, 배에 남은 것은 나 혼자뿐이다. 5년 전의 일이지만 평생 염원하던 양행의 관명을 받아 여기 사이공항구까지 왔을 무렵,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어느 하나 새롭지 않은 것이 없고, 붓에 맡겨 써 내려간 기행문 날짜마다 몇 천 단어를 이루고, 당시 신문에 실려 세상 사람에게 인기가 있지만, 오늘날 생각해 보면, 유치한 사상, 자신밖에 모르는 방언, 그 외에도 평범한 동식물과 금석, 게다가 풍속조차 진귀한 듯 적는 것을 일반 사람은 의아하게 쳐다본다.

12) 森鷗外(1972)「航西日記」『鷗外全集』三十五卷, 岩波書店, p.75

明治十七年八月二十三日。午後六時車発東京。抵横浜。(略)二十四日 午前七時三十分上船。

명치 17년 8월 23일. 오후 6시 동경출발. 요코하마도착. (중략) 24일 오전 7시 30분 배를 탔다.

2. 유년시절의 <舟>

시마네현(島根県)의 쓰와노에서 태어난 오가이는 마을 중심부로 흐르는 쓰와노강을 마주한 곳에 자신의 생가가 있어 이 길을 따라 학교 藩校양로관을 다녔다.¹³⁾ 藩校양로관에서 오가이는 사서오경과 대학 맹자 등의 한문 학뿐만 아니라 막부 시절에 이미 네덜란드 유학을 다녀온 친척 니시 아마네에게 영어, 불어, 독일어 등을 배우며 외국의 선진 의학을 배우기 위한 준비를 했다.¹⁴⁾ 오가이가 10살이 되던 해, 藩校양로관이 폐교되자 집안의 기대를 받던 그는 아버지와 단둘이 동경의 무코지마로 거처를 옮겼다. 무코

13) 鈴木満(1997)「鷗外の受けた教育」『講座 森鷗外 鷗外の人と周辺』第一巻, 新曜社, p.85

森家から十余丁離れた町人町の近くにあり、途中は城下町を貫流する津和野川(土地の人は錦川という)に沿う堤道で寂しく、犬がうろつき回ったり、悪童どもが悪さをしかけたりするので、朝は清子か峰子が、晩は米原家の家人が送るのが常であったという。春は堤に桜が花咲き、魚の豊かな、洗濯のできる美しい清流の川向こうには城山が、反対側にはなだらかな青野山が聳え、のどかな情景ではある。

모리집에서 10여丁 정도 떨어진 마을의 조년마치 가까이에 있으며, 도중에 성의 시타마치를 관류하는 쓰와노강(마을 사람들은 니시키강이라고 한다)을 따라 독길이 한적하고 개가 돌아다니거나 악동들이 해를 끼치거나 하기 때문에, 아침은 기요코나 미네코가, 밤에는 요네하라 집안의 가인들이 데려다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봄은 독에 벚꽃이 피고 물고기가 풍부한 세탁이 가능한 아름답고 맑게 흐르는 강 건너편에는 성산이, 반대편에는 완만한 아오노산이 솟아있고, 한적한 정경이다.

14) 鈴木満(1997)「鷗外の受けた教育」『講座 森鷗外 鷗外の人と周辺』第一巻, 新曜社, p.106

ドイツ語については常識的に判る。幼少時のオランダ語の基礎、進文学社で十一歳の秋から十二歳の冬までという頭の柔らかい時期にドイツ語を学べたこと、そして、西周の忠告も与かったはずだが、ドイツ語が医学に従事する上の必須外国語になるという外からの強い動機付けがあったことである。

독일어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어릴 적 네덜란드어의 기초와 전문 학사에서 11살 가을부터 12살의 겨울까지 머리가 유연한 시기에 독일어를 배웠던 것, 그리고 니시 아마네의 충고를 받아들인 것이겠지만 독일어가 의학에 종사하는 데에는 필수 외국어라는 외부로부터의 강한 동기부여가 있었던 셈이다.

지마는 스미다강과 히키후네강(曳舟川), 그리고 기타짓켄강(北十間川)의 세 강을 마주하고 있는 작은 섬인데, 동경의 중심부와는 다리로 이어져 있었다. 당시 무코지마 생활에 대해 도미자키 이쓰오(富崎逸夫)는 다음과 설명한다.¹⁵⁾

모리 집안이 상경하여 최초로 살았던 집은, 무코지마였다. 옛 번의 주인인 가메이 집안에 부탁해, 그 저택이었던 무코지마 고우메손에, 이어 같은 지역의 히키후네강 근처에 거처를 정했다. 이후 센주로 이사 갈 때까지 몇 년간 문자 그대로 가족 서로가 몸을 서로 지탱하듯이 무코지마에 정들이고 살았다.

무코지마에서 지내던 오가이는 스미다강 건너편에 있는 독일어 학교로 통학할 때 다리를 건너거나 <舟>를 타기도 했다. 무코지마에서 몇 년 지내던 오가이의 집안은 센주로 이사를 하였다. 그러나 오가이는 독일어 학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무코지마에 혼자 남게 되었다. 무코지마에 있는 가메이 영주의 업무를 맡고 있던 오가이 부친은 출근하기 전 혼자 지내는 오가이에게 항상 들렀다. 때로는 오가이가 <舟>를 타고 오는 부친을 마중하러 선착장에 나가 있기도 했다. 주말이면 오가이는 부친과 함께 <舟>편을 이용하여 센주의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갔다. 무코지마는 세 강과 동경만에 둘러싸인 섬이라는 지역적인 조건에서 <舟>를 타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이었다. 이러한 무코지마의 생활이 10살부터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이

15) 富崎逸夫(1989)「鷗外縁かりの土地一向島の旧居」『森鷗外記念会』43号, p.280

森家が上京してきて最初に住んだ家は、向島にあたった。旧藩主である亀井家を頼って、その別邸（旧下屋敷）のあたった向島小梅村に、次いで同地の曳舟川近くに居を定めたのである。その後、千住に移るまでの数年間、文字どおり家族お互いが身を支え合うようにして、向島の土地になじみ住んだのである。

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舟>는 유년시절의 주된 교통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서에 영향을 미쳤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서는 「ㄱ타・섹스아리스」에 그대로 묘사된다.¹⁶⁾

옛날 번의 다이묘의 저택이 무코지마이다. 아버지는 그곳의 빈 집을 구해 할머니 한 사람을 고용해, 밥을 짓게 하며 지내게 하신다. (중략) 같은 무리의 생도로 만난 녀석은 재난이다. 하얀 양말이 슬그머니 요코마치를 도는 것을 보고 세 사람이 한꺼번에 웃는다. 나는 헤어져, 이마도의 다리를 건너 무코지마로 건너갔다.

「ㄱ타・섹스아리스」에서 ‘아버지는 그곳의 빈집을 구해 할머니 한 사람을 고용해, 밥을 짓게 하며 지내게 하신다’라는 문장에서 오가이 부친이 홀로 있던 오가이를 위해 할머니를 곁에 두게 했던 일화를 나타낸 것이다. 주인공이 친구들과 놀던 무코지마의 집으로 향하는 장면은 오가이의 유년시절 기억을 그대로 묘사한 듯하다.

그리고 「雁」은 오가이의 대학시절을 연상케 하는 작품으로, 의대생 ‘나’와 같은 하숙집에 살고 있는 의대생인 오카다와의 청춘시절을 다룬 내용이다. 주인공 오카다가 조정선수로 활약하면서 여름휴가를 보내거나 쉬는 날 친구들과 <舟>를 타러 가는 장소로 무코지마가 묘사되어 있었다.¹⁷⁾

16) 森林太郎(1972) 「ㄱ타・섹스아리스」 『鷗外全集』 五卷, 岩波書店, p.102

旧藩の殿様のお邸が向島である。お父様はそこのお長屋のあいてゐるのにはいつて、婆さんを一人雇って、お飯を炊かせて暮してお出になる。(略) 軟派の生徒で出くわした奴は災難だ。白足袋がこそこそと横町に曲るのを見送って、三人一度にどっと笑うのである。僕は分れて、今戸の渡しを向島へ渡った。

17) 森林太郎(1972) 「雁」 『鷗外全集』 八卷, 岩波書店, p.492

日曜日には舟を漕ぎに行くか、そうでないときは遠足をする。競漕前に選手仲間と向島に泊り込んでいるとか、暑中休暇に故郷に帰るとかの外は、壁隣の部屋に主人のいる時刻と、留守になっている時刻とが狂わない。

일요일에는 배를 타러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풍을 간다. 경기 전에는 동료선수들과 무코지마에 머물든가, 한더위 휴가로 고향으로 돌아가든가 그 외에는, 옆방에 주인이 있는 시각과 부재중인 시각이 일정하지 않다.

「雁」의 주인공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휴가를 보내기 위한 장소로 무코지마의 <舟>를 선택하였고, 무코지마와 <舟>는 하나의 장면으로 묘사되었다. 무코지마에 대한 기억은 오가이의 만년 작 「渋江抽斎」와 「細木香以」에도 나타난다. 「渋江抽斎」에 묘사된 무코지마는 주인공이 태어나 생을 마감한 곳으로, 작품 전반의 배경이다.¹⁸⁾

중개인으로서는 아리나카, 요네하치가 왔다. 연회를 마치고 나서 배를 사야 사야쵸 해안으로 출항하여, 마쓰이마치의 이나모토로 갔다. 그러나 사무가와 니혼바시 사이를 어패류를 실어 나르는 배가 왕래한다. 이따금 배편을 이용해 방문한 적도 있었다. (중략) 다만 무코지마였던 것만은 기억한다.

「細木香以」는 무코지마에서 태어난 주인공이 죽어 무코지마의 미메구리(三囲) 신사에 안치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¹⁹⁾

에이키는 명치 초년 무렵에 무코지마의 미메구리 신사 안에 사당을 지어,

18) 森林太郎(1972) 「渋江抽斎」 『鷗外全集』 十六卷, 岩波書店, pp.486~497

取持には有中、米八が来た。宴を撤してから舟を鞘町河岸に艀ぎし、松井町の稲本に往った。しかし寒川と日本橋との間をば魚介を運ぶ舟が往来する。それに託して河竹新七、永機、竺仙等は書を寄せて香以を慰めた。またたまには便船して自ら訪うこともあった。(略) ただ向島であったというだけである。

19) 森林太郎(1972) 「細木香以」 『鷗外全集』 十八卷, 岩波書店, p.89

この永機は明治初年の頃に向島の三囲社内の其角堂に住み、後芝罘山辺に家を移して没した。

나중에 시바엔 산 근처로 집을 옮겨 죽는다.

위의 각 작품에 묘사된 일련의 무코지마는 작품 전반의 배경으로 주변의 산이나 강, 신사와 <舟> 등이 함께 나타난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지나가는 <舟>, 연회를 여는 <舟>, 연극을 공연하는 <舟>, 이동 수단인 <舟> 등이 나타나 있었다. 미메구리 신사는 무코지마의 고우메손(小梅村)에 있으며, 여기는 오가이가 살았던 지역으로 이 일대는 벚꽃으로 유명한 곳이다.²⁰⁾

이것에 의하면, 旧‘고우메손 817’번지는 ‘무코지마 고우메손 814’번지로 바뀌었다. 새 주소의 지도는 정비되어 있으며, 그래서 오가이의 ‘첫 번째 집’ 위치를 알 수 있다. 이것을 현재 지도로 확인하면 무코지마 니쵸메 17번지 2호와 9호에 걸쳐진 장소이다.

오가이가 살았던 고우메손 일대의 벚꽃은 스미다강 부근에서 상당히 알려진 명소로 1985년에 다리를 준공하는데, ‘사쿠라바시(桜橋)’라고 할 정도이다. 이 일대를 지나다녔던 오가이는 「伊沢蘭軒」에는 스미다강의 꽃구경을 하려고 <舟>를 띄우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²¹⁾

인난, 차야마, 란켄과 함께 스미다강에 꽃구경 배를 띄웠던 이마가와 가이

20) 上杉伸夫(2005) 「鷗外旧居考」 『森鷗外記念会』 p.256

これによると、旧「小梅村八十七番地」は「向島小梅村八十四番地」に変わっている。新住所の地図は整備されており、それで鷗外の「初の家」の場所がわかる。これを現在の地図で確認すると、向島二丁目十七番地二号と九号にまたがる所になる。

21) 森林太郎(1972) 「伊沢蘭軒」 『鷗外全集』 十七卷, 岩波書店, p.50

印南、茶山、蘭軒と共に、墨田川に花見舟を泛べた今川槐庵は、名は「穀」の「禾」に代えて、字は剛侯である。

간은 이름이 ‘껍질’의 ‘벼’를 대신하는 호가 강후이다.

무코지마의 스미다강을 마주한 곳에 살았던 오가이는 벚꽃이 만개한 계절이면 <舟>를 타며 꽃구경을 하던 것은 일상적인 생활이었을 것이고 이를 자신의 작품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伊沢蘭軒」과 「キタ・セクスアリス」, 「雁」, 「渋江抽斎」, 「細木香以」에는 무코지마뿐만 아니라 오가이가 장년이 되어 생활하던 단고자카의 관조루에서 바라보던 정경도 나타나 있다. 무코지마에 살던 오가이는 센주 이후, 네기시(根岸), 우에노하나조노쵸(上野花園町)에 살다가 단고자카로 옮겨, 그곳에 자신이 원하는 구조의 이층집을 짓고, 관조루라는 이름을 지어 작품 집필에 몰두했다. 관조루의 의미는 앞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이라고 한다.²²⁾

단고자카는 시오미자카라고도 하듯이, 시나가와의 앞바다가 보이는 고지대이다. 그러한 고지대에서 아래쪽으로 흘러려져 마을을 하얗게 한 설경은 아름다웠을 것이다. (중략) 오가이 집안에서는 근처의 토지를 매입해 신축 공사를 하여, 8월 10일 관조루가 완성되었다. 2층에 넓은 툇마루가 딸려 있고 열두 장의 다다미가 깔린, 높은 지대인데 계다가 2층이어서 조망이 상당히 좋고, 시오미자카의 이름을 따서 관조루라고 이름을 지었다.

관조루의 2층에 오가이의 방과 서재가 있어 주로 2층에서 집필하거나 문

22) 森まゆみ(1997)「鷗外の坂」『講座 森鷗外 鷗外の人と周辺』第一巻, 新曜社, pp.234~235

団子坂は潮見坂ともいうように、品川沖が見えるといわれた高台である。その高台から低地に舞い落ち、町を白くする雪の景色は美しかったであろう。新居の感慨である。(略) 森家では近隣の土地を買い足し、新築工事を起こし、八月十日、観潮楼が完成した。二階に広い縁付の十二畳があり、高台のしかも二階というので眺望すこぶる良く、潮見坂にちなんで観潮楼と名付けた。

학자들과 정기 모임을 가졌다. 오가이는 삼십여 년 간 이곳에서 집필에 몰두하면서 여생을 보냈다. 관조루는 건물구조뿐만 아니라 비교적 지대가 높은 단고자카로 정한 것도 오가이가 원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높은 위치에서 시나가와의 앞바다를 훤히 볼 수 있어서 단고자카로 정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시나가와 부두와 이어진 동경만이 펼쳐진 앞바다에 <舟>가 떠다니는 전경은 유년시절 무코지마에서 늘 볼 수 있었던 정겨운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유년시절의 기억은 오가이가 평생 살 집을 지을 때도 작용한 셈이다. 무코지마가 배경이 되는 「岬タ・セクスアリス」와 「伊沢蘭軒」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에 나타난 <舟>는 집필 하던 관조루에서도 볼 수 있었던 대상이었다. 무코지마와 관조루 일대의 단고자카라든가, 시나가와 거리등과 함께 등장한 <舟>는 불가분의 요소라는 것이다. 무코지마와 관조루는 오가이 작품에서 하나의 배경으로 묘사하고, 그 안에 <舟>가 배치되었다. 이를테면 <舟>는 어린 시절 무코지마의 정경과 집필 당시 내려다보이는 관조루의 전망에 부합되어 작품에 나타나 오가이 특유의 문학 소재라 할 수 있다.

3. 출발선상의 <舟>

근대의 격변하던 과도기에 살았던 오가이는 개인적으로 크든 작든 변화를 겪으며 의학을 연구하면서 문학인의 길을 걸었다. 이른바 근대의 지식인으로 살았던 오가이가 경험한 독일유학과 청일전쟁·러일전쟁 참전은 그의 생애 주목할 만한 신변의 변화로 여겨진다. 그러한 변화는 그의 작품을 통해 어떠한 경향으로 비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가이의 유년시절 동경의 무코지마로 거처를 옮기던 시점을 되짚어 보겠다. 쓰와노에서 태어나 거주지를 한 번도 옮긴 적이 없던 오가이는 10살 경에 동경으로 이사를 했다. 쓰와노에서 동경으로 이동한 경로에 대해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정황에 따른 추측이 있다. 모리 마유미(森まゆみ)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²³⁾

어쩌면 오가이는 10살 때, 이 산을 지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가이는 아버지 시즈오와 함께 상경한 루트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아마 쓰와노에서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의 미타지리의 항구로 나와, 거기서 배를 탔을 것이다.

오가이의 이동경로는 쓰와노에서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의 미타지리항구로 나와 <舟>를 타고 동경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스즈키 미쓰루(鈴木満)는 오가이가 부친의 본가가 있는 미타지리에 들러 동경으로 향하였다고 한다. 미타지리에서 효고(兵庫)나 오사카(大阪)까지는 <舟>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오사카에서 동경까지는 증기선이 다니던 시절이라서 미타지리에서 증기선을 타고 바로 요코하마까지 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²⁴⁾ 앞의 설명을 토대로 오가이가 쓰와노를 출발하여 동경에

23) 森まゆみ(1997)『鷗外の坂』新潮文庫, p.76

もしかすると鷗外は十歳のとき、この土山を通ったかもしれないという考えが湧いた。鷗外が父静男と共に上京したルートはまだはっきりしていない。おそらく津和野から瀬戸内海の三田尻の港へ出、そこから船にのったであろう。

24) 鈴木満(1997)「鷗外の受けた教育」『講座 森鷗外 鷗外の人と周辺』第一巻, 新曜社, p.101

明治五年(一八七二年)六月二十六日、髪を切下げにした十一歳の林太郎を伴った静男は、藩の貢進生で一時帰省していた山辺丈夫(前述)に同行してもらい、中国山脈の山道を踏み越え、地福の木嶋家に立ち寄り、三田尻(現防府市)まで出、静男の実家吉次家でしばらく滞在、写真など撮ったあと、一路東京に向かった。兵庫(現神戸)、大阪まで船便利用が普通で、さらに横浜まで蒸気船も通っていた時代一たとえば、一八七一年(明治四)

이르기까지의 이동 경로를 유추해 본 바, 이동수단은 <舟>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경 무코지마로의 이사는 단순히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가이 집안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것으로 이후 그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독일로 유학을 간 오가이는 「航西日記」에 그 여정을 기록하였는데, 그 첫 페이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⁵⁾

명치 17년 8월 23일. 오후 6시 동경 출발. 요코하마 도착. 하야시 집에서 숙박. 행정명령은 6월 17일 받음. 위생학 연구생 및 육군의. 7월 28일 황궁에 가서 절을 올리고 종묘에 이별인사를 고한다. 8월 20일 육군성으로부터 여권을 전달받는다. 비로소 대학 졸업한다. 항서의 뜻을 품는다.

「航西日記」의 첫 기록은 明治 17년 8월 23일에 시작되었다. 이날은 6월 17일경에 유학허락을 받아 7월 28일에 황궁에서 참배를 하고, 8월 20일에 육군 군부로부터 여권을 받아 동경에서 출발하기까지의 약 3개월간의 과정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3개월간의 기록을 오가이는 23일 단 하루 만에

九州から東京へ上って来た矢野竜溪文雄の一家は、大分から兵庫まで和船、兵庫から横浜までは外国の蒸気船を利用—だが、さてその道中記のほどは残されていない。

명치 5년(1862년) 6월 26일, 머리카락을 자른 린타로를 동반한 시즈오는藩의 추천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잠시 귀성한 야마노베 다케오의 동행으로, 추고쿠 산맥의 산길을 넘어, 지후쿠의 기지마 집안에 들러, 미타지리까지 나와 시즈오의 본가 기치지 집안에 잠시 머물다, 사진 등을 찍은 후 곧바로 동경으로 향했다. 효고, 오사카까지 배편 이용이 일반적이고, 게다가 요코하마까지 증기선도 다니던 시대 — 예를 들면 1871년(명치4) 규슈에서 동경으로 올라온 야노 류케이후미오의 일가는 오이타에서 효고까지 화선, 효고에서 요코하마까지는 외국의 증기선을 이용 — 하지만 막상 당시 여정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25) 森鷗外(1972) 「航西日記」 『鷗外全集』 三十五卷, 岩波書店, p.75

明治十七年八月二十三日。午後六時車発東京。抵横浜。投於林家。此行受命六月十七日。赴德国修衛生学兼詢陸軍医事也。七月二十八日詣闕拜天顔。辞別宗廟。八月二十日至陸軍省領封伝。初余之卒業於大学也。蚤有航西之志。以為今之医学。(略) 二十四日 午前七時三十分上船。

모두 썼다. 이후 24일에는 <舟>를 탄 당일부터의 매일의 상황을 기록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첫 기록은 23일에 시작하였지만, 실제로 <舟>를 탄 것은 24일이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23일에 이미 <舟>가 순항하고 있는 듯한 ‘만 리 길을 순풍에 돛 단 듯 달려가니’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舟>는 오가이에게 기록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자 오가이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유학시절을 배경으로 한 「舞姫」에서도 드러나는데, 주인공이 <舟> 안의 선실에 혼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작품이 시작된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²⁶⁾

석탄을 일찍이 실어 두었다. 중등실의 테이블 주변은 조용하게, 치열 등 불빛에 모여드는 무리. 오늘 밤은 매일 밤 이곳에 모이는 카드게임 친구들도 ‘호텔’에 머물고, 배에 남은 이는 나 혼자 뿐이다.

「舞姫」의 도입 부분은 <舟>를 탄 주인공이 선실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航西日記」와 마찬가지로 유학을 떠나는 주인공의 출발 시점을 <舟>로 여기고 있는 오가이의 관점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가이가 4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귀국하던 뱃길에서 「還東日乗」를 기록하는데, 일지의 4일째 되던 날에 <舟>를 탄 기록이 나타난다.²⁷⁾

26) 森林太郎(1972) 「舞姫」 『鷗外全集』一卷, 岩波書店, p.426

石炭をば早はや積み果てつ。中等室の卓のほとりはいと静にて、熾熱灯の光の晴れがましきも徒なり。今宵は夜毎にこゝに集ひ来る骨牌仲間も「ホテル」に宿りて、舟に残れるは余一人ひとりのみなれば。

27) 森林太郎(1972) 「還東日乗」 『鷗外全集』三十五卷, 岩波書店, p.219

明治二十一年七月三日。辞別伯 諸家。 四日。理行李。五日。夕。発伯林。六日。暁。(略) 七日。夕。上船。

명치 21년 7월 3일. 여러 집안에 송별인사(중략) 4일. 짚을 챙기다. 5일.
저녁. 베를린 출발. 7일. 저녁. 배를 탄다.

명치 21년 7월 3일부터 기록한 「還東日乗」에는 7월 7일에 <舟>를 탔다고 적혀있다. 4일간의 기록은 일지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일정을 간략하게 적은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본격적인 기록은 7일 <舟>를 탄 다음 날부터 적혀 있는데, 7일에 <舟>를 탄 오가이는 4일간의 기록을 하루에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還東日乗」에서도 출발을 나타내는 시점에 <舟>가 등장한다. 이것은 독일유학의 출발이 <舟>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가이는 청일전쟁·러일전쟁에 참전하였다. 당시 그는 공적인 기록과 사적인 기록을 남겼으며 「日清役自紀」와 「徂征日記」, 「北游日記」 등을 들 수 있다. 「日清役自紀」는 처음으로 전쟁터로 떠나는 오가이가 일정을 적은 공적인 기록이다. 첫 기록은 1895년 9월 4일 <舟>를 타던 날부터 적혀 있다.²⁸⁾

이보다 앞서 소관은 전월 28일로 중로 병참 군부장의 명령을 받아, 다음 날 29일 귀관의 훈령을 받아 즉시 동경으로 출발, 연일 기차 안에 있었다. 8월 31일 히로시마에 도착. 도중에 우지나에 부임한 야마네 운수 통신

28) 森林太郎(1972) 「日清役自紀」 『鷗外全集』 三十三卷, 岩波書店, p.3

是ヨリ先キ小官ハ前月二十八日ヲ以テ中路兵站軍医部長ノ辞令ヲ受ケ、翌二十九日貴官ノ訓令ヲ領シ即日東京ヲ発シ、連日汽車中ニ在リ八月三十一日広島ニ抵ル徑ニ宇品ニ赴キテ山根運輸通信支部長ヲ見田子浦丸ノ明後日発スベキヲ聞ク九月二日宇品ヲ発ス三日馬関ニ少繫ス急ニ上陸シテ原田運輸通信支部長ト相見ル始テ荒木軍医ノ茲ニ在ル患者ノ船ヲ辞シテ此ニ留ルモノアリヤト問フ云ク絶テコノ事ナシ四日釜山港ニ入ル天明クルヲ候チテ兵站監部ニ往キ事務ノ授受ヲナス実ニ辞令ニ接スル後八日ナリ

지부장을 만나 다고우라마루에서 내일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듣는다. 9월 2일 우지나를 출발 3일 마관으로 들어가 서둘러 상륙해서 하라다 운수 통신 지부장과 상견하고 나서 아라키 군의가 있는 환자가 탄 배로 가서 여기에 머무르는지 묻고 나서 4일 부산항에 입항하니 새벽이다. 병참 감부에게 가서 사무를 인수받으니, 실제로 사령을 받은 지 8일째이다.

8월 28일에 병참부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오가이는 29일 동경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하여 31일 히로시마에 도착했다. 히로시마에 도착한 오가이는 <舟>를 타고 부산에 이르던 9월 2일부터 기록하는데 즉 8일간의 일정을 적었다. 이 같은 기록은 오가이가 사무를 인수받는 날부터의 8일간의 공적인 업무보고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가이는 임무명령을 받은 당일부 터 그 기록을 남기지 아니하고 8일이나 지나 <舟>를 타던 날부터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오가이가 자신의 새로운 경험에 대한 출발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가 아닌 <舟>를 탄 시점부터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공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사적인 업무기록인 「徂征日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²⁹⁾

명치 28년 5월 23일 오시마 대만 총독부 육군국장관에게 히로시마의 접 객실에서 국원으로 대만으로 건너가야 한다는 명령을 받는다. 이시쿠로 야 진 위생장관도 전보를 받아, 화산대만 총독과 함께 배를 타고 갈 것을 말한다. 다음 날 요코하마호에 탑승하여 우지나로 출발한다.

「徂征日記」에서는 히로시마에 도착한 오가이가 대만으로 건너가야 한다

29) 森林太郎(1972) 「徂征日記」 『鷗外全集』 三十五卷, 岩波書店, p.96

明治二十八年五月二十三日大島台湾總督府陸軍局長官ニ広島ノ客舎ニ謁シ局員トナリテ渡台スベキ命ヲ受ク。石黒野戰衛生長官亦飛電シテ樺山台湾總督ト俱ニ船ニ上ルコトヲ允サル。翌横浜号船ニ搭シテ宇品ヲ発ス。

는 명령을 받아 히로시마에서 <舟>를 타고 우지나로 향하던 날부터 기록했다. 오가이는 히로시마에 있을 때 참전명령을 받았지만, 히로시마에 도착하여 <舟>를 타던 시점부터 기록한 것이다. 게다가 「北游日乗」의 기록의 시작도 임오년 2월 13일 ‘쓰운마루’라는 <舟>를 타는 날부터 적혀 있다.³⁰⁾

임오년 2월 13일 (중략) 고아미초의 산초메인 가나이시쓰에서 표를 사서 신오오바시에서 출발하는 쓰운마루라는 배를 탄다. 이날은 맑고 바람이 분다.

「北游日乗」는 오가이가 8개월간 기록한 업무일지인데, 첫 기록이 <舟>를 탄 시점에서 시작되었다. 결국 「航西日記」와 「日清役自紀」, 「徂征日記」와 마찬가지로 기록이 시작되는 날짜는 <舟>를 타고나서 <舟>를 타기까지의 과정을 적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점에 <舟>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상이었다. 첫 대목이 <舟> 안에서 전개되는 데뷔작 「舞姫」에도 반영되어 있듯이, <舟>는 오가이 생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수단이라 말할 수 있다.

4. 나가기

오가이는 「舞姫」 이후 20년간 공백기를 두고 「キタ・セクスアリス」를 비롯 한 「雁」, 「渋江抽斎」, 「伊沢蘭軒」, 「細木香以」 등을 발표하였다.

30) 森林太郎(1972) 「北游日乗」 『鷗外全集』 三十五卷, 岩波書店, p.61
壬午の歳二月十三日 (略) 小網町三丁目なる河内室にて券を買ひ新大橋より通運丸という舟に乗る此日天晴れて朔風吹けり

일련의 작품들은 만년에 집필한 작품임에도 공통적으로 오가이가 유년시절을 보냈던 무코지마가 배경으로 나타났다. 무코지마에서 독일어 학교를 다녔던 오가이는 <舟>를 타고 통학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특성상 <舟>는 불가피한 이동수단이였다. 무코지마에서의 일상적인 요소였던 <舟>는 무코지마를 배경으로 작품에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일상적 소재로 다루어진 <舟>는 주로 이동수단으로 묘사되었으며, 그것은 독일유학을 기록한 「航西日記」와 「還東日乗」, 참전기록 「日清役自紀」와 「徂征日記」, 「北游日乗」에 나타났다. 일련의 일기에서 <舟>는 일관되게 출발하는 시점에 나타나 있었고 이러한 관점은 데뷔작 「舞姫」에서도 같은 맥락이었다. 오가이는 생애 신변의 변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시작에 <舟>와 함께 한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舟>를 출발선상에 둔 의식은 그의 만년의 에피소드에서도 나타났다. 오가이의 장녀 마리가 결혼 후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는 남편과 함께 떠나려 했으나 그녀의 시아버지의 반대로 출발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오가이가 마리의 시아버지를 설득하여 마리는 유학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설득에 앞서 오가이는 유럽으로 가는 <舟>부터 예약하였다고 한다.³¹⁾

마리의 양행은 시가의 시아버지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오가이는 아픈 몸으로 사람을 보내어 마리의 유럽행을 실현시켰다. 최후의 수단으로 아버지는 여객선의 지인에게 사정을 밝히고 선실을 예약하고 나서 시아버지를 만나 1시간 설득했다고 한다.

31) 須田喜代次(1997)「研究回顧展望」『講座 森鷗外 鷗外の作品』第二卷, 新曜社, p.466

この茉莉の洋行は嫁ぎ先の舅の許可がなかなか得られなかったようなのだが、鷗外は弱った体で人を訪い、茉莉のヨーロッパ行きを実現させたのだった。

最後の手段で父親は郵船の知人に事を明かして船室を予約してから舅に会って1時間話をした。

인생의 전환기에서 <舟>로 시작되는 의식은 오가이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이었다. 이 같은 <舟>는 오가이 일상에서 비친 단면이라 할 수 있으며 문학작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0년간 집필에 몰두했던 관조루에서 늘 볼 수 있었던 <舟> 또한 오가이 작품과 관련이 있었다. 오가이는 관조루에서 앞바다의 <舟>를 바라보면서 유학시절 사랑했던 연인을 떠올리며 한 편의 詩를 적기도 하였다.³²⁾

아득히 먼 바다에 검은 연기를 뿜으며 달리는 증기선이 보인다. 그 기선을 바라보면서 엘리제가 내재한 심상 풍경이다. 자택의 2층을 「관조루」로 이름을 지은 것과 관련이 있는 노래다.

관조루의 <舟>는 유년시절부터 일상에 비취진 <舟>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오가이의 정서에 작용하여 문학 작품으로 나타냈다. 오가이에게 있어서 <舟>는 유년시절을 거쳐 만년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한 요소로 자연스레 작가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다. 오가이의 문학 활동이 일상 그 자체였음을 감안하면,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했던 <舟>는 오가이의 정서나 사고에 오랜 기간 의식된 요소로 그의 문학작품에서 하나의 구심점으로 구사되고 있었다.

32) 小平克(2006)『森鷗外「我百首」と「舞姫事件」』 同時代社, p.216
はるか遠くの海に黒煙を上げて走っている汽船が見える。その汽船を眺めながら、エーリゼを低んでいるという心象風景である。自邸の二階を「観潮楼」と名付けたことに関連がありそうな歌である。

제2장 「舞姫」와 <舟>

1. 들어가기

「舞姫」는 오가이의 처녀작으로 독일에 유학을 간 엘리트 청년이 서양여자 무희와의 사랑을 다룬 내용이다. 젊은 관료가 출세를 위해 사랑하는 무희를 버리는 내용적인 면과 젊은 관료를 비롯한 작중인물이 실존인물인가라는 부분에서 많은 의구심을 남겨, 독자들의 궁금증을 끊임없이 증폭시킨 작품이기도 했다.

「舞姫」의 주인공 에리스는 실존인물로서 작품에서는 독일에 남는 인물로 종결되지만 실제로는 오가이를 만나러 일본에 왔다가 간 사실이 9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밝혀졌다.¹⁾

많은 연구자가 「엘리제 내일 사건」에 대한 검토를 해왔으며, 그러는 동안에 많은 귀중한 자료가 발견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진실에 가까워지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내일한 엘리제의 인간상은 아직도 확실하지는 않다. (중략) 결정적으로 허식의 증거는 엘리제 내일 후 93년째가 되는 1981년에 발견되었다. 주간 영어신문에 게재된 1888년 당시 선객 명부에서 독일 여성의 본명이 판명되었다. 선객 명부에 있던 독일여성의 이름은 엘리제·비게르트

1) 林尚孝(2005)『仮面の人・森鷗外』 同時代社, pp.14~30

多くの研究者が「エリーゼ来日事件」について検討してきており、その間に多くの貴重な資料が発見され、一步一步真実に近づいているように見える。しかし、来日したエリーゼの人間像は今もって確定していない。(略) 決定的な虚飾の証拠は、エリーゼ来日後九三年目にあたる一九八一年になつて発見された。週刊英字新聞に掲載されていた一八八八年当時の船客名簿から、ドイツ人女性の本名が判明した。船客名簿にあったドイツ人女性の名前はエリーゼ・ヴィーガルト (Elise Wiegert) 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Elise Wiegert)인 것이 판명되었다.

이는 많은 연구자가 여전히 그녀에 대한 인물상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울러 「舞姫」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에리스가 실존 인물임이 밝혀지면서 「舞姫」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제시되었다. 실존 인물임을 은폐해 왔던 에리스의 본명과 실체가 밝혀지게 된 계기는 그녀가 타고 온 <舟>가 단서가 되었다.

「舞姫」에 나타난 <舟>는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던 엘리트 청년이 유학을 떠날 당시 기억과 유럽에서 만난 연인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배경이었다.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공간으로 조명되는 「舞姫」의 <舟>는 흔히 이동수단을 전제로 묘사되는 단순한 소재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舞姫」의 <舟>는 실제로 오가이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 탔던 증기선으로 상당한 규모의 상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²⁾, 이를 표기하는 데 있어서 ‘船’으로 하지 않고 ‘舟’로 했다.

「舞姫」와 더불어 독일 유학 3부작으로 일컬어지는 「うたかたの記」³⁾와 「文づかひ」⁴⁾에 묘사된 <舟>를 살펴보면 그 외양적인 요소에 따라 달리

2) ロバートキャンベル・戸松泉・宗像和重(1997) 「『舞姫』注釈」 『文学』季刊 第八巻・第3号, 岩波書店

エム・エム(フランス郵船のComagnie des Messageries Maritimes)の汽船は月に二回、往きと帰りの便でサイゴンに寄港するという(筆者訳)。執筆時に豊田郎が乗っていたこの船も、フランス籍の旅客船だったことが分かる。(略) 鷗外が初めてサイゴンを目にしたのは明治十七年九月、フランス郵船メンザレー号に乗り込み、豊田郎とは逆にヨーロッパへ赴く途中に寄港する時である。

엠·엠(프랑스 선박인 Comagnie des Messageries Maritimes)의 기선은 한 달에 2회 왕복으로 사이공에 기항하는(필자역). 집필할 때에 도요타로가 타고 있던 배도, 프랑스 여객선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중략) 오가이가 처음으로 사이공을 본 것은 명치 17년 9월 프랑스 선박 멘자레(Messageries)호에 탔고, 도요타로는 반대로 유럽으로 향하는 도중에 들렀을 때이다.

3) 鷗外(1890) 「うたかたの記」 『しらがみ草紙』第十一号

4) 森林太郎(1891) 「文づかい」 『新著百種』第一二号

표기했다. 「うたかたの記」에서는 큰 규모의 <舟>는 ‘船’으로 작은 규모의 <舟>는 ‘舟’와 ‘小舟’로 나타내어 그 규모에 따른 세 종류의 표기를 사용했다.⁵⁾ 그리고 「文づかひ」에서도 ‘船’과 ‘小舟’로 표기하고 있어⁶⁾ 이는 오가이가 <舟>의 규모를 의식하고 있으며 규모에 따라 표기법을 달리 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舞姫」의 <舟>는 두 작품에서 ‘船’으로 표기된 <舟>보다 규모가 훨씬 크지만 작품전반에 걸쳐 ‘舟’로 나타났다. 나아가 「うたかたの記」에는 ‘船’과 ‘舟’, ‘小舟’가 나타나 있으나 정작 작품의 전개가 이루지는 장소는 ‘船’이나 ‘小舟’가 아니라 ‘舟’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렇듯 <舟>는 단순한 장소나 배경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건이 전개되고 작중인물들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는 공간으로 이를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다. <舟>의 공간에 더욱 중점을 둔 작가의 관점은 「山椒大夫」에서도 나타나 있다. 「舞姫」 이후 25년이 지난 시기에 발표한 「山椒大夫」에 등장한 <舟>는 단순히 교통수단의 도구로 표기할 때는 ‘船’과 ‘お船’으로 나타내지만 사건이 전개되는 공간의 의미에 비중을 둔 <舟>는 일관되게 ‘舟’로 묘사하였다. 「山椒大夫」의 <舟> 또한 단순히 장소나 배경이 되는 ‘お船’나 ‘船’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사건이 전개되는 공간에 의미를 두고 있어 공간의 ‘舟’에 중점을 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오가이는 단순한 소재의 <舟>를 설정하여 단순히 배경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 그 안에 작중인물이 만들어내는 행위를 문학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舟>의 공간에 더욱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오가이 작품에서 나타낸 공간의 <舟>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아가 문학 공간으로서의 <舟>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5) 森林太郎(1971) 「うたかたの記」 『鷗外全集』 二卷, 岩波書店, p.15

6) 森林太郎(1971) 「文づかい」 『鷗外全集』 二卷, 岩波書店, pp.36~37

2. <舟>를 통한 自覺

「舞姫」의 도요타로는 본국으로 귀국하는 <舟> 안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悔恨을 담아낸다. 이는 유학 이전의 삶이 유럽의 분위기와는 다른 사실을 인식한 것과 자신이 사랑한 연인 에리스를 버리고 온 것을 의식한 것이다.⁷⁾

나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신동이라는 칭찬을 들으며 학문에 게을리 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관장은 좋은 일꾼을 얻었다고 격려하였지만, 태만하지 않고 열심히 근무할 때까지, 다만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인물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25살이 되어, 자유로운 대학의 분위기에 접하니 마음속에 무어라 할 수 없는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진정한 나는 이제야 표면으로 나타나 어제까지의 나 아닌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

엘리트를 지향하며 살아온 도요타로는 유럽의 선진문물을 체득하고서 그동안 자신의 삶은 ‘수동적이고 기계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도요타로의 삶에 대한 자각을 유학시절 비롯된 것이며 이를 <舟> 안에서 표출한다.

도요타로는 우연히 만난 무희 에리스와 연인이 되지만 그녀와의 교제가 문제시되어 관직을 박탈당하고, 결국 본국으로의 강제 귀국 조치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은 에리스와의 이별을 의미하였고 그녀에게는 직접적인 이별의 통지도 없이 떠나버린다. 에리스를 버리고 출세를 선택한 도요타로는

7) 森林太郎(1971) 「舞姫」 『鷗外全集』一卷, 岩波書店, p.428

余は父の遺言を守り、母の教に従ひ、人の神童なりなど褒めるが嬉しさに怠らず学びし時より、官長の善き働き手を得たりと褒めますが嬉しさにたゆみなく勤めし時まで、たゞ所動的、器械的の人物になりて自ら悟らざりしが、今二十五歳になりて、既に久しくこの自由なる大学の風に当りたればにや、心の中なにとなく妥かならず、奥深く潜みたりしまことの我は、やうやう表にあらはれて、きのふまでの我ならぬ我を攻むるに似たり。

자신의 행동이 매우 ‘수동적이고 기계적’이었다고 하면서 그것은 <약해진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도요타로의 결정에 대해 오기하라 요시코(荻原佳子)는 사랑하는 사람을 버릴 수 있어도 국가는 버릴 수 없는 근대 지식인의 윤리에 부응한 것이라 한다.⁸⁾

명치 일본의 정신에서는, 이국에서의 결혼이 전제로 한 연애, 관명에 대한 반항, 집안의 포기는 윤리에 반한 중죄였다. 예를 들면, 사랑한 여성을 버리기보다도, 국가나 집안을 버리는 편이, 죄가 무겁다. 메이지 일본의 정신구조에서는 개인의 정신은 말살된다. 그런 와중에서 에리스는 발광하고, 도요타로의 통한의 고통은 지속된다.

개인의 정신이 말살된 일본 明治의 정신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대의명분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도요타로는 자신의 결정이 대의명분을 위해 선택한 것이었지만, 사랑을 버리고 출세를 선택한 것을 의식하고 있어, 자신을 <약해진 마음>의 소유자라고 한다. 따라서 도요타로의 <약해진 마음>은 자신의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삶의 방식을 변명하는 형태라 할 수 있으며, <약해진 마음>을 극복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회한이었다.

고다 치나미(高田知波)는 도요타로가 베를린에서 자신의 행동이 <약해진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자각하였으나 이를 회피하고 있다가 <舟>를 타고 귀국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 <약해진 마음>이라는 표현을 고안했다고 하였다.⁹⁾

8) 荻原佳子(2002)「森鷗外『舞姫』序論」『九州女子大学紀要』第39巻第1号

明治日本の精神においては、異国での結婚を前提とした恋愛、官命への反抗、家の放棄は、倫理に反する重罪であった。たとえば、愛した女性を捨てるよりも、国家や家を捨てることのほうが、罪が深いとされる。明治日本の精神構造の中では、個人の精神は、抹殺される。そのなかで、エリスは狂い、太田豊太郎は痛恨の痛みを持続する。

9) 高田知波(2000)「バイリンガルの手記—『舞姫』論への一視点—」『駒沢国文』三七

베를린에서는 언급을 회피해 왔던 두 개의 언어 세계를 수기하는 시점에서 언급한, 도요타로가 채용한 전략의 하나는 「약해진 마음」, 「둔한 마음」의 소유주로서의 자기상을 강조한다. 이러한 언어의 강조가 자신은 아직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는 자기변명을 위한 것이라는 많은 지적이 있지만, 베를린 시절의 도요타로는 굳이 「약해진 마음」의 소유주로서의 자기像을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두 세계가 언어적으로 확실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이공항구의 배 안에서 비로소 두 개의 언어 세계를 동일 선상에 두는 언설의 구축이라는 작업을 했을 때, 도요타로는 일본어 공간에서 자신의 언동을, 에리스의 독일어 대화라는 언어활동을 통해, 새삼 그 이유를 설명할 언어가 필요하여, 거기에 발견된 것이 「약해진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변명으로 <약해진 마음>이라는 자신의 모습을 본국으로 돌아오는 <舟> 안에서 처음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약해진 마음>의 자기변명은 귀국 후 「舞姫」를 발표하기까지 현실적으로 더 힘든 상황에 대한 오가이의 변명일 것이다. 오가이가 일본으로 귀국할 당시 에리스도 함께 입국했다. 에리스는 오가이보다 8일 정도 일찍 도착한다.¹⁰⁾

卷二月号

ベルリンではコンタクトを回避し続けることのできた二つの言語世界を手記という言説の中で触れ合わせるに当たって、豊太郎が採用した戦略の第一は「弱き心」「鈍き心」の持ち主としての自己像の強調である。この言葉の強調が自分はまだ決断したわけではないという自己弁明のためのものであることについては多くの指摘があるが、ベルリン時代の豊太郎はことさら「弱き心」の持ち主として自己を規定する必要はなかったはずである。二つの世界が言語的にははっきり分離されていたからである。セイゴンの船の中で、初めて二つの言語世界を同一面上に並べる言説の構築という作業に入った時、豊太郎は日本語空間における自分の言動を、エリスのドイツ語の問いかけという厳しいヤスリにかけると言う言語活動を通じて、あらためてその理由を説明する言葉が必要になり、そこで発見されたのが「弱き心」というキーワードだっ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

10) 林尚孝(2005)『仮面の人・森鷗外—「エリ-ゼ来日」三日間の謎』 同時代社, p.56

1888년 7월 29일, 이시구로와 오가이는 마르세유에서 출발하여, 9월 8일에 요코하마항구에 도착한다. 이에 비해 에리스는 오가이 일행들이 출항 4일 전에 7월 25일에 브레멘 하노버를 출항하여 9월 12일에 요코하마항구에 도착한다. 오가이 일행들의 42일간의 여정에 비해, 에리제는 50일이 필요했던 일정의 차이는 독일의 브레멘 하노버에서 도버해협과 지브리타 해협을 지나 마르세유에 이르는 항해 거리의 차이에 의해 8일간 여유에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녀가 빨리 출항한 것이라면, 「뒤쫓아 일본으로 왔다」는 근거는 잃어버린다.

오가이가 군의 관료들과 여럿이 귀국하였기 때문에 같은 <舟>를 탈 수 없었던 에리스는 독일에서 먼저 출항했다. 자신과의 결혼을 믿고 단신으로 입국한 에리스는 오가이의 집안과 군의 관계자들에 의해 강제 출국을 강요당하는데, 오가이 또한 그들의 의견에 굴복하게 된다. 이어 가족의 권유로 애정 없는 결혼은 결국 파경에 이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오가이는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자신의 삶에서 비롯된 <약해진 마음>을 인식하고 이를 『舞姫』의 도요타로의 모습에 투영시킨 것이다. <약해진 마음>은 귀국 후 겪은 일련의 사건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언급한 것으로 유럽에서 유학하던 시절의 도요타로는 다른 모습이었다. 도요타로는 독일에 와서 처음으로 ‘자아의 자각’을 깨닫게 된다.¹¹⁾

一八八八年七月二九日、石黒と鷗外はマルセーユを發ち、九月八日に横浜港に到着している。これに対し、エリーゼは鷗外らの出港四日前の七月ニ五日にブレーメンハフエンを出港し、九月一二日に横浜港に着いている。鷗外らの四二日間の旅程に対し、エリーゼは五〇日を要している日程の違いは、ドイツのブレーメンハフエンからドーバ海峡とジブラルタル海峡を通過してマルセユにいたる航行距離の違いにより、八日間余計に要していたと考えればよい。彼女のが早く出港しているとすると、「追いかけて来日」という根拠は失われる。

11) 森林太郎(1971)「舞姫」『鷗外全集』一卷, 岩波書店, p.428

嗚呼、独逸に來し初に、自ら我本領を悟りきと思ひて、また器械的人物とはならじと誓ひし

아하, 독일에 와서 비로소 자아 본령을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기계적인 인물과 맹세하지만 이것은 발목을 묶어 풀어놓은 새를 잠시 날개를 움직여 자유를 얻었다고 자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도요타로는 독일에 와서 처음으로 ‘자아의 자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에리스와의 진정한 사랑을 의미한 것이다. 오가이와 에리스의 사랑은 「舞姫」와 같이 비극적인 결말이 아닐지도 모른다. 에리스는 <舟>로 50일 이상 걸리는 거리를 오가이 보다 8일 정도 일찍 도착하였는데, 이때 도항비용이 당시 오가이의 연간 유학지급액의 절반 이상이나 되는 금액을 지불해 가며 일본으로 입국한다.¹²⁾ 도항 비용의 일부는 오가이도 부담했을 것이다. 에리스가 먼저 도착한 정황을 보면 독일에서 한 약속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舞姫』의 결말과 같이 에리스를 정신이상자로 몰아간 비극적인 사랑은 아니었고, 에리스와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오가이는 ‘자아의 자각’이라 한 것이다. 권태민은 ‘자아의 자각’은 ‘약하고 가련한 마음’이라는 의식의 이중성을 내포한 것이라고 보았다.¹³⁾

が、こは足を縛して放たれし鳥の暫し羽を動かして自由を得たりと誇りしにはあらずや。

12) 小平克(2006)『森鷗外「我百首」と「舞姫事件」』 同時代社, p.42

その渡航費は、鷗外の年間留学支給費の半額を超える金額なので、鷗外が支払ったとは考えられない。彼女が支払ったのであれば、自ら結婚するつもりで来日したとみられるし、かなりな資産家の娘ということになる。かりに鷗外が支払ったすれば、彼のなみなみならぬ決意によるのだから、これまた彼女と結婚するつもりだつたということの裏づけになる。

도항비는 오가이 연간 유학지급비의 반액을 넘는 금액이므로, 오가이가 지불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녀가 지불한 것이라면, 스스로 결혼할 생각으로 내일했다고 볼 수 있으며, 상당한 자산가의 딸이 된다. 만일 오가이가 지불한 것이라면, 그가 대단한 결의에 의한 것이므로, 이것 또한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었는 것을 뒷받침하게 된다.

13) 권태민(1996)「森鷗外の『舞姫』考察」『日本文化学報』 p.277

오타토타로의 태도는, 자신의 의지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방치되어 있고, 사건만이 진행된다. 오타토타로의 ‘자아의 자각’은 ‘약하고 가련한 마음’이라는 작가의 설정에 의식의 이중성이라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舞姫』에 있어서, 오타토타로의 에리스에 대한 사랑은 작품의 마지막까지 적극적, 의지적으로 발전 되지 않는다.

‘자아의 자각’은 ‘약하고 가련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의식으로 인해 에리스와의 사랑이 작품의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발전되지 못한다고 한다. ‘자아의 자각’은 독일에서 깨달은 에리스와의 사랑을 의미한 것이며 ‘약하고 가련한 마음’은 일본으로 함께 입국한 그녀를 강제 출국시킨 경험 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한 행위를 「舞姫」에서는 <약해진 마음>에서 비롯된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자세였음을 인식하고 이를 <舟>를 통해 나타낸 것이다.

3. <恨>의 공간과 <舟>

<舟>는 도요타로의 자각을 표출하는 공간이고,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같은 <舟>는 유학을 마치고 모국으로 돌아오는 도요타로의 모습을 통해 더욱 절실한 공간으로 그려진다. 귀국길에 오른 도요타로는 유학을 떠날 때 모든 것에 의욕이 넘쳤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¹⁴⁾

14) 森田太郎(1971)「舞姫」『鷗外全集』一卷, 岩波書店, p.427

旅の憂さを慰めあふが航海の習ひなるに、微恙にことよせて房の裡にのみ籠りて、同行の人々にも物言ふことの少きは、人知らぬ恨に頭のみ悩ましたればなり。

여행의 우울함은 항해할수록, 가벼운 병으로 방 안에만 틀어박혀, 동행한 사람들과도 말수가 적은 것은 남들이 모르는 恨으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아버지를 일찍 여윈 도요타로는 편모슬하에서 자랐지만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아 법학부에 들어와서도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유학을 마치고 엘리트로 인정받았던 모국으로 돌아오는 그의 심정은 남이 모르는 <恨>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恨>에 대해 다니구치 이와오(谷口巖)는 도요타로의 <恨>은 배를 탄 지 열흘쯤 지났을 때 생겨나, 유럽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감정으로 더욱 깊어졌다고 한다.¹⁵⁾

「恨」에 대한 기억은, 서양에서 일본으로 귀국한 도중에, 여행의 「초기」 프렌취히까지(스위스, 이탈리아의 견학 일정을 고려하면 약 10일간)에 일찍이 생겨나, 동쪽으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중기」의 선상의 여행(지중해에서 인도양의 약 1개월간)에 이르러, 결국 되돌릴 수 없는 덧없음에 빠진다.

도요타로의 <남이 모르는 恨>은 단순히 문학적인 기교를 위해 <舟> 안에서 자각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도요타로의 남에게 드러내지 못한 <恨>은 귀국길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도요타로가 귀국한 지 2년이 지나고 집필하던 시점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동안 작가 오가이가 겪

15) 谷口巖(2003) 「『舞姫』小考—物語中の<時間>を読む—」 『岐阜女子大学紀要』第32号3月号

その「恨」の思いは、西洋から日本への帰国の途上、旅の「初め」のプリンチイイまで(スイス、イタリアの見学日程にも配慮すれば約十日間)において早くも生じ、東へ帰えることが決定的となった「中頃」の船の旅(地中海上～インド洋上の約一ヶ月間)に至るに及んで、いよいよ取り返しのつかないせつなさを深めていくのである。

었던 에리스와의 재회와 이별, 도시코와의 결혼과 이혼 등을 고려했을 때, <恨>은 귀국 후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오가이는 <舟> 안에서 홀로 남아 있는 도요타로를 통해 표출한 것이다. 즉 <舟>라는 공간은 「舞姫」의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작가의 치밀한 의도에 의해 설정된 공간이다. 이 같은 관점에 대해 고이즈미 고이치로(小泉浩一郎)는 도요타로의 남이 모르는 <恨>을 표현하기 위해 주인공을 의도적으로 ‘공허한 중등실’에 두고서, 그의 과거를 인식해가는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그것은 오가이가 이미 개인의 정신과 상황이 상응되는 공간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한 부분으로 문학적인 기교를 부린 것이라고 한다.¹⁶⁾

이하에 전개된 작품 구상의 실질은, 「남이 모르는 恨」의 해석이고 그러한 모든 중량이 미리 冒頭 부분에 설정된 점에서 『舞姫』의 구성은 지극히 건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舞姫』에서 우선 읽혀야 할 것은 작품의 모든 부분이 구축되어 드러난 오타의 심리적 밀실 공간의 견고함이지, 결코 작품 말미의 구절은 아니다. 게다가 冒頭에서 주인공의 몸을 둔 「중등실」의 공허함은, 그 공허한 밀실에 몸을 뒹뒹으로써 비로소 자기 과거의 의미를 묻는 인식의 여행으로 출발한 주인공 오타의 공백의 화표로서 주체의 방법으로 멋지게 조율시킨다는 것이다.

16) 小泉浩一郎(2004) 「『舞姫』 『うたかたの記』 『文づかい』 」 『森鷗外全集一新日本古典文学大系明治編-』 p.539.

以下に展開される作品のプロットの実質は、「人の知らぬ恨」の解析であり、その全重量が、あらかじめ冒頭部分に掛けられている点で、『舞姫』の構成は極めて建築的である、といえよう。その意味で、『舞姫』において先ず読まれるべきは、作品冒頭部分が構築して見せた太田における心理的密室空間の堅固であって、決して作品末尾の一節ではない。それにしても冒頭において主人公の身を置く「中等室」の空虚さは、その空虚な密室に身を置くことによって初めて自己の過去の意味を問う認識の旅へと出発した主人公太田の空白の画布としての主体のあり方と、何とみごとに照応していることだろう。

공허한 밀실에 도요타로를 둔 것은 그곳을 그의 과거를 인식해가는 공간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위의 ‘중등실’은 단순히 공간 자체로만 묘사되어 <舟>자체의 의미는 간과되고 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동 수단의 ‘중등실’인지는 의미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오가이는 처음부터 <舟>를 설정한 것이다. 이것은 오가이가 <舟>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내재된 것으로 본다. 오가이에게 있어서의 <舟>는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그의 자연과학자 다운 발상으로 「舞姫」의 결과를 초래한 그 출발점에 <舟>를 인식한 작가의 필연적인 관점이 있었다. 「舞姫」는 출발점인 <舟>로 돌아가 과거를 인식하고 자신의 심정을 표출하여 주제를 이끌어 내기 위한 불가피한 요소였다. 결국 오가이는 <舟>를 먼저 의식하고 이를 단순한 배경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舟> 자체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舟>의 공간인 ‘중등실’에 맞추고 있었다. <舟>의 ‘중등실’에 주인공의 심정을 표출시키면서 <舟>자체의 기능은 약화되지만 공간의 효과는 부각된다. 따라서 「舞姫」의 <舟>는 단순한 장소나 규모의 형태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등장인물이 대응하는 공간 그 자체에 더욱 비중을 실어 작품의 주제인 주인공의 <恨>을 표출시킨 것이다. 이것은 「舞姫」에 등장하는 <舟>가 巨船임에도 불구하고 ‘船’으로 표기하지 않고 ‘舟’로 일관되게 표기한 것과 명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오가이의 <舟>에 대한 관점은 「舞姫」와 같은 해에 발표한 「うたかたの記」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¹⁷⁾

17) 森林太郎(1971) 「うたかたの記」 『鷗外全集』 二卷, 岩波書店, p.15

酒もすすめぬれど、そは慣れぬものなれば、辞いなみて飲まざりき。ゼエスハウプトに船はてしとき、その人はまた小舟を借り、これに乗りて遊ばむといふ。暮れゆくそらに心細くなりしわれは、はやかへらむといへど、聴かずして漕出で、岸辺に添ひてゆくほどに、人げ遠き葦間に来きたりしが、男は舟をそこに停とめつ。

술도 권하지만 친한 사람이라면 거절하고 마시지 않는다. 제스하프에 배가 닿으면 그 사람은 다시 작은 배를 빌려 놓는다고 한다. 하늘에 해가 저물어 마음이 두려워지면, 서두르라고 하지만 듣지 않고서 노를 저어 해안가를 따라가면서 인기척이 드문 갈대 사이로 오니 남자는 배를 멈춘다.

<舟>를 탄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데, 과거에 탔던 <舟>는 ‘船’과 ‘小舟’로 나타내고 현재 타고 있는 것은 ‘舟’로 묘사했다. 「うたかたの記」에서 사건이 전개되어 작중 인물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船’이나 ‘小舟’가 아니라 ‘舟’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船’과 ‘小舟’는 단순한 배경에 불과하고 ‘舟’는 작중인물의 행위가 초점이 되는 공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오가이의 의도로 보인다. 이 같은 작가의 의도는 이후 25년이 지난 시기에 발표한 「山椒大夫」에도 나타나 있었다. 「山椒大夫」에서는 한 문장에서 ‘船’과 ‘舟’를 혼용하여 나타냈다. 얼핏 보면 오가이가 마치 아무런 의식 없이 표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작가의 의도에 의한 것이다.¹⁸⁾

자신은 서국까지 갈 수 없지만 여러 지방의 선주를 알고 있으므로, 배에 태워 서국으로 가는 배로 갈아 태울 수 있다. 내일 아침은 일찍 배를 태워 주겠다고 다유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船’과 ‘舟’는 규모나 형태에서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으며 그것은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 ‘船’은 단순한 이동수단에 불과하고 ‘舟’는 작품 속 주

18) 森林太郎(1971) 「山椒大夫」 『鷗外全集』十五卷, 岩波書店, p.660

自分は西国まで往くことは出来ぬが、諸国の船頭を知っているから、船に載せて出て、西国へ往く舟に乗り換えさせることが出来る。あすの朝は早速船に載せて出ようと、大夫は事もなげに言った。

인공이 인신매매를 당해 사건이 전개되는 곳이다. 그리고 ‘お船’의 표기 또한 주목할 만하다.¹⁹⁾

엄마는 깨달은 듯이 말했다.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넘어온 산을 더 많이 넘어 강이나 바다를 배로 종종 건너지 않고서는 안 될 것이다. 매일 힘을 내어 열심히 걷지 않고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다유에게 자신들이 타야 할 <舟>를 부탁하는 장면에서 ‘お船’으로 표현하였다. 엄마가 말하는 자신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줄 ‘お船’은 작품 속에 존재하지 않은 <舟>이다. ‘お船’은 ‘船’의 정중한 표현이나 미화의 의미가 아니라 세상 물정을 모르는 작중인물의 엄마를 빗대어 나타낸 것이다. 「山椒大夫」에 묘사된 ‘船’과 ‘舟’, ‘お船’은 <舟>의 규모나 형체에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船’과 ‘舟’, ‘お船’의 병용은 작품의冒頭에서만 나타나 있고 작중인물들이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시점부터는 ‘舟’로만 나타났다. 그것은 ‘舟’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작품을 전개하려는 오가이의 의도로 <舟>를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작중인물들의 행위나 심정을 표출하기 위한 공간적인 요소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舟>의 공간을 통해 주제를 이끌어 내고자 작가가 의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舞姫」에 나타난 <舟>는 규모나 장소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舟>의 공간을 부각시켜 주인공의 행위나 심경을 통한 주제를 도출해 내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19) 森林太郎(1971) 「山椒大夫」 『鷗外全集』十五卷, 岩波書店, p.239

母が諭すように言った。「そうですとも. 今まで越して来たような山をたくさん越して、河や海をお船でたびたび渡らなくては往かれないのだよ. 毎日精出しておとなしく歩かなくては」

4. 현실적인 공간과 <舟>

오가이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舞姫」를 집필하였다. 그동안 남에게 드러내지 못한 참담함을 토로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분신인 도요타로를 통해 표출했다. 에리스와의 이별을 자책한 오가이는 자신의 심경이 부합한 <舟> 안의 어두침침한 공간에 홀로 남은 도요타로를 설정하였다. 도요타로는 결국 그 곳을 벗어나지도 못한 채 작품은 마무리된다. 이것은 오가이가 자신의 참담함을 여전히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舞姫」를 통해 세상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이다. 오가이의 위기의식에 대한 지적으로 이타가키 고이치(板垣公一)는 오가이의 「舞姫」낭독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는 작중 모델을 특징지어 설명한다. 「舞姫」의 등장인물들은 발표 이전부터 오가이 주변의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것으로 거론되어 왔다. 그 중 오가이와 독일에서 함께 유학한 인물도 있다.²⁰⁾

「舞姫」는 발표 이전부터 이미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작중 모델이 특정되었고, 사건에 대해서도 모델이 지적되었다. 낭독회에 참석한 모리 일가의 가족과 전날 들었던 가고일행들, 출석하지 않은 시즈오·고가네이 요시키요도 그 「일부의 사람들」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아마도 작중의 도

20) 板垣公一(1997) 「『舞姫』小論—諸家作品論定説化構築—」 『名城大・人文紀要』五六卷一二月号

「舞姫」は、発表以前から既に一部の人々によって作中のモデルが特定され、事件についてもモデルがされていた。朗読会に立ち会った森家の一族や、前日に聞いていた賀古達、出席しなかった静男・小金井良精もその「その一部の人々」に入れてもよいだろう。彼らはおそらく作中の豊太郎・エリス・天方伯・相沢・豊太郎の両親・官長・讒誣した男・在独日本人留学生に対してモデルを当てはめただろうし、豊太郎の経歴の一部や「エリス事件」の一部が作中に入れ込んでいることを想定したであろう。このことは、小金井喜美子・森於兎等の手記によってほぼ見当がついている。

요타로·에리스·아마가타백작·아이자와·관장·참무했던 남자·재독일본인 유학생의 당시 모델일 것이고, 도요타로의 경력 일부와 ‘에리스 사건’의 일부가 작중에 들어간 것으로 상정했을 것이다. 이것은 고가네이 기미코·모리 오토 등의 수기를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舞姫」의 작중인물인 도요타로, 아마가타(天方)백작, 아이자와(相沢), 도요타로의 양친, 관장 등은 실존 인물인 오가이와 그의 양친, 매제인 고가네이 요시키요(小金井良精), 친구 가고(賀古)였다. 이들은 「舞姫」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거론된 인물들이고 이 중 일부는 ‘에리스 사건’에 관여했다. ‘에리스 사건’에 대해 하야시 나오타카(林尚孝)는 독일여성이 일본에 입국한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이다.²¹⁾

지금까지 「에리스 사건」의 연구든 「에리제 来日 사건」의 연구든 일본으로 입국한 독일인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춰왔었다. 이 사건은 아카마쓰 도시코와의 혼담이 관련된 문제로서 생각하지 않는 한 이해할 수 없다. 두 사건을 동시에 이끌어내기 위해 여기에 「무희사건」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유명한 오가이의 처녀작 「무희」는 에리제와 도시코를 염두에 두고 적었다고 생각되고 에리제 来日 사건과 도시코 혼담사건을 합한, 즉 에리제의 입국 일부부터 도시코와의 이혼까지 일어난 여러 사건을 하나로 모아서 「무희사건」이라 한다.

21) 林尚孝(2005)『仮面の人・森鷗外—「エリーゼ来日」三日間の謎』 同時代社, p.74
これまでの「エリス事件」研究でも、「エリーゼ来日事件」研究にしても、来日したドイツ人女性だけに焦点を当てて行われてきた。この事件は、赤松登志子との縁談と表裏の問題として考えないかぎり、理解できない。この二つの事件を同時に表現するために、ここに「舞姫事件」という新しい概念を導入することにした。有名な鷗外の処女作「舞姫」は、エリーゼと登志子を念頭に置いて書かれていると考え、エリーゼ来日事件と登志子縁談事件とを合わせて、すなわち、エリーゼ来日から登志子との離婚までに起こった種々様々な事件をひとまとめにして「舞姫事件」と名づける。

에리스의 입국과 강제 출국이라는 사건으로 유학생회에 대한 화제는 그 실체가 드러난 셈이었고 오가이로서는 최대 위기를 맞는다. 에리스의 입국은 오가이와의 약속이었다. 당시 오가이에게는 집안끼리 이미 혼담이 오가는 여성이 있었으나 이에 맞서 에리스와의 결혼을 진행한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친족들과 군에 맞서는 행위로서 軍医사직을 표하기도 했다.

하야시 나오타카(林尚孝)는 오가이가 집안과의 정면대결을 시도하였다고 한다.²²⁾

오가이는 자기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에리제에게 성의를 표하고 軍医를 사직하고 바로 결혼하려고 했다. 軍医를 사직한다는 오가이의 입장을 안, 에리제는 「오가이를 사랑해서」 귀국한다는 결심을 하고 귀국해버린다. (略) 제69수 「비겁한 남자가 되다! 술을 마시고 권총을 쏜다」에서 이미 다루었듯이 오가이는 자살까지 결심한 심경을 읊고 있다.

군에 사직의사를 밝혔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오가이는 ‘비겁한 남자가 되다! 술을 마시고 권총을 쏜다’라는 심경을 드러냈다. 이를 알아차린 오가이 가족이 에리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자 에리스는 그를 위해 바로 독일로 출국했다. 에리스의 출국 소식을 들은 오가이는 더 참담해졌다. 이 같은 비통한 현실은 자신의 비겁함으로 야기된 결과로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恨>이 되었을 것이다. 집안 간 혼담이 오갔던 여성 도시코와 결혼했지만 얼마 후 이혼으로 불거지면서 오가이는 현실적 위기에 봉착

22) 위의 책, pp.149~156.

鷗外は自分自身の行為を恥じ、エリーゼに誠意を示し、軍医を辞職して直ちに結婚しようと考えた。軍医の辞職という捨て身の鷗外の行動を知り、エリーゼは「鷗外を愛するゆえに」帰国の決断をして、帰国してしまう。(略) 第六九首「怯れたる男子なりけりみ! Absintheしたたか飲みて拳銃を取る」もすでに取りあげたが、鷗外が思い詰めて自殺まで考えた心境を詠んでいる。

했다. 이에 오가이는 자신의 심경을 표출할 만한 공간이 절실했고, 이를 「舞姫」의 도요타로에 투영하여 <舟>안의 공허한 공간에서 토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舟>의 공간에 대해 가네코 사치요(金子幸代)는 도요타로가 머물고 있는 사이공항구는 동서양 어느 쪽도 속하지 않은 장소로 도요타로의 소외된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²³⁾

유럽의 끝인 브린디시 항구의 출항이 도요타로에게 서양과의 결별을 의식시켰다고 생각된다면, 지리적으로도 서양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하는 사이공항구에서 이러한 회상이 점철된 것은 「서양적 가치관」과 「일본적 가치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혹은 어느 쪽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도요타로의 입장이 의식된 장소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이 없는 선실의 공간은 귀속된 곳이 아닌 그의 의식의 공허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 공허함의 근원에는 현재의 상황이 자기에 의해 결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가이는 소외된 입장을 반영하듯 선실에 혼자 남아 의식한 공허함은 현재 자신에 의해 결단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도요타로가 의식한 <舟>의 공허함은 오가이의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된 것이고 그 같은 좌절을 토로할 공간이 절실했기 때문에 오가이는 「舞姫」를 집필한 것이다. 시게마쓰 야스오(重松泰雄)는 오가이가 자신의 패배와 좌절의 통한을 토로하기 위해 「舞姫」를 집필했다고 한다.²⁴⁾

23) 金子幸代(1992) 『鷗外と <女性>』 大東出版社, p.32

ヨーロッパの端であるブリンディシ港出航が、豊太郎に西洋との訣別を意識させたと考えられるならば、地理的にも西洋と日本の中間に位置するセイゴンでこの回想が綴られたのは、「西洋的価値観」と「日本的価値観」のどちらにも属さない、あるいはどちらからも疎外されている豊太郎の立場を意識させる場所だったからと考えられる。人のいなくなった船室の空間は、帰属するところのない彼の意識の空虚さを暗示している。その空虚さの根源には現在の状況が自己によって決断された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がある。

24) 重松泰雄(1982) 「『舞姫』諸説集成」 『国文学』 7月号第27巻10号

「舞姫」는 「작가 오가이의 청춘의 회한을 오타 도요타로에게 위탁」한 작품으로 「유학시절의 행운이 결정적으로 끝난 『자유와 미』가 『내심』밖에 되지 못했을 때, 『舞姫』를 집필했다。」고 한다. (중략) 「舞姫」는 그러한 상황에서 「방황하는 심정을 중화시키고 패배와 좌절의 통한을 처리하기 위해 썼다」고 설명한다.

오가이는 방황하는 심정을 중화하고 패배와 좌절의 통한을 처리하기 위해 「舞姫」를 집필한 것이라고 창작 의도를 밝혔다. 그러나 오가이의 통한은 결코 중화되지 못하는 것임이 작품의 결말 부분에 드러난다.²⁵⁾

나는 그 등불의 바다를 건너와, 이 좁고 어두침침한 거리로 들어가, 누상의 나무난간에 말리는 천, 속옷 등을 아직 건지 않은 집, 턱수염이 긴 유대인 할아버지가 문 앞에 서성대는 술집.

이는 남에게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恨>을 안고 살아가는 오가이의 심정에 대한 설명으로 ‘등불의 바다’를 건너와 좁고 ‘어두침침한 거리’로 들어간다고 묘사한다. 그것은 ‘등불의 바다’는 에리스와 사랑을 의미하고 ‘어두침침한 거리’로 들어가 도달한 곳이 ‘술집’이므로 그녀와의 이별로 인한 방황하는 심정은 이어지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 ‘등불의 바다’에 대한 설명으로 무나가타 와슈(宗像和種)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²⁶⁾

「舞姫」は「作家鷗外の青春の悔恨を大田豊太郎に仮託」した作品であり、「留学時代の幸運が決定的に終り、『自由と美』が『心内』のものでしかあり得なくなったとき、『舞姫』が書かれた」とする。(略) 「舞姫」はそのような状況の中で、「ざわめく心情を中和し、敗北と挫折の痛恨を処理するために書かれた」と説く。

25) 森林太郎(1971) 「舞姫」 『鷗外全集』 一卷, 岩波書店, p.429

余は彼の灯火の海を渡り来て、この狭く薄暗き巷に入り、楼上の木欄に干したる敷布、襦袢などまだ取入れぬ人家、頬髭長き猶太教徒の翁が戸前に佇ずみたる居酒屋。

「舞姫」의 언어를 빌리자면, 정말로 「등불의 바다」안을 헤엄치고 있는 것은 도요타로이고, 오가이 자신이기도 하다.

‘등불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사람은 도요타로이며 곧 오가이 자신이라고 한다. ‘등불의 바다’는 과거의 사랑이고, 현재 오가이의 모습은 ‘어두침침한 거리’로 들어가 ‘술집’ 앞에 서성이는 모습일 것이다. 이는 에리스와 이별한 오가이가 자신이 겪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히라오카 도시오(平岡敏夫)는 「舞姫」의 구조가 유학시절의 과거를 ‘主’로 보고, 일본으로 돌아온 현재를 ‘從’으로 본다.²⁷⁾

종래의 (1)의 「현재」가 그 정도로 등한시 내지는 무시되어 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나의 관심은, (2) 「과거」가 종(從)이고, (1) 「현재」가 주(主)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2)가 역시 主(주)이고, (1)은 (2)를 강조하는 구조이다.

이 같은 구조에서 현재는 과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오가이의 비극은 좁고 ‘어두침침한 거리’로 들어가 ‘술집’ 앞에 서성이고 있어 이는 에리스와의 이별이 현재의 암울함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나타낸

26) 宗像和種(1998) 「鷗外とドイツ (比較文學・文化の視点にも及ぶ)」 『國文學』 1月号第43卷1号

「舞姫」の言葉を借りれば、まさにその「灯火の海」のなかをただ泳いでいたのが太田豊太郎であり、鷗外自信でもあった。

27) 平岡敏夫(1997) 「『舞姫』『雁』『高瀬舟』—<夕暮れ>を視点として」 『講座 森鷗外 鷗外の作品』第二卷, 新曜社, p.4

従来この(1)「現在」がそれほど閑却ないし無視されてきたとも思えないが、ここでの私の関心は、(2)「過去」が從で、(1)「現在」が主であるというより、むしろ逆に傲がやはり主で、(1)は(2)を強める枠と見るところにある。

것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오가이의 불안감은 상당한 기간에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舞姫」 이후 10년이 지나 발표한 「普請中」에서도 ‘등불의 바다(灯火の海)’가 나타나 있다.

「普請中」은 주인공 와타나베(渡辺)가 이전에 알던 독일 여자가수를 만나는 내용이다. 독일 여자가수를 만나고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보고 ‘등불의 바다와 같은 긴자(金座)거리를 지나’로 나타냈다. 오가이는 작중 독일 여인을 통해 에리스를 떠올려 이와 같이 묘사한 것으로 생각한다.²⁸⁾

등불의 바다와 같은 긴자거리를 가로질러, 천에 깊게 얼굴을 감싼 여인을
태운, 한 대의 쓸쓸한 자동차가 잔디 쪽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떠나가는 마지막 모습이 쓸쓸한 자취로 묘사되어 미래에 대한 어둠이 깔려 있다. 그것은 그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암울한 오가이 자신의 미래를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야시 나오타카(林尚孝)는 「舞姫」 집필 당시의 <恨>은 오가이가 49살에 이르기까지 「扣鈕」과 「我百首」의 시에도 나타냈으며 신변소설 「雁」에도 제삼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형태로 묘사되었다는 것이다.²⁹⁾

28) 森林太郎(1971) 「普請中」 『鷗外全集』 七卷, 岩波書店, p.11

灯火の海のような銀座通りを横切って、ウェエルに深く面を包んだ女をのせた、一輛の寂しい車が芝の方へ駆けて行った。

29) 林尚孝(2005) 『仮面の人・森鷗外』 同時代社, p.179

「舞姫事件」を通して、鷗外は生涯にわたり、エリーゼのことを忘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事実が明かにされた。日露戦争に従軍中の鷗外は、四二歳で「扣鈕」を詠んでいる。四六歳でエリーゼとの思い出を「我百首」の中に、第三者には理解できない形で詠み込んでいる。小説「雁」は四九歳の作品である。その思い出が焼き付けられたのは、「舞姫」執筆前後二六歳のころであり、この作品の中に、当時の鷗外の「恨」が書き込まれていても不思議ではない。

「무회사건」을 통해, 오가이는 생애 동안 에리스를 잊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러일 전쟁의 종군 중에 오가이는, 42살에 「扣鈕」를 지었다. 46살의 에리스와의 추억을 작품 「我百首」 안에, 제삼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 소설 「雁」은 49살 때의 작품이다. 그러한 추억이 가슴에 새겨진 것은 「舞姫」 집필전후인 26살 경이고 이 작품 안에, 당시 오가이의 「恨」을 적었다 해도 불가사의한 것은 아니다.

「扣鈕」과 「我百首」의 詩와 「雁」은 에리스와의 만남이 20여년이 지난 시점에 집필한 작품으로, 「舞姫」에 나타낸 <恨>은 오랜 기간 오가이에게 상처로 남아 문학작품으로도 드리냈던 것이다. 따라서 「舞姫」의 ‘등불의 바다’를 지나 ‘좁고 어두침침한 거리로 들어가’로 표현한 것은 그녀와의 이별로 그 <恨>은 비극적인 현실뿐만 아니라 암울한 미래로 이어질 것임을 나타냈다. 「舞姫」의 <恨>은 오가이 생애에 오랫동안 잊지 못할 상처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 나가기

1890년에 발표한 「舞姫」는 발표 당시 화제가 되었던 것은 출세를 위해 연인을 버린 비정한 엘리트 관료의 사랑 이야기와 작중인물이 실존인물일 것이라는 의문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급기야 오가이는 「舞姫」가 발표된 지 8년 만에 사실이 아닌 허구라고 밝히는 에피소드가 벌어졌다.³⁰⁾

30) 小平克(2006)『森鷗外「我百首」と「舞姫事件」』 同時代社, p.24
作品が発表されて八年も経った明治三〇(一八九七)年に、鷗外は『舞姫』はフィク

작품이 발표된 지 8년이나 지난 명치 30년(1896)에 오가이는 『舞姫』는 픽션이라고 밝힌다. 이쯤 되자 사실관계에 관련 없이, 오가이의 독일에서의 체험이 묘사된 것으로 알아차린 독자도 나왔을 것이다.

「舞姫」가 발표되기 이전부터 논쟁이 되었던 부분으로 오가이로서는 상당한 곤경을 겪어왔음을 짐작할 수 있는 반면에 「舞姫」에 묘사된 <약해진 마음>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오가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자각을 <舟>를 통해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남에게 드러내지 못한 <恨>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舞姫」의 <舟>는 그 공간 안에서 작중인물의 행위가 문학의 형태로 창출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장소의 의미보다는 공간을 부각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舟>는 「うたかたの記」와 「山椒大夫」에서도 작품이 전개되며 작중인물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나타나 있었다. 「うたかたの記」에 나타난 <舟>의 유형을 보면 ‘船’과 ‘小舟’는 단순한 배경에 불과했고 ‘舟’는 작중인물의 행위가 초점이 되는 공간으로 부각시켰다. 그리고 「山椒大夫」에 묘사된 <舟>는 ‘船’과 ‘舟’, ‘お船’으로 작품의冒頭에서만 나타나 있고 사건이 전개되는 시점부터는 ‘舟’로만 나타냈다. 그것은 ‘舟’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작품을 전개하려는 오가이의 의도가 투영된 것이고, 이는 「舞姫」의 <舟>가 巨船임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舟>로 표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었다. 「舞姫」에서 작품의 주제, 즉 남에게 드러내지 못한 <恨>을 <舟>라는 공간에 맞춘 것은 오가이의 자연과학자 다운 발상이라고 볼 수 있었다. 「舞姫」의 주제가 주인공의 남모

ションであると明言している。このころになると事実関係がわからなくなり、鷗外のドイツでの体験が描かれたものと思い込む読者も出てきたのであろう。

르는 <恨>이라는 관점에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출발점이 <舟>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오가이는 작품의 주제를 <舟>를 통해 표출한 것은 그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이 <舟>에서 시작된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오가이가 선택한 <舟>는 단순히 장소의 <舟>가 아닌 작품의 주제를 도출해내는 효율적인 공간이었다.



제3장 「鷗外漁史とは誰ぞ」와 <舟>

1. 들어가기

오가이는 육군 군의학교 교감과 육군대학교 교관을 겸임하면서 교양으로서의 그의 학문 또한 인정받아 동경미술대학교과 게이오주쿠(慶応塾)대학에서 미술사와 심미학을 강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던 오가이가 상부의 명령으로 규슈 고쿠라의 제12사단 군의부장으로 부임하였다. 고쿠라 부임은 동경에서도 육군 군의 동기생 중에 가장 앞서 출세가두를 달리던 오가이에게 뜻밖의 人事였다. 고바야시 야스시(小林安司)는 고쿠라 부임은 ‘좌천’이라 할 수 있으며 오가이 자신도 ‘좌천’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¹⁾

오가이는 고쿠라 부임 후 9일째 되는 날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여기에서도 소생이 고쿠라에 온 것은 좌천이라고 군의 동료들이 말하고 있어서 결코 잘 지내는 처지는 아닙니다。」라며 불만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앞서 기술한 문언에 따라 통설 「좌천」이 유포된 것이다.

오가이는 고쿠라에 도착하자마자 모친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신이 고쿠라

1) 小林安司(1993)『森鷗外と北九州』北九州森鷗外記念会, pp.78~79

鷗外は小倉着任後、九日めに出した母宛書簡の中で、「当地にても小生の小倉に來りしは左遷なりとは軍医一同に申し居り決して得意の境界に之無く候」と忿懣は容易にはさめなかった。

에 온 것은 ‘좌천’이라 했다. 그것은 독일유학시절부터 비롯된 상부와의 불편한 관계가 군 내부 人事에 반영되어 고쿠라 ‘좌천’이 단행된 것이고 그러한 인간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라고 한다.²⁾ 오가이의 고쿠라 부임시절은 ‘좌천’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피해의식이 있었고 엘리트 군의 관료로서의 첫 좌절을 겪던 시기였다. 더구나 이 무렵 오가이는 뜻밖의 비보를 듣는데 그것은 첫 번째 부인 도시코의 부고 소식이었다. 도시코는 오가이와 1년 남짓 결혼생활을 하면서 장남 오토(於菟)를 낳고 이혼했다. 이혼 후 도시코는 재혼을 하였고 오가이는 10년 넘게 독신으로 지냈다. 당시 재혼을 하지 않았던 오가이로서는 그녀의 사망소식에 무엇보다도 상심이 컸던 것은 생모를 잃은 오토때문이었다.³⁾ 이러한 정황으로 고쿠라에 부임했을 즈음 오가이는 개인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관료의 입장과 문학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지에 대한 위기를 의식했다. 이러한 입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오가이는 수필 「鷗外漁史とは誰ぞ」를 통해 비로소 입장을 밝히는

2) 田中美代子(2006) 「独逸日記 小倉日記」 『森鷗外全集13』 ちくま文庫, p.409

この時「ある勢力ある一群と余との間」に芽生えた「面白からぬ関係」は、当然帰国後もそっくりそのまま陸軍内部の人事に持ち越され、生涯くすぶり続ける永い確執となったとも考えられるのである。とすれば小倉左遷も、当然その線上につながる処遇だったのであろう。だが、小倉への転勤が左遷であったか否かは、これまで幾たびとなく論じられてきたことである。日本の閉鎖社会特有の人間関係の暗部で、内情はうかがい知れぬものがあるが、問題は何より、鷗外自身が、強烈な被害者意識を持っていたことである。

당시, 「어떤 위력 있는 한 무리와 나 사이」에 썩튼 「흥미롭지 못한 관계」는 당연히, 귀국 후에도 완전히 그대로인 육군내부의 인사가 반영된 것으로 오가이의 생애 동안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확고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고쿠라 좌천도 당연히 그 선상에서 이어지는 처우였을 것이다. 하지만 고쿠라 근무가 좌천이나 아니냐는 것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논의되어 왔던 것이다. 일본의 폐쇄사회 특유의 인간관계에서 속사정을 들여다 볼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무엇보다 오가이 자신이 강렬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3) 森林太郎(1975) 「小倉日記」 『鷗外全集』 三十五卷, 岩波書店, p.283

嗚呼是れ我が旧妻なり。於菟の母なり。赤松登志子は、眉目妍好ならずと雖、色白く丈高き女子なりき。

아하 나의 옛 아내. 오토의 생모. 아카마쓰 도시코는 비록 미인은 아니지만, 피부가 하얗고 고귀한 여자였다.

데 ‘장자의 빈 <舟>’를 인용했다⁴⁾. 본디 ‘장자의 빈 <舟>’는 장자의 詩에서 인용한 글귀로 지나가는 <舟>가 와서 부딪히더라도 <舟>안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면, 즉 빈 <舟>라면 화내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은 군 내부에서든 문단에서든 자신이 처한 위기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문단의 지위에 개의치 않고 문학 집필에만 몰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었다. 오가이가 군의 관료로서 생애 첫 좌절로 겪던 고쿠라 ‘좌천’과 빈 <舟>에 비유한 의지는 위기의식 속에서도 새로운 목표를 지향하는 인식이 표면화된 도식으로 보인다. 그것은 고쿠라에서 임기를 마치고 동경으로 돌아온 오가이가 그의 문학사에서 ‘풍숙의 시대(豊熟の時代)’⁵⁾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는 고쿠라 부임시절 그가 빈 <舟>와 같은 의지로 문학 집필에 몰두한 결과였다. 오가이의 문학사에 영향이 미친 빈 <舟>의 인용은 「鷗外漁史とは誰ぞ」를 비롯해 「灰燼」⁶⁾, 「伊沢蘭軒」에서도 묘사하였기에 각 작품의 의미를 비교 검토하여 그 연관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4) 森林太郎(1974)「鷗外漁史とは誰ぞ」『鷗外全集』二十五卷, 岩波書店, p.127

莊子に虚舟の譬がある。今の予は何を言っても、文壇の地位を争うものでないから、誰も怒るものは無い。彼虚舟と同じである。

장자의 빈 배에 대한 비유가 있다. 지금의 나는 뭐라 해도 문단의 지위를 다투는 것은 아니므로 누구라도 화내는 자는 없다. 그것은 빈 배와도 같다.

5) 松本清張(1997)『両像・森鷗外』新井信, p.113

鷗外が第一師団軍医部長から軍医総監・医務局長に累進してゆく過程に伴う第二転機、著作活動方面の「再活躍時代」または「豊熟の時代」は、諸家により多く語られているので、ここでは長くなるから省略する。

오가이가 제1사단 군의부장에서 군의 총감·의무국장으로 승진해 가는 과정에 따른 제2의 전환기로, 저작활동방면의 「재 활약시대」 또는 「풍숙의 시대」는 여러 작가에 의해 많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길어지므로 생략한다.

6) 森鷗外(1911)「灰燼」『三田文学』第二卷第一〇号

2. <舟>의 역설적 표현

「鷗外漁史とは誰ぞ」는 약 3년간 고쿠라에 부임했던 시기에 집필한 수필이다. 고쿠라에 부임한 직후 지역신문의 투고를 의뢰받은 오가이는 ‘오가이 교시(鷗外漁史)’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오가이 교시(鷗外漁史)’라는 새로운 필명을 사용한 것은 관료로서 문학 활동을 하는 자신에 대한 문단의 평가를 의식한 것이다.⁷⁾

그 시도로 제국대학의 초기 몇 십 권을 비롯해 동시에 나온 박물관의 태양 이하 여러 잡지, 동경의 여러 신문을 보면서 오가이라는 이름에 몇 개의 화살이 꽂혀 있는지 알려질 것이다. (중략) 적들이 오가이라는 이름을 표적으로 하여 화살을 쏘는 바람에 나는 오가이라는 이름으로 서명하는 것을 그만뒀다. (중략) 나는 메사마시소(문예잡지)를 통해 변함없이 대중에 대해 말하고 있다. 때로는 이름을 적지 않고 혹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름을 적어 신문에 게재한 적도 있다.

오가이는 고쿠라 이전에도 문예잡지에 투고한 적이 있는데, 게재 이후 문단의 표적이 되어 자신의 이름에 여러 개의 화살이 꽂혀 ‘오가이’라는 이름을 피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쿠라에 와서도 변함없는 문예활동을 하던 오가이는 필명을 적지 않거나 때로는 남들이 모르는 필명을 사용한 적이 있

7) 森林太郎(1971) 「鷗外漁史とは誰ぞ」 『鷗外全集』二十五卷, 岩波書店, pp.127~128

試みに帝大文学の初の数十冊を始として、同時に出た博文館の太陽以下の諸雑誌、東京の諸新聞を見たならば、鷗外と云う名に幾条の箭が中っているかが知れるだろう。(略) 敵が鷗外と云う名を標的にして矢を放つ最中に、予は鷗外という名を署する事を廃めた。(略) 予はめさまし草を以て、相更らず公衆に対しても語って居る。折々はまた名を署せずに、もしくは人の知らぬ名を署して新聞紙を借ることもある。

었다. 이 또한 문단에서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의식한 것으로 모리 마유미(森まゆみ)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⁸⁾

이 무렵 「鷗外漁史とは誰ぞ」를 적어 문단에서 자신을 말살시키려는 데이의 제기를 했다.

오가이는 문단에서 자신을 말살시키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鷗外漁史とは誰ぞ」를 집필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고쿠라 ‘좌천’으로 자신을 내몰았던 군 내부의 人事에 대해서도 입장표명을 한 것이다. 오가이는 문학 활동을 하고 있던 자신에게 군의관으로서의 업무능력을 문제 삼는 군 내부에 대한 관점 또한 드러낸다.⁹⁾

이와 같은 일면에는 당시 이른바 문단이 나에게 실로 과분한 명성을 부여하고, 생각지도 못한 행복을 강요한 동시에 나를 의사로서 상대하는 사람은 ‘그는 소설가이므로 함께 의학을 논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고 나를 관직자로서 상대하는 사람은 ‘그는 소설가이므로 중대 업무를 맡기기엔 부족하다’고 하며 암암리에 나의 행보를 방해하고 나의 성공을 좌절시키는 경우가 몇 번인지 모르겠다.

오가이가 문학자로서 명성이 알려지자 군의 관계자는 소설가인 오가이는

8) 森まゆみ(1997)「団子坂の鷗外一私注・鷗外日記」『講座 森鷗外 鷗外の人と周辺』第一巻, 新曜社, p.239

このころ「鷗外漁史とは誰ぞ」を書き、自分の文壇からの抹殺に異議を申し立てた。

9) 森林太郎(1971)「鷗外漁史とは誰ぞ」『鷗外全集』二十五巻, 岩波書店, p.127

かように一面には当時の所謂文壇が、予に実に副わざる名声を与えて、見当違の幸福を強いたと同時に、一面には予が医学を以て相交わる人は、他は小説家だから与に医学を談ずるには足らないと云い、予が官職を以て相對する人は、他は小説家だから重事を托するには足らないと云って、暗々裡に我進歩を碍さまたげ、我成功を挫いたことは幾何いくばくということを知らない。

의학을 논하기 부족하고 관직에 있어서는 중대 업무를 맡기기엔 부족하며 자신의 행보를 방해해, 몇 번이나 좌절을 겪었음을 밝혔다. 군 내부에서의 불편한 입지에 몰려있던 오가이가 문학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문단의 반응을 오타니 고이치(大谷晃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⁰⁾

재빠르게 매일신문이 오가이를 비판했다. ‘그는 소심한 남자니까 세상과는 약간의 틈이나 차이가 없는 듯이 생각하려고 하지만 아침저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 그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공격이라도 받으면 적극적으로 변명한다’고 비판했다. — 이것은 그 당시 오가이가 소설가이기 때문에 육군에서의 승진에 밀렸다고 여기저기에 게재하자, 전면적으로 박문관(출판사)등에 저항한 것이다. 오가이는 육군을 퇴직하고 관립의 문과대학 교수를 지원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사립인 게이오주쿠대학에 초빙되었지만 거절했다고 『医海新聞』에 게재되었다. 문과대학은 동경대학 문학부이다.

「鷗外漁史とは誰ぞ」가 『福岡日日』신문 신년호에 게재되자 이를 읽은 문단의 비평가들은 각 신문에 오가이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문단에서의 비난과 고쿠라 ‘좌천’이라는 최대의 위기를 겪던 오가이는 자신에 대해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 한다.¹¹⁾

10) 大谷晃一(1983) 『鷗外、屈辱に死す』 人文書院, p.72

さっそく、毎日新聞が鷗外を批判した。小胆な男だから世間からは一分の隙や間違いのないように思われよう思われようと朝夕に心がけているらしい。だから世間から攻撃でもうけると真っ赤になって弁解する、と。——これは、当たっている。鷗外が小説家であるために陸軍での栄進を妨げられたとあちこちに書かれ、向きになって博文館などに抗議した。鷗外は陸軍をやめて、官立の文科大学の教授を望んだが実現せず、一方では私立の慶応大学から招かれたが謝絶した、と『医海時報』に書かれた。文科大学は東大文学部のこと。

11) 森林太郎(1971) 「鷗外漁史とは誰ぞ」 『鷗外全集』二十五卷, 岩波書店, pp.125~128

鷗外漁史はここに死んだ。(중략) 鷗外は殺されて도、予は決して死んでは居ない。

오가이 교시는 여기서 죽었다. 오가이는 죽더라도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문단의 표적이 되어 몇 개의 화살을 맞은 자신을 가리켜 ‘오가이는 죽었다’고 한다. 이어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여 오가이는 자신의 위기의식에 대한 강한 반박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처럼 오가이는 군 내부와 문단에서 자신의 입지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음을 밝히고서 이러한 역경에 대처할 자세를 보인다. 이를테면 문단의 평가에 개의치 않고 더욱 문학 활동에 전념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는데 이것이 빈 <舟>의 의미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빈 <舟>의 의지는 오가이가 위기상황의 역경을 극복하려는 대처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위기에 대한 반발의식 또한 드러낸 것이다. 오타니 고이치(大谷晃一)는 ‘오가이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관료사회를 의식하여 문학을 삼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오가이가 관료사회를 의식하여 문학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¹²⁾

오가이 교시는 여기서 죽었다고 『鷗外漁史とは誰ぞ』에서 선언했다. 문학 활동을 삼간다는 것이다. 본 업무를 소홀하게 하지 않겠다는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동경의 인간이 이것을 읽고, 오가이는 틀림없이 원망했을지도 모르지만, 자신은 아프지 않다고 쓴다.

관료사회를 의식한 오가이는 오히려 문학 집필에 몰두하면서 관료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자신이 처한 난처한 상황을 극복해 간 것으로 생각한다. 오

12) 大谷晃一(1983) 『鷗外、屈辱に死す』 人文書院, p.89

鷗外漁史はここに死んだ、と『鷗外漁史とは誰ぞ』の中で宣言した。文学活動を控えるというのである。本務をおろそかにしていない証明のために。東京の人間がこれを読んで、鷗外はさぞ恨めしいだろうと言うかもしれないが、自分は痛いとも思わない、と書く。

가이는 관료로서의 제약을 문학자로서 작품에 증진하며 관료사회의 문제에 대처한 것이다. 어쩌면 오가이는 이 같은 결과를 예상하고 자신은 빈 <舟> 처럼 주변에서 뭐라 해도 개의치 않고 지속적인 문학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고쿠라 시절에 비롯된 빈 <舟>에 비유한 오가이의 의지는 그의 문학 업적에 여실히 드러난다. 동경으로 복귀한 오가이는 고쿠라에서 집필한 「独身」, 「鶏」, 「二人の友」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창작소설뿐만 아니라 번역 작품도 수 편 발표하였다.¹³⁾

그 해, 창작과 번역 작품 수 편을 거의 매월 발표했다. 「半日」(3월 「昂」). 「仮面」(4월 「昂」). 「追儼」(5월 「東亜之光」). 「懇親会」(5월 「美術之日本」). 「魔睡」(6월 「昂」). 「大発見」(6월 「心の花」). 「キタ・セクスアリ」(7월 「昂」). 「鶏」(8월 「昂」). 「金貨」(9월 「昂」). 「金毘羅」(9월 「昂」).

고쿠라 부임을 마친 오가이는 「舞姫」 이후 20여 년의 공백을 깨고 문학 작품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매월 한편이나 두 편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후기 문학의 전성기를 맞는다. 이것은 고쿠라 시절 집필에 증진한 결과로 번역소설의 대작으로 불리는 『即興詩人』의 마무리와 오가이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미학 연구 「審美学新説」 또한 당시의 문예 업적이었다.¹⁴⁾ 따라서

13) 松本清張(1997) 『兩像・森鷗外』 新井信, p.146

この年、創作、翻譯數篇をほとんど毎月発表した。「半日」(三月「昂」)。「仮面」(四月「昂」)。「追儼」(五月「東亜之光」)。「懇親会」(五月「美術之日本」)。「魔睡」(六月「昂」)。「大発見」(六月「心の花」)。「キタ・セクスアリ」(七月「昂」)。「鶏」(八月「昂」)。「金貨」(九月「昂」)。「金毘羅」(九月「昂」)。

14) 池内健次(2001) 『森 鷗外と近代日本』 ミネルヴァ書房, pp.67~68

翻譯小説「即興詩人」はながく続いて小倉時代末に完結した。
文芸面でもっとも重要なのは美学(審美学) 研究であろう。「月草叙」では哲学的な學問として鷗外が美学の研究の深化を目指していることが暗示されたが、九二年(明治二

고쿠라 부임 시절은 오가이 문학 활동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스노부 요시하루(末延芳晴)는 엘리트의 길을 순조롭게 달려왔던 오가이가 동경 이외에는 자신이 살아갈 장소는 없다는 것이다.¹⁵⁾

덧붙여 쓰와노藩의 가메이 집안의 의료를 맡은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5살에 논어를 6살에 맹자를 배우고 8살에 네덜란드어를 배우기 시작하여……라고 신동이란 칭찬이 자자했고 11살에 동경의학교 예과입학, 이후에도 주지한 바와 같이 엘리트의 길을 순조롭게 달려왔음을 볼 때, 오가이의 중앙지향과 동경지향은 상당히 강한 것임이 틀림없다. 동경 이외에 자신이 살아갈 장소는 없다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다.

五) 十月より『柵草紙』にのせた「審美論」、九六年四月『めさし草』の「印度審美説」、九八年二月より『めさし草』連載の「審美新説」、九九年五月『審美綱領』など、一連の美学書学編述は小倉以前の中心的分業である。そして小倉時代にも、一九〇一年(明治三四)二月より『めさし草』連載の「審美植致論」が続くが、一九〇一年十二月より『めさし草』のせた「審美仮象諸」は一九〇二年六月で未完のまま中絶し、東京帰任とともに十年間続いた美学関係の文業は終わることになった。

번역소설 「即興詩人」은 오랫동안 계속하여 고쿠라 시절에 완결했다.

문예면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미학(심미학)연구일 것이다. 「月草叙」에서는 오가이가 철학적인 학문으로서 미학연구의 심화를 지향하는 것을 암시하였지만 92년(明治25) 10월부터 『柵草紙』에 실린 「審美論」 96년 4월 『めさし草』의 「印度審美説」 98년 2월부터 『めさし草』에 연재된 「審美新説」 99년 5월 『審美綱領』 등 일련의 미학서학편서는 고쿠라 이전의 중심적인 분업이다. 그리고 고쿠라 시절에도 1909년(明治34) 11월부터 『めさし草』에 연재된 「審美植致論」로 이어지지만 1901년 12월부터 『めさし草』에 실린 「審美仮象諸」는 1902년 6월에 미완인 채로 중단되었고 동경복귀와 함께 10년간 이어온 미학 관련 분업은 마치게 되었다.

15) 末延芳晴(2008) 『鷗外と日清・日露戦争』 平凡社, p.111

加えて、津和野藩亀井家の御典医の家に長男として生まれ、五歳にして論語を、六歳にして孟子を学び、八歳でオランダ語の手ほどきを受け……と神童の誉れ高く、十歳で上京、十一歳で東京医学校予科入学、以後も周知のようにエリート街道を順調に走り通してきただけに、鷗外の中央志向、東京志向は相当強かったに違いない。東京以外に自分が生きるべき場はないとまで思い極めていても不思議ではない。

いずれにしても、ある種の排除の力学が自らに及びつつあることを自覚しつつあった鷗外にとって、小倉への転勤命令は、左遷以外の何ものをも意味していなかった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だろう。

어쨌든 어떤 종류의 배제 역학이 자신에게 미치는 것을 자각한 오가이로서는, 고쿠라의 전근명령은 좌천 이외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동경지향과 중앙지향이 강한 오가이가 규슈의 고쿠라에 부임했던 시절은 ‘좌천’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 3년간의 고쿠라 부임 임기를 마치고 동경으로 돌아온 오가이는 창작소설이나 번역소설, 미학연구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에 고쿠라 시절은 오가이의 문학에서 간과할 수 없는 시기로 본다는 것이다. 오가이는 고쿠라 부임을 ‘좌천’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문예활동을 하고자하는 강한 의지는 결코 배제할 수 없어 빈 <舟>에 비유하며 자신의 열정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 오가이가 수필에서 ‘문단의 지위를 다투지 않으니까’라는 의미는 동경에서 출세가두를 달리던 자신이 ‘좌천’에 임하는 자세였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지위를 다투며 살아온 자신에 대해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빈 <舟>의 의미는 군 내부에서의 직위뿐만 아니라 문단에서의 지위에 욕심을 비우고 문학 집필에 집중하고자 했던 문학자로서의 자세였다. 따라서 빈 <舟>의 지로 문학 활동에 전념한 오가이는 상당한 업적을 남긴 결과를 감안하면 빈 <舟>의 의미는 오히려 역설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3. 「灰燼」과 「伊沢蘭軒」의 <舟>

오가이는 고쿠라 ‘좌천’을 겪던 시절에 문단이나 군의 부조리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던 자세로 ‘장자의 빈 <舟>’처럼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이것은 고쿠라 시절에 국한하지 않고 오가이의 문학작품에서도 의식적

으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鷗外漁史とは誰ぞ」 이후 10년 지나 발표한 「灰燼」과 만년에 집필한 「伊沢蘭軒」에도 ‘장자의 빈 <舟>’는 나타나 있다. 각각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灰燼」은 오가이가 중편이나 장편을 시도한 교양소설로서, 앞서 발표한 「キタ・セクスアリス」, 「青年」, 「雁」의 집필을 통해 오가이의 작품 중 완성도가 가장 높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¹⁶⁾

교양소설이나 성장소설은 대개 중편이나 장편의 시도이다. 이것은 「キタ・セクスアリス」이 최초로 시도한 작품이라 할 수 있지만, 시도 작품으로서 성공한 대표작은 「青年」이다. 「雁」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시도하였고, 소설로서의 완성도는 높다고 하는데 오가이 문학으로서 시험작품임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집대성한 교양소설 작품으로 지향한 것으로 추측되는 작품이 「灰燼」이다.

오가이는 일련의 교양소설을 집대성하여 완성한 「灰燼」을 집필하면서 본격적으로 중편이나 장편소설을 시도한다. 「灰燼」은 근대청년 야마구치 후시구라(山口節蔵)의 이야기로 서른 살의 후시구라가 오래전에 신세를 진 은인 다니타(谷田)의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지난날 다니타 딸과의 아련한 추억과 당시 기억을 떠올리는 내용이다. 주인공 후시구라가 주변의 인물들과의 갈등에 겪으면서 이를 대처하는 모습에 그는 ‘장자의 빈 <舟>’라는 의미를 떠올린다. 후시구라는 주변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빈 <舟>와 같이

16) 池内健次(2001) 『森 鷗外と近代日本』 ミネルヴァ書房, p.137

教養小説ないし成長小説は概して中篇であり長篇への試みである。これは「キタ・セクスアリス」が最初の試作と言えようが、試作品として成功した代表作は「青年」である。

「雁」は女性を主人公にした試みであろうが、小説としての完成度は高いといわれるものの、鷗外文学にとって試作であることにはかわりがない。そして本格的に集大成的な教養小説作品を目ざしたと推測されるのが「灰燼」である。

대처한다면 주변의 그 누구도 화를 내는 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¹⁷⁾

장자의 빈 배라는 비유가 있다. 배가 와서 부딪히더라도 배 안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화내지 않는다. 그것은 유도자의 태도인데 후시구라의 태도에는 거의 그것과 닮은 데가 있다.

후시구라가 빈 <舟>에 비유한 태도는 오가이 자신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빈 <舟>처럼 대처하고자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것이 유도자의 길이라 한 것은 빈 <舟>의 의미를 상기하며 지속해서 변함없는 신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다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하기와라 다카오(萩原孝雄)는 오가이가 ‘장자의 빈 <舟>’에 비유한 것은 도가적인 허무라기보다는 아주 깊숙이 침체된 ‘공허한 허무주의’를 의미한다고 했다.¹⁸⁾

오가이의 허무주의(nihilism)으로 말하자면 본고 주석(2)에서 다룬 바와

17) 森林太郎(1971)「灰燼」『鷗外全集』九卷, 岩波書店, p.201

莊子に虚舟の譬と云ふことがある。舟が来て打つ附かつても、中に人が乗つてさへみなければ、誰も怒らない。それは有道者の態度であろうが、節藏の態度には殆んどそれに似た所があるのである。

18) 萩原孝雄(1997)「森鷗外における西洋と日本—子宮の感性をめぐる—」『鷗外と知的空間』第三卷, 新曜社, p.418

鷗外のニヒリズムと言え、本稿注(2)でふれたように清水孝純は、『灰燼』の節藏はドストエフスキ의 『惡靈』의 스태vroーギンのような近代的虚無主義者であり、節藏を主人公とする『灰燼』の近代虚無主義の破壊的テーマをもてあました鷗外は『空車』を書いてそのテーマを止揚しようとしたという意味のことを言っている。清水は、『空車』の空虚と『灰燼』で節藏の虚無的態度が譬えられる『莊子』の虚舟との類似を指摘しながらも、「その〈空虚〉は道家的虚無というよりは、遙かに深く不気味な『灰燼』の世界の虚無を背後に沈ませている。その深淵の認識の上に立てられた〈空虚〉なのだ。この恐るべき自由の行使は、一方に、その毒々しい破壊作用を抑制する錘がなくては叶うまい。伝統的なものは、いはばその錘である。しかしその伝統的なものは、新しい光によって甦ったものとして、旧とは異なるものであろう」(清水前掲、三二三頁)と言っている。

같이 기요미즈(清水孝純)는, 『灰燼』의 허무주의는 도스토옙스키의 『惡靈』의 스타브로진과 같은 근대적 허무주의자이고, 후시구라를 주인공으로 하는 『灰燼』으로 근대허무주의의 파괴적인 테마를 다룬 오가이는 『空車』를 통해 그 테마를 지양하려 했다고 한다. 기요미즈는 『空車』의 공허와 『灰燼』에서 후시구라의 허무적 태도가, 『莊子』의 빈 배의 비유와 유사함을 지적하면서도 「그런 <공허>는 도가적 허무라기보다는 아주 깊이 기분 나쁜 灰燼의 세계의 허무를 배후에 깔고 있다. 그러한 심연의 인식에서의 <공허>인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해야 할 자유의 행사는 한편으로 그 지독한 파괴 작용을 억제하는 추가 없어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전통적인 것은 이른바 그러한 추이다. 그러나 그러한 전통적인 것은 새로운 빛에 의해 되살아난 것으로, 옛 것과 다른 것이다.」라고 한다.

「灰燼」은 근대의 허무주의를 다룬 작품으로 「空車」의 허무주의보다 파괴적인 테마를 다룬다. 「空車」보다 더 허무한 공허감이 「灰燼」의 주인공 후시구라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한 후시구라의 허무적인 태도를 ‘장자의 빈 <舟>’의 의미라고 한다. 「灰燼」에서 빈 <舟>는 후시구라가 주변 인물과의 갈등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유도자의 길이라고 했으며, 이것은 갈등을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시한 것이다. 즉 세상을 살아가는데 빈 <舟>와 같이 지나간다면 화를 내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대처 방법을 가리킨다. 다케모리 텐유(竹盛天雄)는 「灰燼」에 묘사된 ‘장자의 빈 <舟>’의 의미는 주인공 후시구라의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감을 인식하고 이를 언어로 설정한 것이라고 한다.¹⁹⁾

19) 竹盛天雄(1984) 「『灰燼』の再考」 『その紋様』 小沢書店, p.657

いわばここに引いた一節は、表現者としての作者の鷗外のもどかしい気持の滴りのごときものであろう。ここでも彼はまず節蔵という存在のわかりにくさを、現象として相手側の認識や理解をとおして捕捉しようと試みる。しかしことばの隙間に彼はたえられない。ズレを埋めようとして手持ちの概念的なことばを持ち出し、外側から説明してみせる。『莊子』の「虚舟の譬」

이른바 여기에 인용한 1절은 표현자로서의 작가 오가이의 초조한 마음과
같을 것이다. 여기에서도 그는 우선 후시구라라는 존재의 이해하기 어려움
을 현상으로서 상대측의 인식과 이해를 통해 포착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언어의 틈을 그는 건디지 못한다. 그 차이를 매우려고 주체자의 개념적 단
어를 이끌어 내어 외부에서 설명해 보인다. 『장자』의 「빈 배의 비유」를
인용한 부연이 그것이다.

후시구라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나 태도를 언어로 표현하면서 언어의
틈을 건디지 못한 오가이는 초조한 마음에 그 차이를 채우려고 ‘장자의 빈
<舟>’의 비유를 인용한 것이다. 오가이는 주변의 난해한 상황에 대한 후시
구라의 태도를 인식했을 때, 작가 자신을 발견하고 빈 <舟>와 같은 대처
방법을 떠올린 것으로 보인다. 후시구라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고 그가 취
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장자의 빈 <舟>’를 인용한 것이다. 「灰燼」은
『三田文学』에 연재하면서 본격적인 장편소설로 시도하지만 11회로 중단
된 미완성 작품이다. 「灰燼」은 장편소설로 시도된 작품이지만 결국 실패
한 것에 대해 이케우치 겐지(池内健次)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²⁰⁾

「灰燼」의 좌절은 요컨대 오가이에게는 구상력이 부족한 것, 오히려 결
여된 것을 그 자신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21세기적 교양소설의 도스토옙스

를引いての敷衍がそれである。

20) 池内健次(2001) 『森 鷗外と近代日本』 ミネルヴァ書房, p.132

「灰燼」の挫折は、要するに鷗外には構想力が不足していること、むしろ欠如していること
を、彼自身に思わせただろう。二十世紀的教養小説のドストエフスキー的な形が鷗外の胸
のうちにあったとしても、それを文章表現のなかにおいて構想し造形する力は、鷗外には決定
的に欠けていた。(略) 鷗外の構想力は、現実の社会や政治や学芸文化の問題に深入り
するにつれて、その貧弱さを露呈したのである。「灰燼」が新聞国のく다りで中絶したのは
偶然ではない。

키적인 유형이 오가이의 가슴 속에 있었어도 그것을 문장표현으로 구상해 조형하는 힘은 오가이에게는 결정적으로 부족했다. (중략) 오가이의 구상력은 현실 사회와 정치 학예문화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그 같은 빈약함을 드러낸다. 「灰燼」이 신문의 구절로 중단된 것은 우연은 아니다.

「灰燼」의 좌절은 작가로서의 구상력 부족과 문장력이 부족한 오가이의 좌절이었던 것이다. 아직은 장편소설을 집필하기엔 역부족이어서 단편을 벗어나지 못한 문학 작가로서의 과제를 떠안은 셈이었다. 구상력 부족으로 「灰燼」이 미완성 작품으로 끝나버리자 오가이는 작가로서의 치명적인 비난을 받았다. 이 같은 오가이의 입장은 「灰燼」의 후시구라가 주변과의 갈등에서 빈 <舟>에 비유하며 대처하는 모습과 흡사하다. 후시구라는 주변과의 곤란한 처지를 인식하고 빈 <舟>에 비유한 유도자의 태도를 취하며 대처해 간다. 이 같은 설정은 오가이가 후시구라의 자세를 빌려 자신 또한 작가로서 부족했지만 장편소설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요컨대 「灰燼」의 빈 <舟>은 오가이가 장편소설 집필에 있어서 좌절을 겪던 시점에 새롭게 시도하려는 의지로 이는 고쿠라 '좌전'시절에 상당한 업적을 남겼던 빈 <舟>의 역설적인 의미와 유사하다. 그리고 『大阪毎日新聞』에 2개월간 연재하여 장편의 역사소설 「伊沢蘭軒」을 완성한다. 「伊沢蘭軒」은 의학자이며 추사이(抽斎)의 스승이었던 란켄(蘭軒)의 생애를 다룬 작품이다. 여기에도 오가이의 빈 <舟>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²¹⁾

이상의 추궁은 거의 반대자의 심리상태를 완전히 드러낸 것으로 생각한

21) 森林太郎(1971) 「伊沢蘭軒」 『鷗外全集』 十七卷, 岩波書店, p.787

以上の推窮は略反対者の心理状態を悉したものであらうとおもふ。わたくしは猶進んで反対者が蘭軒伝を読まぬ人で無くて、これを読む人であつたことを推する。読まぬものは怒る筈がない。怒は彼虚舟にも比すべき空白の能く激し成す所ではないからである。

다. 나는 여전히 반대자가 ‘란켄전(蘭軒伝)’을 읽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읽었던 사람이라는 추측한다. 읽지 않은 자는 화를 낼 리가 없다. 화는 빈 배에 비유해야 할 공백이 없기 때문이다.

‘란켄전(蘭軒伝)’을 읽지 않은 자는 화를 낼 리가 없다고 한다. 이를 빈 <舟>에 비유자면 아예 읽지 않았더라면 화를 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오가이에게 화를 내는 자는 자신이 집필한 ‘란켄전’을 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란켄전’에 대해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²²⁾

맛도 재미도 없는 고문서와 같은 기행문이 신문에 매일 나오는 것은, 독자도 그 어려운 한자의 구조를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벌써 질릴 것이다.

《나는 여전히 반대자가 란켄전(蘭軒伝)을 읽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읽었던 사람이라는 추측한다. 읽지 않은 자는 화를 낼 리가 없다. 화는 빈 배에 비유해야 할 공백이 없기 때문이다.》 읽지 않은 자라도 화를 낸다. 신문의 소설란의 활자를 언뜻 보는 것만으로도, ‘아직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읽고 있나 어서 치워버려’ 라고.

독자들은 재미도 없는 고문서와 같은 기행문이 매일 신문에 실려 독자는 보는 것만으로도 질려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신문의 소설란의 활자를 읽지 않은 독자라 할지라도 언뜻 보는 것만으로도 화를 낸다는 것이다. 독자가

22) 松本清張(1997) 『両像・森鷗外』 新井信, p.146

味も素気もない古文書のような紀行文が新聞に毎日々々出たのでは、読者もあのむつかしい漢字の組みに眼をやっただけでもうんざりするだろう。

《わたくしは猶進んで反対者が蘭軒伝を読まぬ人でなくて、これを読む人であつたことを推する。読まぬものは怒る害がない。怒は彼虚舟にも比すべき空白の能く激し成す所ではないからである》読まぬ者でも怒る。新聞の小説欄の活字を一瞥しただけで、まだこんなものをえんえんと載せているのか、早くやめてしまえ、と。

신문의 활자를 언뜻 보고 화를 내는 것은 내용을 확실하게 읽지 못했더라도 필자를 알았기 때문에 야기된 결과로 여겨진다. 어려운 한자로 된 기행문을 보고 화를 내지 않던 독자가 소설란은 언뜻 본 것만으로 화를 낸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며, 이미 내용이나 필자를 파악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오가이가 빈 <舟>에 비유한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면 화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은 만년의 작품에서 더욱 확고해졌음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灰燼」을 집필하면서 주변의 비난에 개의치 않고 문학으로 증진한 유도자의 표식으로 작용한 빈 <舟>의 의지는 「伊沢蘭軒」에서 확고한 신념으로 비춰진다. 결과적으로 「伊沢蘭軒」의 집필에 성공한 오가이는 같은 해 장편역사소설인 「洪江抽斎」를 연재하기 시작하고 이듬해 「北条霞亭」을 발표했다. 빈 <舟>의 의지는 오가이 만년의 작품에까지 반영되어 오가이의 정신적인 바탕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4. 나가기

고쿠라 부임을 ‘좌천’으로 받아들인 오가이는 「鷗外漁史とは誰ぞ」를 통해 자신에 대해 뭐라 해도 빈 <舟>와 같은 자세로 지위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고자 한 의지를 나타냈다. 빈 <舟>에 비유한 오가이의 의지는 문학 활동에 있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그것은 동경으로 복귀한 오가이가 신변소설 「半日」²³⁾를 기점으로 사상소설·교양소설·역사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발표한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鷗外漁史とは誰ぞ」를 집필한 10년이 지나 발표된 「灰燼」에서

23) 森林太郎(1909) 「半日」 『スバル』 第三号

도 빈 <舟>에 비유한 의지를 찾아볼 수 있었다. 「灰燼」은 사상소설과 신변소설을 재구성하여 장편소설을 시도한 야심작이긴 하지만 작가의 창의력 결여와 구상력부족으로 미완성의 좌절을 겪는 작품이었다. 작가로서 치명적인 좌절을 겪던 오가이는 「灰燼」을 1년 정도 연재하면서 빈 <舟>의 의지를 새삼 드러내어 작가로서 나아갈 자세를 취하였다. 「灰燼」으로 시도한 장편소설을 단념하지 않고 작품에서 의도한 철학적인 인물상을 구축해내기 위해 역사 사료에 의거하면서 자연스럽게 역사소설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였다. 즉 史伝소설이라는 장르는 오가이만의 독보적인 분야라 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작이 「渋江抽斎」이었다. 「渋江抽斎」는 오가이의 역작으로 불리는데 이는 「灰燼」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미완성작 「灰燼」으로 좌절을 겪었던 오가이로서는 史伝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완성하였다는 것은 상당한 쾌거를 이룬 셈이었다. 오가이가 작가로서의 수치를 겪으면서도 결코 단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강한 의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집념은 오가이 만년의 작품 「伊沢蘭軒」에서도 빈 <舟>에 비유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면서 문학자로서의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장편문학을 시도하면서 창작성과 구조성의 검증에 시달렸던 오가이가 「灰燼」과 「伊沢蘭軒」에 빈 <舟>의 비유를 인용한 것은 작가로서 자신의 의지를 환기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오가이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을 때 빈 <舟>에 비유하며 역경을 극복하려 했던 의지는 그의 문학적인 기량에 바탕이 되었다.

제4장 「うた日記」와 <舟>

1. 들어가기

오가이는 평생 의학을 연구하면서 군의 관료를 지향하며 살아왔음에도 군의 ‘모리 린타로’보다 문학자 ‘모리 오가이’라는 이름이 더 알려졌다. 오가이는 군의로서도 많은 업적을 남겨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차츰 문학자로서 두각을 드러내자 결국 군 내부에서 제약이 따랐다.¹⁾ 군인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제약은 관료생활에 있어서 오가이의 실상일 것이다. 오가이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방편으로 군인이 아닌 문학자의 길을 걸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군인으로서 피할 수 없었던 청일전쟁·러일전쟁전쟁에 참전했을 때 문학자로서의 두각을 드러냈다. 오가이는 참전 당시 군의 요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전쟁을 겪은 문학자로서 유일한 존재였다고 한다.²⁾ 따라서 그의 참전기록은 동시대

1) 末延芳晴(2008)『森鷗外と日清・日露戦争』 平凡社, p.109

鷗外の小倉転勤については、陸軍軍医部内で、軍医としての鷗外の有能ぶりに上司や同僚から嫉視を受けたからだとか、文学者森鷗外の活躍が目立ちすぎたため、陸軍上層部からいらまれた結果だとか、いや左遷ではなかったなど、諸説に分かれているが、重要なことは彼自身がこのことを左遷と受け止めていたことであろう。

오가이의 고쿠라 전근에 대해서는 육군 군의부내에서 군의로서 오가이의 유능한 모습에 상사와 동료에게 질시를 받았든가, 문학자 모리 오가이의 활약이 너무 두드러져 육군상층부에서 백안시한 결과라든가, 아니면 좌천되지는 안 았을 거든가 등 여러 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이것을 좌천으로 받아 들였다는 것이다.

2) 末延芳晴(2008)『森鷗外と日清・日露戦争』 平凡社, p.19

森鷗外(本名.林太郎、文久二十～大正十一年、一八六二～一九二二)は、日清戦争

문학자들과는 다른 관점을 파악할 수 있어 연구의 의의는 크다고 본다. 오가이는 참전 당시 사적인 기록 「うた日記」와 「徂征日記」 등을 비롯해 공적인 기록 「自清役自紀」³⁾ 등 여러 편 남겼다. 작가의식이나 견해는 사적인 기록에 두드러졌을 것으로 「うた日記」와 「徂征日記」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うた日記」에 친구에게 보낸 한편의 詩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⁴⁾

생면의 사람도 친해지는 봄날이여 / 노을에 흔들리는 푸른 버드나무 가지
/ 나비날개를 떠밀 정도의 바람도 없다 / 탈취선이 즐비한 앞 바다 / 기미
가요의 장단은 달빛처럼 올라 퍼진다.

봄날 해질녘의 버드나무가지, 나비, 달빛, 즐비한 여러 척의 <舟>는 봄날의 정취를 더해 준다. 계절의 운치를 놓치지 않았던 오가이의 감상은 전쟁터에서의 초조함을 떨치기 위한 군인의 모습이 아닌 문학자 오가이로서의 발상이었다. 詩에 나타난 <舟>는 자연경관의 하나로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탈취선’으로 전쟁터임을 암시하고 있다. 오가이가 봄날의 정취와 대비되는 군함을 나타낸 것은 전쟁의 무색함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으로 여기에 문학자로서의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うた日記」의 詩에 함축적으로 묘사된 <舟>는 전쟁의

(明治二十七~二十八年、一八九四~九五)、日露戦争(明治三十七~三十八年、一九〇四~〇五年)という近代日本が戦った二つの戦争に帝国陸軍軍医として従軍、戦争の「内側」からかかわったほとんどただひとりの文学者であった。

모리 오가이(본명 모리 린타로, 문구20~대정21년, 1862~1922)는 청일전쟁(명치27~28년, 1894~1895), 러일전쟁(명치37~38년, 1904~05년)이라는 근대일본이 참전한 두 전쟁에 제국육군군의로써 종군, 전쟁의 ‘내측’에 관련된 단 한 사람의 문학자였다.

3) 森林太郎(1894) 「日清役自紀」 『中路兵站軍医別報第一』

4) 森林太郎(1973) 「うた日記」 『鷗外全集』 十九卷, 岩波書店, p.109

生面の人も親しき春日哉 / 霞にゆらく青柳の糸 / 蝶の羽を支ふる程風もなし / 分捕船の並ふ沖合 / 君が代のしらべは月と澄みわたり

무색함뿐만 아니라 전쟁터임을 암시하고 있어, 그 밖의 詩·단가·하이쿠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군함에 빗대어 나타낸 오가이의 비관의식은 「徂征日記」에서 군함에 대한 표기를 의식적으로 구별하여 나타낸다.⁵⁾

19일. 밤새 배는 북쪽을 향했다. (중략) 평양에서 돌아온 야마다 대위가 그곳의 전황을 상세히 얘기하던 저녁 무렵 적함 한 척이 대만 가까운 곳에서 전소된 것을 들었다.

적진을 향해가던 오가이는 자신이 타고 있던 <舟>를 ‘舟’로, 적군의 <舟>를 ‘艦’으로 표기한다. ‘舟’와 ‘艦’은 모두 군함을 의미하므로 일괄적으로 군함이라고 적으면 되지만 오가이는 적군과 아군을 의식하고서 표기로 보인다. 두 번의 전쟁에 참전했던 오가이는 그 참상을 지적하려 했고 전쟁과 직접적인 ‘艦’에 비관의식이 투영된 것이다. 전쟁에 참전한 오가이는 참담한 현실을 견뎌내는 방법으로 문학을 선택하였고 문학자로서 관료의식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舟’와 ‘艦’의 혼용은 「徂征日記」뿐만 아니라 「うた日記」, 「堺事件」, 「伊沢蘭軒」에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표기에 대한 각각의 의미 분석이 필요하다. 이 같은 <舟>의 양상을 중심으로 오가이가 문학에 입문하기 전에 기록한 「独逸日記」를 비롯한 그의 신변소설 「妄想」, 「青年」, 「百物語」 등에 나타난 <舟>의 유형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짚어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오가이가 살아왔던 근대를 바라보던 관점과 어떻게 접목되어 묘사되는지 주목해야 한다.

5) 森林太郎(1972) 「徂征日記」 『鷗外全集』三十五卷, 岩波書店, pp.237~239
十九日。夜来舟北を指す。(略) 二十九日。山田大尉平壤より帰る詳に戦況を談ず
夕に敵艦一隻大聯湾に近き処にて自焚せしを聞く。

2. 관료의식과 <舟>

오가이는 대학졸업과 동시에 동경육군병원 군의부에 들어가 임무를 맡기 시작하면서 퇴직하기까지 35년간 근무하였다. 퇴직 이후에도 궁내성의 관료로 지내면서 생을 마감한 것을 고려하면 그의 관료생활은 실생활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히라오카 도시오(平岡敏夫)는 오가이에게 있어서 관료생활의 문제는 실생활의 문제라는 것이다.⁶⁾

관료라는 실생활에 있어서의 굴욕·고통·후회를, 문학을 통해서 복수해 온 오가이가 최후에 드러낸 것이 유언장이지만 전쟁 중에 쓴 문장에서는 관료성의 지적, 비판과는 반대로 관료에 대한 최후의 복수라는 면이 강조되고 있다.

오가이는 관료로서 겪던 굴욕과 후회, 고통의 생활에 대하여 문학으로서 복수한 것이며 이는 작가가 전쟁 중에 쓴 관료성의 지적과 비판과는 다른 면이라고 한다. 오가이가 관료로서의 좌절을 문학을 통해 복수로 양극화시켰다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문학을 통해 관료성의 문제를 지적, 비판하면서 자신의 실생활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지는 오가이가 군인으로서 피할 수 없었던 청일전쟁·러일전쟁에 참전했을 때 두각을 드러낸다. 전쟁터에서의 참담함과 긴장감을 군인이 아닌 문학자로서 견디려 한 오가이는 그러한 의지를 「うた日記」에 나타낸 것이다.

「うた日記」는 오가이가 러일전쟁 중군 당시 詩·단가·하이쿠 등을 기록

6) 平岡敏夫(1968)「鷗外における官僚の問題」『森鷗外必携』学灯社, p.43

官僚という実生活における屈辱・苦痛・後悔を文学をとおして復讐して来た鷗外の、最後にあらわしたものが遺言状ということになるのだが、戦争中に書かれたこの文章では、最後ににおける官僚性の摘発批判とは逆に、官僚的なものへの復讐という面が強調されている。

한 詩歌집이다. 주로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보내는 내용으로 그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청춘시절의 회상 그리고 전쟁의 상황 등을 기록했다. 「うた日記」에 실린 詩 「老船長」, 「でつくのひる」, 「浪の音」, 「扣鈕」 등과 단가, 그리고 하이쿠의 묘사는 전쟁터에서 느낀 자신의 감정을, 군인이 아닌 문학자 오가이로서의 인상이 강하게 드러나 있었다. 「老船長」은 오가이가 독일유학 이후 늙어버린 자신을 <舟>에서 나이가 든 선장의 모습으로 표현한다.⁷⁾

배에서 늙은 선장은 / 원래 영국에서 태어나 / 고향을 꿈꾸는 사람

<舟>안에서의 자신을 인식한 오가이가 지나온 세월에 대해 추억하며 이를 문학적으로 나타냈다. 「でつくのひる」은 비 갠 청명한 날씨에 한가롭게 떠 있는 <舟>의 광경이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통해 작가는 마음의 평온함을 찾은 듯하다.⁸⁾

하늘은 개여 / 거울과 같고 / 한가로운 배는

먼 바다의 <舟>가 한가롭게 떠 있는 광경을 본 오가이는 전쟁터에서의 긴장감을 잊은 것 같다. 또한 「秋」에 비가 갠 청명한 가을날 어촌마을의 버드나무를 묘사한 아름다운 자연을 읊고 있어 전쟁터의 긴장감을 찾아보기 어렵다.⁹⁾

7) 森林太郎(1973) 「うた日記」 『鷗外全集』十九卷, 岩波書店, p.116
舟に老いたる 船長は / もと英国の うまれにて / ねるそん夢見る 人なりき

8) 森林太郎(1973) 「うた日記」 『鷗外全集』十九卷, 岩波書店, p.113
そら晴れて / 鏡のごとき / ゆたかな舟は

9) 森林太郎(1973) 「うた日記」 『鷗外全集』十九卷, 岩波書店, p.112
思ひ出づれば / 袖に払ひし / 舟はつころ / 漁村の柳

생각이 나면 / 소매를 나부끼고 / 배가 출발할 때 / 어촌의 버드나무

「うた日記」에 나타난 <舟>는 서경적인 묘사로 서정적인 운치를 극대화한 오가이의 감상을 나타냈다. <舟>는 詩句에 직접 묘사하여 작가의 심경을 담아낼 뿐만 아니라 詩句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詩想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浪の音」은 아내 시게(志げ)에 대한 그리움을 읊은 詩이다.¹⁰⁾

떠나 와보니 당신이 생각나 한밤중의 외침으로 한숨짓지만

오가이는 시게와 재혼하여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다. 그러나 시게와는 부부금실이 각별하지 않았던 오가이는 자신의 신변을 다룬 「半日」와 「魔睡」¹¹⁾등에 시게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있다. 그렇기에 「浪の音」에서 그녀를 향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표현은 찾아보기 힘든 대목이라 할 수 있다. 「浪の音」를 집필 배경으로 스에노부 요시하라(末延芳晴)는 「老船長」, 「馬賊」와 같이 <舟> 안으로 본다.¹²⁾

우지나항을 출발하여 염대오까지 배에서 보낸 17일 동안에 오가이는 「老船長」, 「浪の音」, 「馬賊」의 장시 세 편과 단가와 하이쿠 몇 수를 짓는다.

10) 森林太郎(1973) 「うた日記」 『鷗外全集』十九卷, 岩波書店, p.113

おとづれたえて 君をおもひて 夜半のあはれを いふ声きけど

11) 森林太郎(1909) 「魔睡」 『スバル』第六号

12) 末延芳晴(2008) 『森鷗外と日清・日露戦争』 平凡社, p.183

宇品出港から塩大澳での上陸まで、船のうえで過ごした十七日間で、鷗外は、「老船長」「浪の音」「馬賊」という長詩三首と、短歌と俳句をいくつか詠んでいる。

「浪の音」은 오가이가 우지나(宇品)항을 떠나 염대오(塩大澳)로 향하던 17일간 이동하던 <舟>안에서 적은 詩라고 한다. 「浪の音」에서 <舟>는 詩에 직접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詩想을 떠올리는 매개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扣鈕」은 독일에서의 연인 에리스가 건네준 단추를 잃어버려 아쉬움을 적은 詩이다.¹³⁾

남산에서의 전투하는 날에 소매의 금색 단추 그 단추가 아깝다

남산에서의 전투에 참전한 오가이는 그곳에서 에리스에게 받은 단추를 잃어버린다. 남산에서 염대오로 향하던 <舟>안에서 단추를 잃어버린 것을 인식한 오가이는 그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扣鈕」을 창작하였다. 이에 「扣鈕」 또한 「浪の音」과 마찬가지로 <舟> 안에서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浪の音」과 「扣鈕」에서 <舟>는 詩句에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舟>안에서 적었던 것을 감안하면, <舟>는 詩想을 떠올리게 한 매개로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うた日記」에는 詩뿐만 아니라 서정적인 운치가 짙은 단가와 하이쿠가 여러 편 실려 있었다. 단가에 봄 바다와 <舟>가 한 눈에 들어오는 광경처럼 묘사되어 있다.¹⁴⁾

봄 바다와 / 장난감과 같은 / 먼 배
우리 배의 / 야하타는 좋은 이름 / 외국의 / 오래되고 경외로운 /
야하타는 좋은 이름

13) 森林太郎(1973) 「うた日記」 『鷗外全集』 十九卷, 岩波書店, p.138

南山の たたかいの日に 袖口の ごがねのぼたん その扣鈕惜し

14) 森林太郎(1973) 「うた日記」 『鷗外全集』 十九卷, 岩波書店, p.118

春の海や / おもちゃのような / 遠き舟

わが舟の / 八幡はよき名 / 外国の むかしおそれし / やはたはよき名

‘야하타’를 타고 출전하는 오가이는 무장의 의연함을 詩로 나타냈다. ‘야하타’는 오가이 자신이 탄 <舟>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참전하는 기개를 스스로에게 불어넣는 표현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明治 37년 4월 22일에 기록한 것으로 화창한 봄날 하이쿠에 <舟>가 준비해 있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¹⁵⁾

화창한 날에 / 앞의 배 또한 / 뒤의 배

오가이가 타고 있던 <舟>를 중심으로 앞뒤에 있는 <舟>가 있는 것은 전투태세를 갖춘 군함을 묘사한 것이다. 다음 날 23일의 하이쿠에는 여러 척의 <舟>가 하나둘 안개에 가려지는 장면을 묘사한다.¹⁶⁾

친구의 배 / 하나둘 안개에 / 안개에 뒤덮이네

화창한 날씨에 대조되는 안개, 그리고 안개에 뒤덮이는 <舟>의 묘사는 전쟁터의 전운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오가이의 불안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아름다운 경치와 대비되는 전쟁의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한 것은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식과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전쟁에 대한 비판의식은 「うた日記」의 일면이랄 수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의식에 대해 스에노부 요시하루(末延芳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⁷⁾

15) 森林太郎(1973) 「うた日記」 『鷗外全集』 十九卷, 岩波書店, p.114

うららかや / 前の舟また / あとの舟

16) 森林太郎(1973) 「うた日記」 『鷗外全集』 十九卷, 岩波書店, p.114

友舟の / 一つかすみ二つ / かすみけり

17) 末延芳晴(2008) 『森鷗外と日清・日露戦争』 平凡社, p.261

鷗外は、日本軍兵士が高い軍紀を有しながら、戦場における異常心理の働きや戦いに

오가이는 일본 군인이 높은 군기를 들고, 전장에서 이상심리의 작용과 전쟁에 승리하여 자만과 고양감, 혹은 해방감으로 인해 자제심을 잃고, 패전국민, 또는 현지인(특히 여성)에게 「패덕오행」을 범하는 것을 우려했다. 오가이로서, 독일병사가 범한 「패덕오행」은, 일본군인도 범할지도 모르는 「敗徳汚行」이었다.

「うた日記」에서 오가이는 일본군대나 군인이 피지배국의 국민에게 범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구조적인 악덕행위, 이를 두고 ‘敗徳汚行’이라 하였다. 그것은 독일 군인들이 저지른 행위에 비유하면서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전쟁터에서 일본군인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목격한 오가이는 문학자로서 일본군대나 군인 그리고 전쟁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うた日記」에서 <舟>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うた日記」에서 군함에 대한 묘사는 ‘舟’와 ‘艦’으로 의식적으로 구별하여 표기하였다.¹⁸⁾

바다 위에 저 멀리 / 몇 척의 / 군함 / 폐쇄선 / 갈매기 날다

오가이는 군함을 묘사할 때 의도적으로 ‘軍의 배(舟)’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적었다. ‘軍의 배(舟)’라면 군함을 의미하므로, 군함으로 적으면 쉽게 의미전달이 될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듯하다. 즉 군함(軍艦)의 ‘艦’을

勝利したことによる驕りや高揚感、あるいは解放感から自制心を失い、敗戦国人、あるいは現地の人間(特に女性)に対して「敗徳汚行」を犯してしまうことを危惧していた。鷗外にとって、ドイツ兵士の犯した「敗徳汚行」は、日本軍兵士も犯すかもしれない「敗徳汚行」であった。

18) 森林太郎(1972) 「うた日記」 『鷗外全集』十九卷, 岩波書店, p.223

海の上に底ふかく / かずいくつ / 軍(いくさ)ぶね / 閉鎖船 鷗とぶ

기피하는 것이다. 이것은 「老船長」을 비롯한 「でつくのひる」, 「浪の音」, 「扣鈕」 등에 감상을 표현한 <舟>는 ‘舟’로 나타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탄 <舟>를 ‘艦’으로 표기했을 경우는 단순히 <舟>를 의미하는 ‘후네(舟)’를 의도적으로 기재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⁹⁾

육지 심양 / 바다에 군함 모두 / 승리를 맞는다 / 잊고서 오늘을 /
이제야 맞이한다

‘舟’와 ‘艦’의 표기는 오가이가 의도한 <舟>의 유형이라 할 수 있었다. 적군이 탄 <舟>는 일괄적으로 ‘艦’으로 표기하였고 자신이 타고 있던 <舟>는 주로 ‘舟’로 표기하거나 ‘艦’으로 표기한다. 이 때 아군이 타고 있던 <舟>를 ‘艦’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따로 ‘舟’라는 의미를 의식적으로 표기해 두는 방식을 취했다. 이와 같은 양상은 「伊沢蘭軒」에서도 나타나 있다.²⁰⁾

8일. 맑음, 군함 조작이 가능, 아침 4시 승선, 8시 반에 출발

7일. 흐림. 아침 아오모리에 적함 두 척 출몰, 얼마 후 퇴각, 밤 6시경 쓰가루령 평관으로 오른편 적함 상회, 열 네 다섯 명이 상륙했다고 듣는다.

「伊沢蘭軒」에서도 ‘艦’으로 표기해 두고서 그 의미를 ‘배(舟)’라고 의도적으로 적었다. 이를테면 자신이 타고 있던 군함은 ‘舟’라는 의미를 의식적으로 부여한 것이며, 적군이 타고 있던 군함을 ‘적함(賊艦)’라 표현한 것도

19) 森林太郎(1972) 「うた日記」 『鷗外全集』 十九卷, 岩波書店, p.262

陸に奉天 / 海に艦(ふね)皆 / 捷にふさはぬ / 忘れて今日を / いざや迎へん

20) 森林太郎(1973) 「伊沢蘭軒」 『鷗外全集』 十七卷, 岩波書店, p.102

「八日。晴。艦(ふね)造作御出来に付、朝四時乗船。八半時出帆。」

「七日。陰。朝青森湊へ賊艦二艘来著、無程(ほどなく)退帆、夜六時頃津軽領平館(八里)へ右賊艦相廻、十四五人上陸いたし候由風聞有之。」

의도적이라 할 수 있다.

외교는 페리의 미국함대가 돌아간 후, 푸차치누 러시아 함대가 계속 7월 18일에 나가사키에 들어왔고, 이어 페리함대가 같은 해 갑인 정월 10일에 다시 우라가 앞바다로 왔다.²¹⁾

「伊沢蘭軒」에서 러시아함대와 미국 함대, 페리함대에 대해서는 철저히 '艦'으로 표기하여 적대시하는 작가의 의도를 드러냈다. 이와 같은 수법은 「徂征日記」에도 찾아 볼 수 있다. 「徂征日記」에 대련만(大連灣)을 출발하여 용수도(龍睡島)를 향할 때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²²⁾

19일. 오후 1시 배는 대련만을 출발하여 산동의 용수도를 향한다.

오가이는 대련을 출발할 때 자신이 탄 <舟>는 군함임에도 '舟'로 표기했고, 한편으로 적군의 군함은 '艦'으로 표기하였다.²³⁾

21) 森林太郎(1973)「伊沢蘭軒」『鷗外全集』十七卷, 岩波書店, p.87

外交はペリの米艦隊の去つた後、プウチヤチヌの露艦隊が癸丑七月十八日を以て長崎に入り、次でペリの艦隊が此年甲寅正月十日を以て再び浦賀沖に来た。

22) 森林太郎(1974)「徂征日記」『鷗外全集』三十五卷, 岩波書店, p.246

十九日。午後一時舟大連灣を発して山東の龍睡島を指す。

23) 森林太郎(1974)「徂征日記」『鷗外全集』三十五卷, 岩波書店, p.241

十三日。朝起ちて艙板上に出づれば鞆底声あり氷を履めばなり午前十時拔錨す十一時三十分貔子窩を過ぐ午後三時清国の敗艦庚申号の礁上に在るを望見す日没時柳樹屯水雷營に抵る夜守屋真朋の患者を護送せんが為に態本号舶に上るを送る。

13일. 아침에 일어나 갑판 위에 나가 보니 신발 바닥에 소리가 나는 얼음을 밟는다. 오전 10시 출항하여 11시 30분 비자와를 지나 오후 3시 청나라의 패함 경신호가 암초 위에 있는 것을 바로 본다. 일몰 때 야나기가 주둔한 수뢰진영에 도착한 밤에 모리야 마사토의 환자를 호송하기 위해 구마모토호를 타는 것을 배웅한다.

13일. 아침에 일어나 갑판 위에 나가 보니 신발 바닥에 소리가 나는 얼음을 밟는다. 오전 10시 출항하여 11시 30분 비자와를 지나 오후 3시 청나라의 패함 경신호가 암초위에 있는 것을 바로 본다. 일몰 때 야나기가 주둔한 수뢰진영에 도착한다.

오가이가 갑판 위에서 암초에 걸린 청나라의 군함을 바라보면서 ‘패함(敗艦)’이라 적었다. ‘艦’의 표기는 전쟁을 직접 경험한 오가이가 전쟁을 상징하는 군함에 대한 반발의식으로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의식은 전쟁뿐만 아니라 군이나 군인의 행위를 비판한 것으로 이를 ‘艦’을 통해 표현한다. 「伊沢蘭軒」의 ‘艦’은 「徂征日記」와 「うた日記」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전쟁이나 군에 대한 비판의식을 나타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비판의식은 「堺事件」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堺事件」은 사카이마치에 프랑스 해군함대의 불법 상륙한 사건을 다룬 내용이다. 일본 군함이 불법 침략한 프랑스 함대에 발포하여 프랑스 해군 10명이 사망하였고 이에 대한 프랑스 해군의 추궁으로 일본군인 11명이 할복의 명령과 징계를 받았던 과정을 다뤘다. 「堺事件」에 등장한 군함은 근대의 경제력과 최첨단 기술의 경쟁력을 갖춘 <舟>이었지만 침략행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책임을 추궁하는 프랑스해군을 상징하기도 하다. 오가이는 「堺事件」의 군함을 통해 근대화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같은 의식은 청일전쟁·러일전쟁에 참전한 문학자로서의 관점을 드러낸다. 이는 당시 기록한 「徂征日記」와 「うた日記」에서 ‘舟’와 ‘艦’의 표기를 의도적으로 구별하여 표기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말하자면 ‘艦’은 오가이의 비판의식을 드러낸 <舟>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3. 「妄想」와 <舟>

오가이 문학작품에서 ‘舟’와 ‘艦’의 표기는 개인적인 감상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군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 <舟>의 유형이라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문학으로 표현된 <舟>는 타 작품과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오가이가 문학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적은 「独逸日記」에서 <舟>에 대한 첫 기록은 강가에서 친구들과의 추억이었다.²⁴⁾ 오가이는 독일에 도착하던 날부터 자신의 유학시절을 「独逸日記」에 적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뱃놀이 기록이다. 그로부터 불과 5일이 지난 시점에 오가이는 또 다시 <舟>를 타며 즐거운 한 때를 기록한다.²⁵⁾

급기야 15~6세 소녀가 복장은 불편하지만 스스로 노를 저어 본다. 친구가 돌아보며 나에게 말한다.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나에게 장난삼아 노젓기를 배우지만, 양팔의 움직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경을 오른손에 쓰면 왼손이 역할을 잃어버린다. 이내 어이없어 크게 웃는다.

오가이는 친구들에게 노 젓기를 가르치지만 양팔로 노를 젓는 것이 쉽지 않아, 모두의 웃음을 자아냈다고 기록했다. 「独逸日記」에 묘사된 <舟>는

24) 森林太郎(1975) 「独逸日記」 『鷗外全集』三十五卷, 岩波書店, p.99

然れどもこの輩相俟し相倚る状、慣れ見る故を以て奇と為するなし。暑中諸生輩は扁舟に棹さしてプライセと名づくる小渠を溯洄するを樂とす。

하지만 일행들은 친한 상태, 친해지려고 일부러 행동하지 않는다. 무더위에 여러 학생이 작은 배에 노를 저으며, 프라이세라는 작은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즐거워한다.

25) 森林太郎(1975) 「独逸日記」 『鷗外全集』三十五卷, 岩波書店, p.100

忽ち十五六の少女の服飾陋しからざるが、自ら槳を蕩するを見る。友人余を顧みて曰く。君彼女児に愧ぢざるやと。余因りて戯に棹郎を学びしが、両腕の運動齊一ならず、心を右腕に用ゐれば左腕主とする所を失ふ。乃ち啞然として大いに笑う。

단순한 놀이 기구가 아니라 유럽의 친구들과의 만남을 돈독하게 해주었던 요소였고, 또한 자신을 찾아 온 일본의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낸 추억의 매개였다. 다케모리 텐유(竹盛天雄)는 오가이가 동경에서 『위생담』을 강연할 때, 독일에서 친구들과 <舟>를 타고 놀았던 추억은 특별한 정취가 있는 체험으로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었다고 한다.²⁶⁾

이 집회의 간사인 나가마쓰 아쓰스케(張松篤斐)와는, 유학시절 교우관계여서, 둘이서 여름휴가 동안에 종종 함께 놀았던 좋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던 것도 원인인 것 같다. 슈타르베르크 호수에서의 뱃놀이 추억은 『独逸日記』에서도 특별한 정취를 가지는 체험으로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친구들과 함께 젊은 날의 시간은 이른바 오가이로서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다.

유학시절 소중한 친구와의 추억으로 묘사되었던 <舟>를 오가이는 친구인 다나카 쇼헤(田中正平)에게 보냈던 한편의 詩에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²⁷⁾

거친 파도에도 시달리면서도 / 작은 배를 탄 친구들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노를 젓는 것과 마찬가지로 / 전쟁터에서는 전우의 마음이 서로 이

26) 竹盛天雄(1984) 「流離と邂逅」 『その紋様』 小沢書店, p.11

この集会の幹事にあたっている長松篤斐という人とは、留学時代に交友関係があった、二人は夏休みの間などに、しばしば一緒に遊んだよき思い出を共有していることにも原因があるらしい。シュタルベルク湖などの舟遊びの思い出は、『独逸日記』においても特別な趣をもつ体験として重んじられるものである。友人たちと共に生きた若き日のその時間は、いわば鷗外にとって終生忘れない大いなる時間である。

27) 森林太郎(1975) 「独逸日記」 『鷗外全集』 三十五卷, 岩波書店, p.131

荒れ狂う怒濤にもまれながらも / 小舟に乗った仲間是一个の目的地をめざして漕ぎ行くが如く / 戦の庭にありては、戦友の心は互いに結ばれて / 生死を賭けて相離れざるが如く / 我らも常に専ら祖国の榮譽を得んとて / つとめはげむのみなり / 貴き友垣のしるしとして / この書を君に捧ぐ

ベルリンにて 一八八六年二月二十五日 学士 森林太郎。

어저 / 생사를 걸고 서로 떨어지지 않듯이 / 우리들도 늘 한결같이 조국
의 영예를 얻으려고 / 노력을 아끼지 않을 뿐이다 / 소중한 친구의 표시
로 / 이 글을 당신에게 바친다.

베를린에서 1886년 2월 25일 학사 모리 린타로

오가이는 먼 미래로 함께 가기 바랐던 그에게 같은 <舟>를 타자고 한다.
게다가 자신과 같은 <舟>를 탄 존재는 힘든 현실을 넘어 미래를 함께할
친구라고 여긴다. 또한 힘든 현실을 헤쳐 나가는 것은 거친 파도에 작은
<舟>의 노를 저어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렇듯 <舟>는 친
구와 함께 미래로 갈 수 있는 수단이었고 직면한 현실을 헤쳐 나갈 수 있
는 방편인 것이다.

이 같은 <舟>에 대한 인식은 「青年」²⁸⁾에도 나타나 있다. 주인공 준이
치는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그 사람과 같은 <舟>를
타고 순항하는 느낌이라고 한다.²⁹⁾

이것을 듣고 있는 동안은 준이치도 지금까지 자신이 배에 노를 저으며
내려가는 완만한 흐름을, 연설자도 같은 배를 타고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
이 들었다. (중략) 준이치는 이것을 듣고, 그러한 어투가 조금이라도 장중하
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의연하게도 담담한 회화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무
리하게 자신이 타고 있는 배의 뱃머리를 돌려서 거꾸로 급류를 거슬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리고 나서 잠시 동안은 혼자서 깊은 생각에 빠졌다.

28) 鷗外(1910) 「青年」 『昂』 第二年第三号

29) 森林太郎(1975) 「青年」 『鷗外全集』 六卷, 岩波書店, pp.314~315

これを聞いている間は、純一もこれまで自分が舟に棹さして下さって行く順流を、演説者も同舟の人になって下さって行くように感じていた。(略) 純一はこれを聞いて、その語気が少しも莊重に聞かせようとする様子でなく、依然として平坦な会話の調子を維持しているにも拘かわらず、無理に自分の乗っている船の舳先を旋らして逆に急流を溯ばらせられるような感じがして、それから暫くの間は、独りで深い思量に耽けた。

준이치는 자신과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그 사람과 같이 탄 <舟>가 거꾸로 급류를 거슬러 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준이치는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이든, 자신과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이든, 같은 <舟>를 타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舟>는 직면한 현실에 대처하는 방편이고 미래를 향한 희망적인 수단이라 볼 수 있다. 이는 「独逸日記」에 나타난 오가이의 <舟>에 대한 인식과 닮았다. 희망의 수단인 <舟>는 「妄想」³⁰⁾에도 찾을 수 있다. 「妄想」의 <舟>는 파랑새를 실어 날랐다. 파랑새가 「青年」에 묘사된 ‘미래의 나라에서 실현될 연구’를 의미한다면³¹⁾, 「妄想」의 <舟>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실어 나르는 수단일 것이다. 「妄想」에서 <舟>에 타고 있던 파랑새는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하였다. 즉 희망을 걸었던 연구가 시도되기 전에 끝나버려 그 희망이 덧없이 사라진 것이다.³²⁾

세장을 들고 배로 돌아오니, 프랑스 배의 선원이 묘한 손짓을 하며, 「가

30) 鷗外(1911) 「妄想」 『三田文学』第二卷第三号

31) 森林太郎(1972) 「青年」 『鷗外全集』六卷, 岩波書店, p.419

その青い鳥を余所に求めて、Tyltyl, Mytyl (チルチル ミチル) のきょうだいの子は記念の国、夜の宮殿、未来の国とさまよい歩くのですね。そしてその未来の国で、これから先きに生れて来る子供が、何をしているかと思うと、精巧な器械を工夫している。翼なしに飛ぶ手段を工夫している。あらゆる病を直す薬方を工夫している。死に打ち克つ法を工夫している。

파랑새를 외부에서 구한 치루와 미치루 형제는 기념의 나라, 밤의 궁전, 미래의 나라를 헤매며 걷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미래의 나라에서 먼저 태어난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정교한 기계를 연구하고 있다. 날개 없이 나르는 수단을 연구하고 있다. 모든 병을 고쳐 줄 약을 연구하고 있다. 죽음을 극복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32) 森林太郎(1972) 「妄想」 『鷗外全集』八卷, 岩波書店, p.130

籠を提げて舟に帰ると、フランス舟の乗組員が妙な手附きをして、「Il (イル) ne (ヌ) vivra (キウラ) pas (ペア) !」と云つた。美しい、青い鳥は、果して舟の横浜に着くまでに死んでしまった。それも果敢ない土産であつた。

망 없어!」라고 했다. 아름다운 파랑새는 생각대로 배가 요코하마에 도착하기 전에 죽었다. 그것도 덧없는 선물이었다.

파랑새의 죽음으로 <舟>는 더는 희망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게마쓰 야스오(重松泰雄)는 「妄想」에서 파랑새가 죽는 에피소드를 다룬 것은 파랑새가 살아갈 수 없는 일본 사회의 암울한 <현재>를 나타낸 것으로 보았다.³³⁾

「아름다운 파랑새」는 프랑스선의 선원이 「가망 없어」—도저히 살 수 없다는 불길한 예언이 적중하여, 배 안에서 이내 죽어버린 것이다. 오가이는 어쩌서 굳이 이와 같은 에피소드를, 사명을 마치고 경사스럽게 귀국하는 주인에게 부여한 것일까. 게다가 이런 삽화는 결코 「자연과학의 분과상」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은 것을 암시한다. 파랑새를 가지고 오더라도 도저히 살 수가 없는 풍토—오가이는 주인에게 자연과학의 비유를 빌려, 정치 경제 문제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일본의 <현재>의 상황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파랑새는 선진의 정치, 경제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희망의 상징인 파랑새가 <舟> 안에서 그것도 일본에 도착하기 전 죽어버린 것은 당시 일본의 사회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다. 즉

33) 重松泰雄(1997)「妄想の生まれる時、生まれるところ—鷗外『妄想』一解—」『講座森鷗外 鷗外の作品』第一巻, 新曜社, p.299

「美しい青い鳥」はフランス船の船員の「イル ヌ ヴィヴラ パ」—とても育ちませんぜという不吉な予言が的中でたちまち死んでしまうのである。鷗外はなぜわざわざこのようなエピソードを、使命を終えてめでたく帰国する主人に対して与えるのか。しかもこの挿画は、ことがけって「自然科学の分科の上」だけの問題にとどまらぬことを暗示する。青い夢の鳥など持ち帰ってもとても育ちそうもない風土—鷗外は主人に自然科学の比喩を借りて、政治、経済、文化などあらゆる方面にわたる日本の<現在>の状況のものを語らせているのだ。

「妄想」에서 파랑새의 죽음은 희망을 걸었던 연구뿐만 아니라 선진의 철학이나 사상 또한 덧없는 산물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³⁴⁾

자연과학의 분과로서 나는 논문만 가지고 돌아온 것은 아니다. 장래 발전을 위한 싹도 가지고 있을 생각이다. 그러나 돌아갈 고향에는 그 싹을 키울 분위기는 없다. 적어도 ‘아직’은 없다. (중략) 그리고 음산한 어둠을 껴만한 빛과 같은 철학은 나의 선물상자 안에는 없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쇼펜하우어, 하르트만계통의 염세철학이다.

「妄想」의 주인공이 선진의 철학 사상으로 여겼던 ‘쇼펜하우어’, ‘하르트만’은 귀국하는 선물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학생화를 경험한 오가이는 선진의 철학 사상과 기술이 근대의 과도기를 겪던 일본사회와는 문제가 야기될 것임을 「妄想」에 드러낸 것이다. 이로써 <舟>는 추억의 매개이거나 희망의 수단이 아닌 일본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된다. 오가이는 스스로 안고 있는 현실적인 여러 문제를 <舟>를 통해 구사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 같은 의도로 접근한 작품이 ‘나’를 주인공으로 한 「百物語」³⁵⁾라 할 수 있다. 「百物語」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가와비라키(川開き, 이하 가와비라키로 표기함)’³⁶⁾라는 행사를

34) 森林太郎(1972) 「妄想」 『鷗外全集』 八卷, 岩波書店, p.130

自然科学の分科の上では、自分は結論丈を持つて帰るのではない。将来発展すべき萌芽をも持つてゐる積りである。併し帰つて行く故郷には、その萌芽を育てる雰囲氣が無い。少くも「まだ」無い。(略)そしてこの陰氣な闇を照破する光明のある哲学は、我行李の中には無かつた。その中に有るのは、ショオペンハウエル、ハルトマン系の厭世哲学である。現象世界を有るよりは無い方が好いとしてゐる哲学である。

35) 森鷗外(1911) 「百物語」 『中央公論』 二六年第一〇号

36) 新村出(1993) 『広辞苑』 第四版, 岩波書店, p.563

〔川開き〕 川の納涼の季節の開始を祝い水難防止を願う行事。江戸時代、陰暦5月28日に隅田川の両国橋の下で花火を上げて行こったのが高名い。

〔가와비라키〕 강이 선선해지는 계절의 개시를 축하하면서 수해방지를 기원하

배경으로 여름을 맞아 여러 척의 <舟>가 출발하는 장면이 전개된다. ‘가와비라키’ 행사는 항해하던 <舟>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 백 개의 촛불을 키고서 한 사람씩 유령이야기를 하고 촛불을 끄는데 마지막 촛불을 끄는 순간 진짜 유령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주인공 ‘나’도 ‘가와비라키’ 행사의 유령을 보기 위해 <舟>를 탄다. 여섯 척의 <舟>에는 각 계 각 층의 많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百物語」에서 <舟>는 ‘나’의 세계를 나타낸 것으로, <舟> 안의 여러 사람들은 ‘나’를 둘러싼 주변 인물을 뜻한다. 그리고 <舟>가 유령을 향해 가는 것은 죽음을 향해가는 ‘나’의 생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百物語」에서는 항해하는 <舟> 안의 ‘나’를 통해 인생의 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舟>를 타고 목적지로 향해 가던 ‘나’는 강의 중류로 접어들 때 물 위에 떠 있는 ‘갈매기’를 발견한다.³⁷⁾

배는 서쪽 해안가로 올라가므로, 우야마바시 앞까지는, 오구라의 수문 바깥을 지날 때마다, 밀려오는 바닷물이 댐도는 물 위에, 지푸라기, 톱밥, 우산대 등, 둥그런 파편들이 떠 있고, 그 사이에 아무렇지도 않게 둔감한 듯, 갈매기가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다. 스와쵸 해안근처에서, 배가 조금씩 중류로 들어갔다.

강의 중류에서 ‘나’는 ‘갈매기’와 마주한다. ‘갈매기’는 물위에 떠 있는 지

는 행사. 에도시대, 음력 5월 28월에 스미다강을 끼고 양 지역에서 불꽃을 쏘아 올리며 행해졌던 것이 유명하다.

37) 森林太郎(1972) 「百物語」 『鷗外全集』 九卷, 岩波書店, p.134

舟は西河岸の方に倚って上って行くので、厩橋手前までは、お蔵の水門の外を通る度に、さして来る潮に淀む水の面に、藁やら、鉋屑やら、傘の骨やら、お丸のこわれたのやらが浮いていて、その間に何事にも頓着と云う風をして、鷗が波に揺られていた。諏訪町河岸のあたりから、舟が少し中流に出た。

푸라기, 톱밥, 우산대 등, 둥그런 파편들 사이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떠 있었다. <舟>를 타고 강의 종류로 접어든 ‘나’는 인생의 중년기를 맞은 오가이 자신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오가이의 한자이름 ‘鷗外’에는 ‘갈매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물 위에 떠 있는 ‘갈매기’ 주변의 부유물을 더욱 부각시켰다. ‘갈매기’ 주변의 부유물은 오가이의 복잡한 심경을 나타낸 것으로서, <舟>안의 중년을 맞은 오가이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암시한 것이다. 그리고 <舟>가 다리 아래를 지날 때, 다리위에서 ‘나’를 향해 ‘바보’라고 소리치는 ‘서생’이 등장한다.³⁸⁾

아즈마다리 위에는 사람이 제법 서서 강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중 서생이 있어, 마침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지날 때, 큰소리로 「바보」라고 외쳤다.

‘서생’이 ‘바보’라며 소리치는 것은 결국 <舟>안에 있는 여러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나’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이다. 이것은 오가이가 자신에게 던지고자 했던 궁극적인 내용이다. 이것은 오가이가 자신의 작품 속에서 드러내고자 한 메시지를 마치 목소리를 내는 기명으로, 「雁」과 「青年」에도 나타나 있다.³⁹⁾

이런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역시 내가 바보다. 소리 따위는 내지 않는다.

38) 森林太郎(1972) 「百物語」 『鷗外全集』 九卷, 岩波書店, p.134

吾妻橋の上には、人がだいぶ立ち止まって川を見卸していたが、その中に書生がいて、丁度僕の乗っている舟の通る時、大声に「馬鹿」とどなった。

39) 森林太郎(1972) 「雁」 『鷗外全集』 八卷, 岩波書店, p.53

こんな事を思うのは矢張わたしが馬鹿なのだ。声なんぞを掛けるには及ばない。

「雁」에서는 주인공이 자신을 질책하는 장면에서 ‘바보’라고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青年」에서도 작중인물이 자신의 어리석었음을 인식하면서 ‘바보’라고 하였다.⁴⁰⁾

그리고 지극히 찰나의 망상을 부끄러워했다. 바보.

「雁」과 「青年」에 묘사된 ‘바보’는 오가이가 작중인물을 통해 문득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의식적으로 나타내는 수법으로 「百物語」에 접목한 것이다. 「百物語」의 ‘바보’는 문학 활동을 하며 중년을 맞은 오가이가 스스로 깨달은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오가이는 깨달음을 「百物語」의 <舟>를 통해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妄想」에 묘사된 현실의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舟>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유학을 다녀온 중년의 오가이에게 「妄想」의 <舟>는 더 이상 희망의 수단이 아닌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는 곳으로 다가온다. 선진의 의학이나 기술이 일본사회에서 순응하지 못한 현실을 <舟>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오가이는 경험을 통한 변화된 인식을 「妄想」의 <舟>를 통해 나타냈다. 이러한 <舟>의 유형은 「百物語」뿐만 아니라 오가이 문학에서 다양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40) 森林太郎(1972) 「青年」 『鷗外全集』 六卷, 岩波書店, p.57
そしてひどく刹那の妄想を慙じた。馬鹿な。

나가기

오가이의 문학작품에서 <舟>는 추억의 매개체였고 희망의 수단이었다. 문단에 데뷔하기 전에 기록한 「独逸日記」에서 <舟>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의 소재였으며 친구와 함께 먼 미래로 갈 수 있는 희망의 수단이었다. 이렇듯 <舟>는 「青年」에도 희망의 수단으로 그려진다. 반면에 「妄想」에서는 현실의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변화는 오가이가 중년이 되면서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舟>를 통해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百物語」에서는 중년을 맞은 오가이의 복잡한 심경과 문학자로서의 문제의식에 대해 <舟>안에서 깨닫는 모습으로 설정했다. 자신의 생애와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의식을 <舟>라는 매개를 통해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를테면 자신이 겪고 있던 근대화의 양상과 실생활의 일면을 <舟>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근대화에 대한 견해는 「堺事件」의 군함을 통해 비판의식을 보였다. 「堺事件」의 군함은 군과 참전군인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 <舟>의 유형이었다. 이 같은 표현은 청일전쟁·러일전쟁에 참전하여 기록한 「うた日記」와 「徂征日記」에 한층 두드러졌고 문학작품 「伊沢蘭軒」에도 드러났다. 적군이 타고 있던 군함은 ‘艦’으로만 표기하였고 아군이 탄 군함은 ‘舟’로 표기하거나 ‘舟’의 의미를 담은 <舟>로 나타냈다. ‘舟’와 ‘艦’의 혼용은 의도적으로 사용한 표기로서 작가의 비판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오가이는 군인으로서 참전했던 경험을 통해 전쟁에 대한 비판도 드러냈었다. ‘舟’와 ‘艦’으로 나타낸 비판의식은 오가이 문학에서 <舟>를 통해 표출한 작가의식이라 할 수 있다. 관료생활에 대한 비판은 아이러니하게도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전하면서 더욱 의식적으로 드러냈

다. 오가이는 군인으로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현실에서 전쟁의 참담함을 문학으로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를 「徂征日記」와 「うた日記」의 詩・단가・하이쿠 등으로 나타냈다. 전쟁터에서의 긴장감은 ‘야하타’를 탄 무장의 의연한 기개를 표현하여 두려움을 떨치려 하였으며, 군함에서 바로 본 자연경관은 서정적인 운치를 표현함으로써 전쟁의 무색함을 나타냈다. 이는 관료생활의 한계를 극복하려던 의지로 문학자로서의 선택으로 이를 <舟>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이렇듯 <舟>는 오가이 실생활이었던 관료생활의 일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군의 관료로서의 비판 의식이 반영되어 있었다.



제5장 「山椒大夫」와 <舟>

1. 들어가기

오가이는 문학작품을 발표하면서 ‘오가이교시(鷗外漁史)’, ‘가쿠시나가시(隠流)’, ‘다카야스(高湛)’ 등의 필명을 사용했지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오가이(鷗外)’이다. ‘오가이(鷗外)’라는 필명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오랜 친구인 사이토 가쓰히사(斎藤勝寿)가 쓰던 것을 빌려 썼다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오가이는 「舞姫」로 데뷔할 당시 친구에게 잠시 빌리기로 했으나 그대로 사용하였다. ‘오가이(鷗外)’라는 의미는 두보의 詩에서 인용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

오가이라는 호의 유래에 대해 사이토 가쓰히사의 호를 빌린 것이라는 여러 설이 있다. 사이토 가쓰히사는 「오가이의 아호」의 여러 설을 검토한 두보 시의 한 구절 「柔艚輕鷗外, 含淒覺汝賢」-비가 내리고 갈매기가 가볍게 떠 있다. 그 가운데를 한 척의 작은 배가 지나간다. 처량함을 품은 너의 현명함을 기억한다)에서 발췌했다고 야나기타 이즈미설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비를 맞고 있는 처량한 갈매기는 유유히 떠 있고 그 사이로 한 척의

1) 森鷗外(1977)『鷗外全集』七卷, 筑摩書房, p.316

鷗外という号の由来については、斎藤勝寿の号を借りたもの(斎藤)など諸説がある。斎藤茂吉は「鷗外の雅号」「馬山房夜説」所収)で諸説を検討したうゑ杜甫詩の一節「柔艚輕鷗外、含淒覺汝賢」(雨が降って鷗が軽やかに浮いている。その中を一艘の小舟が通り過ぎる。淒を含んで汝の賢を覚る)からとったとする柳田泉説にしたがうべきだとしている。

<舟>가 지나간다는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다. 작가는 詩句에 묘사된 세상의 풍파를 현명하게 견뎌내는 갈매기의 모습에 강한 인상을 받아 자신의 호를 ‘오가이(鷗外)’로 정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게다가 비를 맞으며 시련을 견뎌내는 갈매기의 모습은 첫 작품을 발표할 당시 힘들어했던 자신을 떠올린 것이다. 관직에 있으면서 문학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압박과 의학자로서 탈피하지 못한 창작문학에 대한 한계를 겪었던 오가이는 시련을 견디는 갈매기를 통해 엿 본 것이다. 갈매기의 모습에 자신을 투영한 오가이는 지나가는 작은 <舟>를 놓치지 않았다. <舟>는 그곳을 벗어날 수 있는 수단, 즉 시련을 벗어나려 시도할 수 있는 요소로 비취졌을 것이다. 이처럼 <舟>를 통해 직면한 시련을 벗어나려 했던 시도는 역사소설 「山椒大夫」에서 유사한 시점을 보인다. 오가이는 「山椒大夫」의 발표에 앞서 「歴史其假と歴史離れ」²⁾에 ‘역사 벗어나기’를 시도한 작품이지만 ‘역사 벗어나기’를 하지 못한다. 「山椒大夫」에서 ‘역사 벗어나기’의 시도는 <舟>를 통해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山椒大夫」는 네 명의 가족이 에치고(越後)에서 쓰쿠시(樂紫)로 향해 여행을 떠난 내용으로, 그들이 <舟>를 타는 순간 인신매매에 팔려가면서 작품이 전개된 점에 주목한다. 게다가 작중인물들은 <舟>를 타고나서 각각 성격의 변화를 보인다. 자신들이 팔려가는 신세임을 깨달은 하녀와 엄마는 자살을 시도하고, 여리기만 했던 어린 여자아이는 인신매매에 맞서는 강인한 인물로 변모해 간다. <舟>를 타면서 사건이 전개되고 <舟>를 통해 인물설정이 이뤄진 것은 <舟>를 부각하려는 오가이의 의도로 보인다. 나아가 「山椒大夫」에서 이동수단을 <舟>로 설정하는 장면에서도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山椒大夫」에서 <舟>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동수단으로 나타나 있다.³⁾

2) 森林太郎(1915)「歴史其假と歴史離れ」『心の花』第十九卷第一号

3) 森林太郎(1973)「山椒大夫」『鷗外全集』十五卷, 岩波書店, pp.659~660

그 때 부모는 자식을 살피볼 수가 없고 자식도 부모를 살필 수가 없다. 그것이 해변 길의 위험함이다. 또한 산길을 넘으면 뱀은 돌이 하나 흔들리면 천 리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위험한 산길도 있다. 서쪽으로 가기까지는 얼마나 위험한 곳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것과 달리 뱃길은 안전하다. 분명 선원에게 부탁하면 앉아서 백 리든 천 리든 갈 수 있다.

작중 인물들은 목적지로 가기 위해 해변 길과 산길, 뱃길을 두고 갈등한다. 해변 길로 가면 파도에 휩쓸려 갈 우려도 있고 산길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낭떠러지가 있어 이동이 어려운 반면에 뱃길은 앉아서 백 리든 천 리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舟>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 작중인물들이 선택한 가장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묘사된다. 에치고(니가타)에서 출발한 작중인물들의 목적지는 쓰쿠시(규슈), 즉 섬에서 섬으로 이동해야하므로 결국 이동수단은 <舟>밖에 없다. 그럼에도 <舟>를 가장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부각시켜 작품을 전개한 것은 오가이의 의도이고 이것이 「山椒大夫」에서 ‘역사 벗어나기’의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舟>를 통해 역사소설의 ‘역사 벗어나기’를 시도하려는 오가이의 관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가이의 역사소설에서 ‘역사 벗어나기’의 ‘역사’는 무엇인지, 「山椒大夫」에서 ‘역사 벗어나기’의 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山椒大夫」에서 ‘역사 벗어나기’를 시도한 <舟>는 그 밖의 역사소설에 나타난 <舟>와는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そのときは親は子を顧みることが出来ず、子も親を顧みることが出来ない。それは海辺の難所である。また山を越えると、踏まえた石が一つ揺げば、千尋の谷底に落ちるような、あふない岨道もある。西国へ往くまでには、どれほどの難所があるか知れない。それとは違って、船路は安全なものである。たしかな船頭にさえ頼めば、いながらにして百里でも千里でも行かれる。

2. 역사소설과 <舟>

오가이는 역사소설을 집필하는데 있어서 역사상의 사건이나 인물을 어떻게 다뤄야 문학작품이라 할 수 있을지 갈등하였다. 그것은 위생학을 연구한 자연과학자로서 자료에 근거를 두고자 했던 창작활동에 대한 딜레마였다. 현대소설을 집필하던 오가이가 역사소설로 전환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다룬다면 그것을 소설이라 할 수 있을지의 고민을 「歴史其僣と歴史離れ」에 나타낸다.⁴⁾

내가 최근에 집필한 역사상의 인물을 다룬 작품은 소설인지 아닌지 되묻고 친구들 간에도 논쟁이 있다. 나는 史料를 조사해보고 그 안에 보이는 「자연」을 존중하자고 생각했다. (중략) 나는 또한 현존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좋다면 과거도 쓰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가이는 史料를 조사해 보고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역사소설을 집필하고자 했음을 밝히고 「山椒大夫」를 발표했다. 「山椒大夫」는 설화집 『説経節』의 내용을 발췌하여 각색한 작품이지만 결말 부분은 설화집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결론을 지었다. 오가이는 집필 당시의 근대 노예해방제도를 다룬 것이다. 이를 두고 「歴史其僣と歴史離れ」에서는 ‘역사 벗어나기’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역사 벗어나기’는 史料에 의거하지 않은 내용을

4) 森林太郎(1973) 「歴史其僣と歴史離れ」 『鷗外全集』二十六卷, 岩波書店, p.508

わたくしの近頃書いた、歴史上の人物を取り扱った作品は、小説だとか、小説でないとか云つて、友人間にも議論がある。わたくしは史料を調べて見て、其中に窺はれる「自然」を尊重する念を発した。そしてそれを猥に変更するのが厭になつた。わたくしは又現存の人が自家の生活をありの僣に書くのを見て、現在がありがたの僣に書いて好いなら、過去も書いて好い筈だと思つた。

다른 것이라고 「歴史其仮と歴史離れ」에서 밝혔다. 「山椒大夫」는 『説経節』에 의거하지 않은 내용을 다뤘음에도 ‘역사 벗어나기’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오가이의 ‘역사 벗어나기’의 관점은 史料를 벗어나는 것 보다는 작가가 직면한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다. 결국 오가이는 기록된 史料보다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역사’로 인식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역사’ 인식은 오가이가 역사소설을 집필하는 계기에도 나타나 있었다. 오가이의 첫 역사소설인 「興津弥五衛門の遺書」는 明治 천황의 崩御로 오랜 친분을 쌓았던 노기(乃木) 장군의 할복자결 사건⁵⁾에서 출발했다. 노기 장군의 할복자결에 대해, 당시 근대 사상계를 지배하던 지식인이나 언론에서는 구시대의 행위라 비판했다. 노기 장군의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과거의 낡은 사고라고 비난했지만 오가이는 돌연 「興津弥五衛門の遺書」를 발표하여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것이다.⁶⁾

노기 대장부부의 자인에 대한 철학자·윤리학자·교육학자의 비판이 신문에 게재되고 당시의 사상계를 지배한 그들 유력학자의 언급으로는 이것을 구시대의 유물의 행위로 간주하고 오히려 비난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

5) 新村出(1993)『広辞苑』第四版, 岩波書店, p.2008

乃木希典(のぎまれすけ : 1849~1912)軍人。陸軍大將。長州藩出身。日露戦争に第三軍司令官として旅順を攻略。後に学習院長。明治天皇の大葬当日、自邸で妻静子と共に殉死。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 군인. 육군대장. 초슈번 출신. 러일전쟁에 제3군 사령관으로서 여순을 공략. 이후에 학습원장. 명치천황의 장례식 당일 자택에서 아내 시즈코와 함께 할복 자결.

6) 齊藤茂吉(1977)「鷗外の歴史小説」『森鷗外全集』別巻, 筑摩書房, p.105

乃木大將夫婦の自刃について哲学者・倫理学者・教育学者の批判が新聞に載り、當時の思想界を支配しつつあった其等有力学者の言説のうちには、これらを旧時代の遺残の行為と做し、寧ろ非難しようとする傾向が見えた。乃木大將行為を理解し肯定することを以て過去世紀の古い考えとしたのであるから、思い切って其を讚美しようというものなどは一人も無かった。(略) 然るに鷗外先生は突如として、中央公論の十月号に、「興津弥五衛門の遺書」という小説を発表した。

다. 노기대장행위를 이해하고 수궁하는 것은 과거 세기의 낡은 사고라 했기에 결코 그를 찬미하려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중략) 그러나 오가이 선생은 돌연 중앙공론 10월호에 「興津弥五衛門の遺書」라는 소설을 발표했다.

할복자결은 근대에 들어 금기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기 장군이 단행하여 비판을 받는다. 오가이는 그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장례기간 3일 동안 「興津弥五衛門の遺書」를 완성하여 발표했다. 첫 역사소설에서 오가이는 ‘역사’의 관점을 나타낸 것인데 그것은 비록 처한 현실이 모순되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자신이 받아들인 모순된 현실에 대해 비판과 비난에 맞서는 오가이의 의지 또한 비쳤다. 「興津弥五衛門の遺書」를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과 맞섰던 오가이의 ‘역사’는 「山椒大夫」에도 나타난다. 「山椒大夫」는 인신매매라는 극단적이고 모순된 현실에 맞서는 강인한 인물로 변모한 안주의 모습이 <舟>를 타면서 비롯된다는 것에 주목했다. 오가이가 나타내고자 한 ‘역사’는 인신매매라는 극단적이고 모순된 현실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맞서는 안주의 모습은 ‘역사’를 벗어나고자 한 작가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다. 이 장면에서 「山椒大夫」의 ‘역사 벗어나기’는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舟>를 통해 ‘역사 벗어나기’는 시도한 것이다. <舟>를 매개로 한 오가이의 역사의 관점은 「栗山大膳」⁷⁾에도 나타나 있었다. 역사소설 「栗山大膳」은 주인공 구리야마 다이젠(栗山大膳)이 그동안 모시던 구로다(黒田)에게 대항하는 내용이다. 구리야마 다이젠은 主君의 진역을 공격하기 위해 우선 불모로 잡혀있는 부인과 일행들을 피신시키기 위해 <舟>를 준비한다.⁸⁾

7) 森林太郎(1914) 「栗山大膳」 『太陽』 第二〇卷第二号

8) 森林太郎(1973) 「栗山大膳」 『鷗外全集』 十五卷, 岩波書店, pp.630~631

利安等は隙を窺うかゝつてゐたが、どうも舟番所を抜ける手段が得られなかつた。利安等は兼ねて福島の上流に小舟を出して、舟番所の様子を見せて置くと、舟番の者共は細川

도시야스 일행은 빈틈을 살폈지만 도저히 선박 검문소를 벗어날 수단이 없었다. 도시야스 일행은 미리 후쿠시마의 상류에 작은 배를 띄워 검문소에 보이도록 두면 선박 검문소의 일행들이 오소가와 저택이 불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화재장소로 갔다는 보고를 듣고 도시야스 일행은 두 부인을 큰 상자에 넣어 창고 뒤쪽에서 작은 배에 실었다.

도시야스는 볼모로 잡혀 있는 부인들을 탈출시킬 방법으로 <舟>밖에 없다는 것에 착안한다. 결국, 작은 <舟>를 이용해 부인들을 탈출시켰다. 「栗山大膳」에서 <舟>를 타고 탈출하는 작중인물이 주어진 현실에 대처하는 모습은 직면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오가이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즉 역사소설에서 표현하려던 ‘역사 벗어나기’인 것이다. 오가이 역사소설의 ‘역사 벗어나기’에 대해 사카우치 다다시(坂内正)는 작가로서 자유를 추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⁹⁾

결말을 원래 자료를 벗어나 크게 전환된 『山椒大夫』 이후 정한 침묵은 어디까지나 일관하는 반면 들리는 험담이나 비판에는 일일이 설명반론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린타로였다. (중략) 분출하는 창작의 바닥에 이

邸の焼けるのを見て、多人数小舟に乗って火事場へ往つた、其報告を得て、利安等は兩夫人を大箱に入れて、納屋の裏口から小舟に載せた。

9) 坂内正(2001) 『鷗外最大悲劇』 新潮社, p.254

結末を原資料を離れて大きく転換させた『山椒大夫』のあと『歴史其假と歴史離れ』を書いた。『田楽豆腐』もそうだが、自分で決めた緘黙はどこまでも貫く反面、聞えてくる悪口や批判にはいちいち説明反論せずにはすまされない林太郎であった。(略) 奔出する創作の底にはこれがあった。だが作述者として自由を求める心は当然生じてくる。「歴史離れ」である。しかしそれはまた深いところで彼を支えてきたこの補償を裏切ることになる。彼は聞き書きで『津下四郎左衛門』を書いた後、その後彼の許に寄せられた手紙やその後得た資料で、補筆訂正しようとする。事実への意志である。その後資料の重圧と制限から一刻逃れるように『天籠』『二人の友』『余興』など現代物に筆を染めた。その間一方で、多くの資料を参照した『魚玄機』を書いた。

것이 있었다. 하지만 작가로서 자유를 요구하는 마음은 당연히 생겨난다. 「벗어나기」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깊은 곳에 그를 지탱해온 이런 보상을 뒷받침하게 된다. 그는 들은 대로 적은 『津下四郎左衛門』를 집필한 후, 그의 곁에 보내진 편지나 그 후 얻은 자료에서 보필정정을 하려고 한다. 사실에 근거하려는 의지이다. 이후 자료의 중압과 제한에서 일각 벗어나려 『天籠』, 『二人の友』, 『余興』 등 현대물을 적었다. 그 사이에 많은 자료를 참조한 『魚玄機』을 썼다.

「山椒大夫」는 자료를 그대로 집필한 『津下四郎左衛門』, 『魚玄機』와는 달리 ‘역사 벗어나기’의 관점이고 창작에 바탕을 둔 오가이의 관점이 드러난 것이다. 「山椒大夫」는 자료를 벗어난 작품이긴 하지만 결말에 집필 당시의 노예해방제도를 다룬 것은 문학 작가로서의 창작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학자로서 창작력의 한계를 인식한 오가이는 이 또한 모순된 현실로 여긴다. 이것은 역사소설의 집필에 앞서 이미 대두한 문제였고 차츰 작품을 발표하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 같은 시도가 「山椒大夫」, 「栗山大膳」의 ‘역사 벗어나기’라 할 수 있다. 오가이는 역사소설에서 <舟>를 통해 작가 스스로 문제점에 맞서고자 하는 시도를 ‘역사 벗어나기’로 나타냈다는 것이다.

3. 현실의 한계와 <舟>

「山椒大夫」는 오가이의 역사소설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다. 「山椒大夫」는 ‘역사 벗어나기’를 시도하였지만 ‘역사 벗어나기’를 하지 못한 작품으로, 역사소설에서 ‘역사 벗어나기’는 무엇인지를 제시하였기 때문

이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오가이가 작품에서 나타낸 ‘역사’는 모순된 현실이더라도 받아들여야 할 현재라는 것이다. 「山椒大夫」에서 모순된 현실은 인신매매라는 극단적인 상황이고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가 ‘역사 벗어나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山椒大夫」의 冒頭에 나타나 있었다. 「山椒大夫」는 네 명의 가족, 엄마와 남매, 여자 하인이 유배지로 떠난 지 12년이나 연락이 없는 남매의 아버지를 찾아가는 내용이다. 여행 길에 그들은 야마오카 다유(山岡大夫)의 도움으로 <舟>를 타게 된다. 네 가족이 두 척의 <舟>로 나뉘어져, 엄마와 하녀를 태운 <舟>는 북쪽을 향하고 남매를 태운 <舟>는 반대방향으로 향하자 비로소 자신들이 어딘가로 팔려간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때 하녀는 바로 자살을 하고 엄마 또한 자살하려 하지만 목숨은 건져 어딘가로 팔려간다. 이에 비해 안쥬는 남동생을 지키기 위해 모순된 현실에 맞서는 강인한 인물로 변모해 간다. 인신매매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舟>를 탄 시점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네 가족은 <舟>를 타기 전에 만났던 야마오카 다유의 속임수에 넘어가 이미 팔려간 신세였음에도 깨닫지 못한다. 오히려 야마오카 다유를 전적으로 의지하였고 엄마는 자신이 가진 모든 귀중품을 맡기기까지 한다. 야마오카 다유가 네 가족을 다른 인신매매에 넘길 때 <舟>에 태우는데 <舟>를 타는 순간 자신들이 팔려가는 신세라는 것을 파악한다. <舟>는 작중 인물들이 모순된 현실을 깨닫게 되는 장소이고, 이 같은 상황에서 자살해버리거나 이에 맞서는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는 곳이다. 즉 모순된 현실에 맞서는 안쥬의 변화된 모습이 설정된 곳이 <舟>라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山椒大夫」에서 이동 수단을 <舟>로 설정하는 장면에서도 이동수단이 <舟>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수단이 있었음에도 <舟>를 선택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¹⁰⁾

육지로 가면 바로 옆 에치주의 경계로 들어가는 조차 엄청난 어려운 곳이 있다. 깎아 세워 놓은 것 같은 암석의 기슭에는 거친 파도가 덮친다. 여행객은 옆의 틈에서 파도가 밀려가는 것을 기다려 좁은 암석의 아랫길을 빠져나간다. 그 때는 부모는 자신을 살필 수 없고 자식도 부모를 살필 수가 없다. 그것은 해안가의 난소이다. 또한 산을 넘을 넘는다면 디딘 돌이 하나 흔들리면 천 리 낭떠러지로 떨어질 듯한 위험한 기슭 길도 있다. 서쪽으로 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어려운 장소가 있는지 모른다. 그것과 달리 뱃길은 안전하다. 분명 선주에게 부탁하면 앉아서 백 리든 천 리든 갈 수 있다.

「山椒大夫」에서는 오가이는 목적지로 향해 육지로 가는 다른 방법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오히려 <舟>를 타고 가는 것은 앉아서도 편히 갈 수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는 <舟>를 부각시키려는 오가이의 의도로 <舟>는 「山椒大夫」의 집필에 앞서 의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이 오가이가 역사소설에서 있어 <舟>를 우선시 한 것은 그것을 ‘역사 벗어나기’의 한 방편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에 어리기만 하던 안주는 <舟>를 타면서 남동생을 지키고자 하는 강인한 인물로 새롭게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강인한 인물로 변모한 안주는 인물설정과는 다른 행동을 한다. 혹한 노예생활을 견디면서 오로지 남동생의 탈출시키려는 일념으로 시련을 견디던 안주가 어느 날 機智를 발휘하여 남동생의 탈출을 시키고 돌연 자살해 버린다.

10) 森林太郎(1973) 「山椒大夫」 『鷗外全集』十五卷, 岩波書店, pp.659~660

大夫は知れきったことを問われたように、少しもためらわずに船路に行くことを勧めた。陸を行けば、じき隣の越中の国に入る界にさえ、親不知子不知の難所がある。削り立てたような巖石の裾には荒浪が打ち寄せる。旅人は横穴にはいって、波の引くのを待っていて、狭い巖石の下の道を走り抜ける。そのときは親は子を顧みることが出来ず、子も親を顧みることが出来ない。それは海辺の難所である。また山を越えると、踏まえた石が一つ揺げば、千尋の谷底に落ちるような、あぶない岨道もある。西国へ往くまでには、どれほどの難所があるか知れない。それとは違って、船路は安全なものである。たしかな船頭にさえ頼めば、いながらにして百里でも千里でも行かれる。

이것은 오가이가 각색한 부분으로 『説経節』에서 동생을 탈출시키고 난 뒤, 동생이 멀리 달아날 수 있도록 반대방향으로 달아나다 붙잡혀서 고문으로 죽임을 당하는 안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안주의 행동 양상에 대해 유진우는 「山椒大夫」는 봉건시대의 사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린 소녀 안주의 동생에 대한 ‘헌신’과 저항 의식을 담은 것으로 보았다.¹¹⁾

결국 오가이는 이 14살의 어린 소녀로서는 도저히 이루어 낼 수 없다는 나이와 작품 속에서의 상황으로 볼 때, 독자의 상상을 뛰어넘는 더구나 희생을 전제로 한 ‘헌신’을 작품 속에 도입한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은 안주 자신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의식을 통한 ‘헌신’일 때에 한해서 오가이가 말하는 ‘역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山椒大夫」를 썼다’고 하는 동기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

「山椒大夫」에서 안주의 희생을 전제로 한 ‘헌신’을 작품 속에 도입하려는 오가이의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山椒大夫」에서 돌연 자살한 안주보다는 동생을 탈출시키고 난 뒤에도 동생의 안전을 위해 멀리 달아나다 붙잡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説経節』에서의 안주가 희생적인 인물이라 판단할 수 있다. 즉, 오가이가 각색하여 설정한 안주보다는 오히려 元典의 안주가 헌신적 인물인 것이다.

고영자는 「山椒大夫」의 집필배경이 ‘신여성’을 오가이의 역사소설의 특질에 적용했다고 본다.¹²⁾

11) 유진우(1995) 「모리 오가이(森鷗外) 역사소설의 同質 構造論—「山椒大夫」「高瀬舟」의 ‘献身’의 구조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p.204

12) 고영자(1994) 「森鷗外の 역사소설 『山椒大夫』 背景—<신여성>」 『東国大学校研究所』, p.122

이런 관점에서 볼 때, 『山椒大夫』가 쓰인 1915년 무렵, 일본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저널리즘에 자주 거론된 센세이셔널한(충격적인) 사건은 <인신매매>가 아니라, <新女性(新しき女)>이었으므로 그의 역사소설의 특질을 적용해 볼 때, <新女性>을 논외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그리고 본고에서의 이 <新女性>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의 <新女性>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에 입센이 유입된 후, 그 영향을 받아 여성이 자각할 것을 외치던, 봉건제도하의 여성 경시 풍조와 남성종속의 굴레에서 벗어나 여성도 한 인간으로서 존립해야 한다는 것에 목소리를 높이고 거센 저항의 움직임을 보였던 明治末부터 大正初期 무렵의 그 시대의 그 여성이라는 한정성을 지니는 데에 의미가 있다. 즉, 그 당시의 일부 진보적인 사교의 여성들에 국한된다.

안주는 봉건제도하의 남성 종속의 굴레에 벗어나 여성도 한 인간으로 존립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신여성’이고 진보적인 사교 소유자라 한다. 안주는 한 인간으로서 존립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나 자살을 해버림으로써 진보적인 사교의 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며 봉건시대의 인물을 벗어나지 못했다. 안주의 자살은 산쇼다유를 두려워 자초한 것인데 그에게 맞서지 못한 그녀를 남성 종속의 굴레에 벗어난 신여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나가요시 마사오(永吉雅夫)는 안주의 인물설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³⁾

13) 永吉雅夫(1983) 「歩く厨子王一鷗外『山椒大夫』と説経」 『国文学』 11月号第28巻 14号, 学灯社
 さて『山椒大夫』に能動的な主体あるいは主体となるほどの能動性という志向を見出すとき、あの徹底して無力無能な説教の主人公、その受動性の中での救済に、あらためて注目しなければならぬまい。

막상 『山椒大夫』에 능동적인 주체 혹은 주체가 될 정도의 능동성이라는 지향을 나타낼 때 철저하게 무력하고 무능한 설교의 주인공, 그 수동성 안에서의 구제에 새롭게 주목해야 한다.

「山椒大夫」의 안주는 무력하고 무능한 『説経節』의 안주를 구제한 것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説経節』에서 동생의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를 멀리 유도한 지혜와 그들에게 고문으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동생을 지켜내는 인물로 무능하고 무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山椒大夫」에서 안주의 자살에 대해 이즈하라 다카도시(出原隆俊)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⁴⁾

안주의 내면을 뭐라 할 수 없다. 그런 연유로 반대로 그녀의 결의의 강함이 팽배해지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독자는 석연치 않다. 이것에 관해서는 제3장에서 많이 사용된 표현을 검토하고서 「안주와 지로의 두 사람 사이에 암묵의 극이 전개됨」으로서 「안주가 원전과 다른」 자살을 하는 것은 「지रो에 대한 사과와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육친의 사랑에 대한 집착보다도 자기의 결의의 관철을 우선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해석의 진위는 차치하더라도 <미세>한 표현에 대한 구애가 새로운 해석에 대한 하나의 시도가 되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14) 出原隆俊(1997)「鷗外が多用する表現について—『山椒大夫』を中心に—」『講座 森鷗外 鷗外の作品』 第二巻, 新曜社, p.384

安寿の内面を初めとして何事も語られない。そのことによつて、逆に彼女の決意の強さが浮き彫りにされてくるように設定されていると言えよう。しかし、なおかつ読者は釈然とすまい。これに関しては、第三章において、多用される表現の検討から「安寿と次郎の二人の間に暗黙の劇が展開された」とし「安寿が原典とは異なり自死を遂げるのは「次郎への託びのようにも読み取れる」としたことを想起したい。肉親愛への執着よりも、自己の決意の貫徹を優先させた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この解釈の当否はさておくとしても、〈微細な〉表現へのこだわりが新たな読解への一つの試みとなる例証だと考えるのである。

「山椒大夫」에서 안쥬의 자살은 안쥬가 인신매매 산쇼 다유의 둘째 아들 지로와의 암묵적인 대화의 결과로서 지로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육친의 사랑보다 지로에 대한 자신의 결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육친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山椒大夫」의 안쥬의 자살은 <舟>를 통해 강인한 인물설정에 맞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山椒大夫」의 안쥬의 자살은 <舟>를 통해 강인한 인물설정을 시도한 문제점으로 「歴史其明と歴史離れ」에서 언급한 ‘역사 벗어나기’를 하지 못했다는 결과로 이어졌다. 안쥬의 강인한 인물설정은 오가이의 의도에 의해 <舟>를 통해 시도되었지만 결국 ‘역사 벗어나기’의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따라서 직면한 한계를 벗어나고자 「山椒大夫」에서 ‘역사 벗어나기’를 시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나가기

「山椒大夫」는 첫 역사소설 「興津弥五衛門の遺書」¹⁵⁾의 발표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에 ‘역사 벗어나기’를 시도한 역사소설이다. 오가이가 ‘역사 벗어나기’를 하지 못했다고 보는 관점은 집필 당시의 노예해방을 지적하고 있어 결국 그의 ‘역사 벗어나기’는 직면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었다. 「山椒大夫」가 『説経節』과 다르게 각색된 것은 史料를 벗어난 내용으로 ‘역사 벗어나기’를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벗어나기’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근대의 노예해방을 다룬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문학작품을 통해 오가이가 표현하려던 역사는 史料에

15) 鷗外(1912) 「興津弥五右衛門」 『中央公論』 第二七年第一〇号

근거한 과거보다는 모순된 현실이라도 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오가이에게 있어서의 모순된 현실은 노예해방제도를 다룬 집필 당시의 현재가 아니라, 이러한 사회제도를 다룬 문학자로서의 창작력의 한계로 볼 수 있었다. 이것이 오가이가 직면한 현실이고 이에 맞서는 의지를 「山椒大夫」의 안주를 통해 시도하였다. 안주는 어린아이지만 인신매매라는 모순된 현실에서 강인한 인물로 변모하여 이에 맞서려는 의지를 보였다. 모순된 현실을 상징하는 장소가 <舟>였고, 이러한 현실에 맞서기 위해 안주가 새로운 인물로 변모하는 장소 또한 <舟>였다. 이 같은 <舟>의 설정은 오가이가 문학에 입문하기 전 자신의 호를 정하던 시점에서 비롯된 <舟>의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비를 맞고 있는 처량한 ‘갈매기(鷗)’를 보고 자신을 발견한 오가이는 ‘갈매기(鷗)’ 옆으로 지나가던 <舟>를 떠올리는데, <舟>는 비 내리는 그곳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舟>에 대한 인식은 역사소설 「栗山大膳」에서 주인공이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묘사되었다. 나아가 <舟>는 「山椒大夫」에서 모순된 현실을 벗어나고자 ‘역사 벗어나기’의 수단으로 시도되었다. 오가이에 의도에 의해 설정된 <舟>는 결국 작품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舟>를 타면서 강인한 인물로 변모한 안주가 돌연 자살해버리는데 이것은 오가이가 元典과 달리 각색한 부분으로 강인한 인물로서 맞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었다. 안주의 자살은 <舟>를 통해 강인한 모습으로 변모한 인물설정의 한계이고 이는 오가이가 안주를 통한 ‘역사 벗어나기’의 한계점으로 드러났다. 결국은 <舟>를 통해 ‘역사 벗어나기’를 시도했으나 ‘역사 벗어나기’를 하지 못한 한계로 이어졌다. 이것은 오가이가 작가로서의 창작의 한계에 직면한 모순된 현실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의미하였다.

제6장 「高瀬舟」와 <舟>

1. 들어가기

오가이는 「舞姫」 발표 이후 19년간의 공백을 두고 「半日」을 기점으로 「魔睡」, 「キタ・セクスアリス」, 「鶏」를 연달아 발표하여 본격적인 후기 문학 활동을 재개하였다. 「半日」은 오가이가 재혼한 부인 시게와의 결혼 생활을 담은 내용이다. 오가이의 첫 결혼은 집안의 강요 때문에 성사되긴 하지만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다. 오가이의 첫 결혼은 집안의 강요에 의해 성사되지만 1년 만에 이혼했다. 이혼한지 12년이 지나 다시 어머니의 권유로 시게와 재혼하였다. 하지만 두 번째 결혼 또한 행복하지 못했는데, 아 이러니하게도 오가이의 어머니와 부인과의 갈등이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가족 간의 문제를 리얼하게 다룬 탓인지 오가이는 「半日」을 생전 전집에 수록하지 못했다.¹⁶⁾

오가이는 『半日』에 이어 가정의 불화를 『一夜』라는 소설에 적었지만 아내의 간원을 받아들여 작품을 파기했다. 그 대신에 「인사를 하지 않은」 시게가 미네코에게 사과하여 가정의 상황이 호전되었다고 한다. (중략) 그의 생전에 『半日』은 오가이 전집에 수록하지 못했다.

16) 森まゆみ(2008)『鷗外の坂』新潮文庫, p.390

鷗外は『半日』につづき家庭の不和を『一夜』という小説に書いたらしいが、妻の懇願を入れてこの作品を破棄した。そのかわり「お辞儀をしない」しげが峰子にあやまり、家庭の状況が少しは好転したという。(略) その生前に『半日』は鷗外全集に収められなかった。

오가이의 후기 문학이 상당한 공백기를 두고 「半日」와 같이 자신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半日」뿐만 아니라 「魔睡」 또한 아내에 관한 내용이고 「サタ・セクスアリス」와 「鶏」는 작가의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을 드러낸 작품이다.

오가이 후기 문학의 경향은 작가의 심적 고뇌가 문학의 원동력이 되어 소설의 형태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가이는 「半日」 이후 전집에 수록된 작품에는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방식을 취했다. 오가이는 자신의 생애 최대의 비극이라 할 수 있는 둘째 아들의 사망을 작품으로 집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마흔에 재혼한 오가이는 부인과의 사이에 세 명의 자녀를 두는데 세 아이 모두 백일해에 걸려 아들은 사망하고 장녀 또한 가망이 없어 <안락사>를 생각한다. 이에 대해 오가이는 자기 판단에서 문제의식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작품으로 나타내고자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오가이의 경험이 소설 「高瀬舟」에 <안락사>라는 테마로 나타난다.¹⁷⁾ <안락사>를 소설 테마로 다룬다는 것은 의학자인 오가이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것인지 작품에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高瀬舟」¹⁸⁾에서 <안락사>의 행위를 살인죄로 나타내어 <안락사>를 행한 주인공 기스케는 살인자로서 <舟>에 실려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안락사>를 행한 기스케가 <舟>를 타면서 <舟>를 타기 전의 행위에 대해

17) 意田信男(2009) 『鷗外は何故袴をはいて死んだのか』 公人の友社, p.122

鷗外は西欧の言語に通じ、哲学・美学・文学にも通じて、当時としてはいち早く、社会主義にも注目し、医学の世界では「高瀬舟」で、安楽死という現代にも通底する問題に注目して見せた。

오가이는 서구의 언어가 능숙하여 철학·미학·문학에도 통달해 당시로서는 일찍이 사회주의에도 주목하여 의학 세계에서는 「高瀬舟」에서 안락사라는 현대에서도 공통된 문제에 주목해 보았다.

18) 森林太郎(1915) 「高瀬舟」 『中央公論』 第三一年第一号

<舟> 안에서 시간상으로 재조명한다.

「高瀬舟」의 기스케는 친동생을 살해한 중죄인이지만 <舟>를 타면서 그의 모습은 다른 죄인들과 달리, 오히려 광채가 나는 존재로 묘사되었다. 유독 기스케의 모습만 신성한 존재로 묘사하는 것은 그의 죄에 대한 의구심을 되짚어보려는 오가이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 기스케가 <舟>를 타기 전의 모습과 <舟>를 타고나서의 모습에 차이를 두면서 오가이는 자신의 의도를 이끌어 내었다. 결국 <舟>는 오가이가 의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기스케가 친동생을 죽인 <안락사>의 행위는 <舟>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며, 기스케의 행위가 살인죄로 성립된다 하더라도 살인죄를 지은 죄인이 반드시 <舟>에 태워져 이송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스케를 <舟>에 태워 그의 행위에 대한 의구심을 제시한 것은 오가이의 의도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오가이는 <舟>를 타기 전의 죄인의 행위에 대해, 과연 살인인가라는 스스로 의구심을 <舟>를 통해 제시한 것이다. 오가이는 <안락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문제의식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못해 이를 표현하기 위한 장치적인 요소가 필요했던 것이다. 오가이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의사로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어느 쪽도 표면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딜레마가 있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오가이는 「高瀬舟」속에서 <안락사>를 살인이라는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으며, 이를 표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舟>를 선택한 것이다. 「高瀬舟」에서 오가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의구심이나 문제의식을 <舟>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모색하려는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이와 같이 「高瀬舟」의 <舟>는 <안락사>의 관점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제관념에 대

한 의구심이나 문제의식을 표출시키기 위한 매개체였다. 아울러 오가이의 신변을 다룬 「半日」와 「魔睡」 등을 통해 스스로의 문제의식에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2. <안락사>와 <舟>

「高瀬舟」는 오가이의 만년 작으로 작가는 자신의 생을 돌아보며 회한의 경험을 적은 작품이다. 「高瀬舟」에 나타난 <안락사>에 대해 오가이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에 대해 다나카 미요코(田中美代子)는 오가이의 장녀인 마리의 증언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¹⁹⁾

우선 후리쓰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모르핀에 의한 안락사이고 이것은 애초 「어머니」의 제안에 의한 것. 그리고 후리쓰에 이어 마리도 그 주사를 놓기 직전에 「부인」의 아버지가 거기에 들어오면서 하나의 목숨은 건졌고, 그 뒤로 점점 완쾌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겪고서 돌연 「박사」와 「부인」의 마음에는 「만약 그 때 주사를 놓지 않았다면 어쩌면 후리쓰는 살지 않았을까?」하는 씻을 수 없는 후회가 솟구쳐 양친의 마음을 힘들게

19) 田中美代子(1997)「森茉莉の見た鷗外」『鷗外の人と周辺』新曜社, p.271

まず第一に不律の死は自然死ではなく、モルヒネによる安楽死であり、これはそもそも「母君」の提案によるものであったこと。そして不律に続いて茉莉もその注射を受けようとする寸前に、「奥さん」の父君がそこに来合わせたことによって、一命をとりとめ、その後ずんずん快方に向かったこと。この事実を前にして、当然「博士」と「奥さん」の心には、「もしもあの時注射をしなかったら、ひょっとすると不律も助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拭っても拭い去れない後悔の念が湧き起り、この両親の心を苛んだにちがいないだろう事である。そうなった以上、「母君」の提案は「奥さん」ばかりではなく、「博士」にとっても、生涯消えぬ疑惑と遺恨の種となったはずである。

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이상 「어머니」의 제안은 「부인」뿐만 아니라 「박사」로서도 생애 지울 수 없는 의혹과 회한의 씨앗이 되었을 것이다.

재혼한 오가이는 부인 시계와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아들 후리쓰(不律)가 생후 6개월경 백일해에 걸려 사망하였다. 그런데 아들의 죽음은 병으로 인한 자연사가 아니라 오가이 어머니의 제안에 의한 <안락사>이었다. 당시 아들뿐만 아니라 장녀 차녀 모두 백일해에 걸렸으나 어린 후리쓰와 장녀 마리는 병의 상태가 심해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오가이 어머니가 모르핀 주사 투여를 제안한다. 결국 후리쓰에게 모르핀을 투여하고 이어 마리에게 주사를 놓으려 했다. 그때 오가이의 장인이 와서 만류하는 바람에 마리는 살아남았다. 이 일이 오가이에게는 생애 지울 수 없는 의혹과恨으로 자리 잡았다.

오가이의 <안락사>에 대한 견해는 「高瀬舟」에 나타난다. 「高瀬舟」는 교토에 중죄를 지인 죄수들을 실어 나르는 ‘다카세부네(高瀬舟)²⁰⁾’라는 <舟>를 죄인 기스케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다. 「高瀬舟」에 등장한 <舟>는 갇은 중죄를 지은 죄인들을 태워 외딴섬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이었다.²¹⁾

20) ①日本大辞典刊行会(1995)『日本国語大辞典』小学館, p.1388

近世以後、川船の代表として各地の河川で貨客の輸送に従事した船。京都・伏見間の高瀬川を就航のものは箱造りの十五石積で小型を代表する。

근세이후, 강배의 대표로서 각 지역에서 하천에서 화물과 사람의 수송에 종사하는 배. 교토·후시미사이의 다카세가와를 취항하는 것은 상자모양의 150석 정도로, 소형을 대표한다.

②森林太郎(1977)「高瀬舟縁起」『鷗外全集』十六卷, 岩波書店, p.236

徳川時代には京都の罪人が遠島を言い渡されると、高瀬舟で大阪へ回されたそうである。

도쿠가와시대는 교토의 죄인이 먼 섬으로 언도되면, 高瀬舟에 태워 오사카로 보내졌다고 한다.

21) 森林太郎(1973)「高瀬舟」『鷗外全集』十六卷, 岩波書店, p.223

당시 외딴 섬으로 언도받은 죄인은 물론 중죄를 지은 죄인으로 인정된 사람도 있지만, 결코 도둑질을 위해 사람을 죽이거나 불을 지르거나 하는 영악한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카세부네에 탄 죄인 과반수는 이른바 실수로 생각지도 못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다. 흔한 사례로서 당시 동반자살이라는 정사를 시도한 남자가 여자는 죽고 살아남은 자신은 죄인이 된 부류들이다.

<舟>를 탄 죄인들은 주로 도둑질, 살인, 방화 등으로 모두 중죄를 언도받아 외딴섬으로 이송된다. <舟>를 탄 죄인들은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행동은 실수일 뿐인데 중죄로 언도받는 것이 억울하다며 한탄하기만 했다. 그 같은 중죄인들 속에 유독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중죄를 언도받은 것을 오히려 편안해하는 기스케가 등장한다. 기스케는 친동생을 죽인 죄로 <舟>를 탄 인물이다. 어릴 적 부모를 여윈 기스케는 어린 동생과 거리에서 동냥하며 자랐고, 어른이 된 형제는 막노동을 하면서 근근이 살아갔다. 어느 날 동생이 결핵에 걸려 가망이 없는 상태가 된다. 동생은 힘들게 고생하는 형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죽으려고 자신의 목에 칼을 찔렀으나 이내 숨이 끊어지지 않아 고통스러워한다. 이때 일을 마치고 돌아온 기스케는 동생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칼을 뽑아 주었다. 동생은 이내 숨을 거두고 이것으로 기스케는 살인자로서 ‘高瀬舟’를 타게 된다. 기스케를 비롯해 <舟>를 탄 모든 죄인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되짚어 본다. 이렇듯 <舟>는 타기 전의 행위를 재조명하는 반성의 공간인

当時遠島を申し渡された罪人は、もちろん重い科を犯したものと認められた人ではあるが、決して盗みをするために、人を殺し火を放ったというような、寧ろ悪人物が多数を占めていたわけではない。高瀬舟に乗る罪人の過半は、いわゆる心得違いのために、思わぬ科を犯した人であった。有りふれた例をあげてみれば、当時相対死と言った情死をはかって、相手の女を殺して、自分だけ生き残った男というような類である。

것이다. 다만 키스케에게는 그러한 공간이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닌다. 키스케는 다른 죄인들과는 달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키스케는 친동생을 죽인 살인자로서 다른 죄인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 그의 묘사는 그들과 달랐다. <舟>를 탄 키스케는 신세타령만 하는 다른 죄인들과는 달리 오히려 평온한 모습은 달빛으로 얼굴은 흰하고 후광이 비쳤다.²²⁾

그의 이마는 환하고 눈에는 약간의 광채가 있다. (중략) 쇼베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키스케의 머리에서 후광이 비치는 듯 느껴졌다.

키스케는 친동생을 죽인 중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을 다른 죄인들과 다르게 묘사한 것은 키스케의 죄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동생의 자살을 도와 죽음에 이르게 한 키스케의 행위에 대해 그는 과연 죄인인가라는 의구심을 제시한 것이다. 오가이는 <안락사>의 문제를 <舟>를 탄 키스케를 통해 반문하고 있다. 그것은 <안락사>를 인정하려는 의도로 키스케는 동생을 죽인 죄인이 아니라 동생의 고통을 덜어준 존재로 보는 오가이의 관점이 투영된 것이다. 이 같은 관점은 오가이의 번역소설 「罪人」²³⁾에 묘사된 주인공의 모습에서도 나타나 「高瀬舟」와의 관련을 배제할 수 없다.²⁴⁾

22) 森林太郎(1973) 「高瀬舟」 『鷗外全集』 十六卷, 岩波書店, p.282

その額は晴れやかで目にはかすかなかがやきがある。(略) この時庄兵衛は空を仰いでいる喜助の頭から毫光がさすように思った。

23) 森鷗外(1910) 「罪人」 『東亜之光』 十九篇

24) 森林太郎(1973) 「罪人」 『鷗外全集』 十六卷, 岩波書店, pp.557~558

こんな風な事をもう少ししゃべった。そして物を言うと、胸が軽くなるように感じた。

「実に己は義務を果すのだ」と腹の内で思った。始てそこに気が附いたというような心持で。そしてまた自分が英雄だ、自己の利害を顧みずに義務を果す英雄だと思った。

奥さんは夫と目を見合せて同意を表するように頷いた。しかしそれは何と返事をして好いか分からないからであった。「本当に嫌でも果さなくてはならない義務なのだろう。」奥さんもこんな風に自ら慰めて見て、深い溜息を衝いた。

「사실은 나는 의무를 다한 것이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비로소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한편으로 자신이 영웅이다, 자기의 이익을 해아리지 않고 의무를 다하는 영웅이라고 생각했다.

부인은 남편과 눈을 마주치며 동의를 표하듯이 끄덕였다. 그러나 그것을 무엇으로 답하면 좋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말로 싫더라도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일 것이다」 부인도 그런 식으로 스스로 위로하고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罪人」의 주인공은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런데 사형장에 끌려가 집행되기 직전 주인공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은 ‘사실은 나는 의무를 다한 것’이며 ‘정말로 하고 싶지 않지만 해내야 할 의무’였다고 말하며 아주 평온한 표정을 짓는다. 이 한마디를 통해 우리를 오가이가 의식하는 기스케의 행위에 대해 알 수 있다. 오가이는 「高瀬舟」 이전에 번역한 「罪人」의 주인공을 기스케의 모습으로 재현시키고 있는 듯하다. 말하자면 기스케의 행동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안락사>를 인정하려는 오가이의 관점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오가이가 기스케의 행위에 대해 <舟>를 통해 나타내고자 한 것은 <안락사>를 인정하려는 의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안락사>를 인정하려는 오가이의 의도는 「高瀬舟」의 집필취지와 연유를 기록한 「高瀬舟縁記」²⁵⁾에도 나타난다.²⁶⁾

25) 森林太郎(1917) 「高瀬舟縁起」 『心の花』 第二十卷三号

26) 森林太郎(1973) 「高瀬舟縁起」 『鷗外全集』 十六卷, 岩波書店, p.237

ここに病人があつて死に瀕して苦しんでいる。それを救う手段は全くない。あの苦しみを長くさせておかずに、早く死なせてやりたいという情は必ず起こる。それゆえやらずにおいて苦しませていなくてはならない。従來の道德は苦しませておけと命じている。しかし医学社会には、これを非とする論がある。

여기 환자가 있고 죽음이 임박하여 괴로워하고 있다. 그를 구할 방법은 전혀 없다. 그런 괴로움을 길게 두지 않고 빨리 죽게 하고 싶은 마음은 반드시 생긴다. 그래서 그냥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종래의 도덕은 고통스러워하게 두도록 권한다. 하지만 의학 사회에는 그것을 잘못된 논리라고 한다.

오가이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안락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안락사>를 인정하는 의사로서의 견해일 것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간과할 수 없었던 오가이는 「高瀬舟」의 결말에 <안락사>를 결국 살인죄로 결론짓는다.²⁷⁾

쇼베의 마음속에는 여러 고민 끝에, 자신보다도 윗사람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 최고 윗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쇼베는 관리의 판단을 그대로 자신의 판단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것은 작중 윗사람의 판단을 표면화시켜서 <안락사>의 행위를 결국 살인죄로 인정했다. 이처럼 오가이가 <안락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인죄로 결론짓는 것은 자기 아들에게 모르핀에 의한 <안락사>를 허락한 경험이 반영된 것이다. 「高瀬舟」에는 <안락사>에 대해 인정하는 측면과 인정하지 못하는 측면을 나타냈다. 오가이로서는 두 관점을 모두 드러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안락사>의 두 관점을 오가이는 「高瀬舟」에서는 <舟>를 탄 주인공을 통해 드러냈다. 오가이가 스스로 문제로

27) 森林太郎(1973) 「高瀬舟」 『鷗外全集』十六卷, 岩波書店, pp.234~235

庄兵衛の心の中には、いろいろに考えてみた末に、自分よりも上のものの判断に任すほかないという念、オトリテエに従うほかないという念が生じた。庄兵衛はお奉行様の判断を、そのまま自分の判断にしようと思ったのである。

여기던 부분에 의구심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관점에서 <舟>라는 소재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知足>과 <舟>

「高瀬舟」는 작가 자신이 인식한 문제의식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기법으로 각색한 작품이다. 이를테면 오가이가 의사로서의 입장과 개인적인 경험에서 인식한 문제와 의혹을 제시한 것으로, <안락사>에 대한 견해였다. 「高瀬舟」에서 <안락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舟>라는 요소를 통해 나타낸다. 오가이가 <舟>에 주목한 것은 「高瀬舟」의 집필 연유를 설명한 「高瀬舟縁記」의 서두에도 나타나 있다.²⁸⁾

교토의 다카세강은 고조에서 남쪽은 천정15년에, 니조에서 고조까지는 경장17년에, 스미노쿠라 료이가 파낸 강이라고 한다. 거기를 다니는 배는 히키후네라는 배이다. 원래 배의 이름이고 그 배가 다니는 강을 다카세가와라고 불렀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강은 여러 지역에 있다.

교토(京都)의 다카세강(高瀬川)라는 강 이름은 스미노쿠라 료이가 강을 만든 후, 그 강에 다니던 <舟>이름 ‘다카세(高瀬)’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다카세(高瀬)’라는 <舟>가 다니는 강은 모두 다카세강이라 불

28) 森林太郎(1973) 「高瀬舟縁起」 『鷗外全集』 十六卷, 岩波書店, p.236

京都の高瀬川は、五条から南は天正十五年に、二条から五条までは慶長十七年に、角倉了以が掘ったものだそうである。そこを通う舟は曳舟である。元來たかせは舟の名で、その舟の通う川を高瀬川と言うのだから、同名の川は諸国にある。

렸다. 강의 이름이 <舟>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서두에서 오가이는 <舟>를 먼저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高瀬舟」는 <舟>를 의식한 오가이가 자신의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이다. 여기에는 <안락사>문제 뿐만 아니라 자의 경제관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²⁹⁾

어느 날 이 배를 탄 동생을 살인한 남자가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다. 그것을 자세히 물으니 여태까지 먹을 게 없어 곤란했는데 외딴 섬으로 언도받을 때, 동전 이백 문을 받았지만 돈을 쓰지 않고 지닌 적은 처음이라 대답했다. (중략) 돈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의 돈을 가진 기쁨은 돈의 적고 많음에 관계없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보면 얼마나 있으면 좋다는 한계는 가늠할 수 없다.

기스케는 죄인의 신세지만 평생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아온 그가 ‘이백 문’이라는 돈을 처음 가지게 되어 기뻐한다. 이는 오가이가 생활 속에 직면한 경제관념에 대한 자신의 의혹을 인식하고 이를 「高瀬舟」에 기스케의 경제관념을 통해 지적한 것이다. 「高瀬舟」에서 <舟>를 탄 대부분 죄인들은 밤새 울며 외딴 섬으로 끌려가는 것을 한탄한다. 하지만 기스케는 <舟>안의 다른 죄인들과 달리 그동안의 삶이 너무나 피폐했기 때문에 죄인에게 주는 돈 ‘이백 문’에 기뻐하는 표정을 짓는다.³⁰⁾

29) 森林太郎(1973)「高瀬舟縁起」『鷗外全集』十六卷, 岩波書店, pp.236~237

あるときこの舟に載せられた兄弟殺しの科を犯した男が、少しも悲しがっていなかった。その子細を尋ねると、これまで食を得ることに困っていたのに、遠島を言い渡された時、銅銭二百文をもらったが、錢を使わずに持っているのは始めだと答えた。(略) 錢を待ったことのない人の錢を持った喜びは、錢の多少には関せない。人の欲には限りがないから、錢を持ってみると、いくらあればよいという限界は見いだされないのである。

30) 森林太郎(1973)「高瀬舟」『鷗外全集』十六卷, 岩波書店, p.283

しかしいかに桁を違えて考えてみても、不思議なのは喜助の欲のないこと、足ることを知っていることである。

그러나 아무리 자릿수를 다르게 생각해도 이상한 것은 기스케가 욕심이 없는 것 만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백 문’에 기뻐하는 기스케의 표정은 ‘만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의미의 <知足>은 「高瀬舟」의 테마이다.³¹⁾ <知足>은 경제관념을 나타낸 것으로 ‘이백 문’에 <知足>하는 기스케의 모습과 이를 지켜보던 의아해하는 관료 쇼베(庄兵衛)의 모습은 대조적이다. 쇼베는 관료로서 급여를 받고 생활하지만 늘 남편의 월급이 부족하다며 늘 불평하는 아내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기스케는 관료의 월급과는 자릿수가 다른 상당히 적은 액수 ‘이백 문’을 받지만 ‘만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스케의 <知足>과 <知足>을 모르는 쇼베의 아내에 대한 지적은 오가이 자신의 경제관념을 드러낸 것이다. 자신 또한 관료로서 급여를 받아 왔지만 늘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던 아내를 떠올린 오가이는 기스케의 <知足>의 의미를 상기하면서 자신의 수입에 대해 생각한다.³²⁾

오가이의 월수입은 당시로써 초 일급으로 초등학교 교장의 열 몇 배가 되는 높은 급여였다. 그 밖에 인세와 원고료 등 잡수입도 상당했다. 그중에

31) 出原隆俊(1997)「鷗外が多用する表現について」『講座 森鷗外 鷗外の人と周辺』第一巻, 新曜社, p.380

このように見てみると、「知足」ということを外せば、『高瀬舟』の《テーマ》なるものは、必ずしもそれ独自の問題とはならないのである。

이와 같이 살펴보면 「知足」이라는 것을 벗어나면 『高瀬舟』의 《테마》는 반드시 독자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32) 三田国芳(1995)「鷗外と小倉発信の書簡考」『森鷗外と北九州』, p.87

鷗外の月収は当時としては超一級で、小学校長の十数倍の高給であった。正規の収入だけでも月給三百余円であった。このほかに印税や原稿料等の雑収入も馬鹿にはならなかった。その中から毎月母宛に約半額の百七十円～百五十円送金している。鷗外の出費といえば、篤次郎が新築の費用として大金千円を出してやっている。

서 매월 모친 앞으로 약 반액인 170엔~150엔을 송금했다. 오가이의 지출이
라면 도쿠지로가 신축 비용으로 큰돈 1,000엔을 내고 있었다.

관료로서 비교적 상당한 급여를 받아 생활한다고 여겼던 오가이는 <知足>을 모르는 아내를 보면서 자신의 경제관념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 이
같은 경제관념에 대해 오가이는 자전적인 작품 「半日」에도 나타냈다.³³⁾

나의 연봉은 강의료를 합해 이천칠백 엔이다. 그래서 이 정도의 생활을
하고 여름과 겨울에 육십엔 씩 당신의 기모노 값을 대주는 것은 어머니가
절약해서 사용해 주시기에 가능한 것이다.

「半日」에서의 부인은 교수인 남편의 급여에 비해 과도한 지출을 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결국 「半日」의 부인의 경제관념의 문제는 오가이 신변
의 문제로서 「高瀬舟」의 <知足>을 모르는 쇼베의 아내로 묘사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知足>을 모르는 아내의 경제관념은 「半日」에서
가족 간의 문제로 야기된다. 이러한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 다케모리 덴유
(竹盛天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오가이는 부인의 경제에 관한 얘기나
시어머니에 대한 불평 등 현실적인 문제를 피하려고만 한다는 것이다.³⁴⁾

33) 森林太郎(1973) 「半日」 『鷗外全集』 四巻巻, 岩波書店, p.473

「おれの年俸は、講座給を入れて二千七百円なのだ。それでこの位な暮らしをして、夏と冬とお前の六十円ずつ着物の代を纏めて出して上げるのは、お母様が節儉して遣って下さるから出来るのだ。」

34) 竹盛天雄(1984) 「書くことの位置」 『その紋様』 小沢書店, pp.101~107

『半日』という作品は、「奥さん」が夫の高山にむけて、姑への嫌悪の情を露骨に投げつけ、それに対応する高山のことばや心理説明によって、全体の状況が浮き上がるように仕組まれている。(略) 鷗外はこういう「奥さん」の科白を、可愛い女の子が駄々をこねると言った風の叙述でちらりと躲そうとして言ってもいい。生々しい「財産」や「会計」の問題のもつ現実的臭いを薄め弱めようとしている。

『반나절』이라는 작품은 「부인」이 남편 다카야마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에 대응하는 다카야마의 말이 나 심리설명으로 전체 상황이 부상되도록 짜여 있다. (중략) 오가이는 「부인」의 푸념을 귀여운 아이가 응석을 부린다는 식의 서술로 슬쩍 피하려 한다. 실질적인 「재산」, 「회계」의 문제가 되는 현실적인 불편함을 희석시키고자 한다.

오가이는 ‘재산’이나 ‘회계’의 현실적인 문제를 피하려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것은 오가이가 현실적으로 경제관념의 <知足>의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고, 결국 <知足>의 문제는 부인과의 갈등·고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에 <知足>의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오가이 삶 자체의 <知足>을 지적하는 듯하다.

이 같은 오가이 신변의 문제는 「魔睡」에서도 나타나 있다. 「魔睡」는 정신과 의사가 최면상태의 환자를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오쓰카 미호(大塚美保)는 작중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최면술에 의해 행동한 것은 일종의 <간통>으로 간주하며 오가이가 자신의 아내에 대한 관점을 드러낸 것이다.³⁵⁾

오가이의 아내 시게의 신변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관련된, 이소가이의 모델이 된 의학자, 미우라 긴노스케의 행위를 폭로한다는 일면을 가진다. (중략) 이소가이와 두 사람만 있던 공간에서 일어난 일의 진상은, 규명할 수가 없다. 가능성이 있

35) 大塚美保(2001)「鷗外『魔睡』のスクンダルー<姦通>・語り・テキスト間相互関連性を視座として一」『聖心女子大・論叢』九七卷九月号

鷗外の妻しげ子の身に実際に起きた事件に関連するといわれ、磯貝のモデルとされる医学者、三浦謹之助の行状暴露という一面を持つ。(略) 磯貝との二人きりでいた間に起きたことの真相は、追求のしようがない。可能性があるが証拠がない、妻の婚外性交渉。それは睡眠術によって操られた人間の、所動とも自発とも定めがたい(6章でくわしく触れる)、一種特異なく姦通>である。

지만, 증거가 없다. 아내의 혼외 성 교섭. 그것은 최면술에 의해 조종된 인간이, 수동적이라고도 자발적이라고도 하기는 어렵다. 일종의 특이한 <간통>이다.

「魔睡」는 오가이가 작중 이소가이(磯貝)의 모델인 의사 미우라(三浦)의 행위를 폭로할 의도로 발표한 작품이지만 아내에 대한 감정도 담겨 있다. 오가이는 아내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魔睡」에 드러낸 것이고 「半日」에 묘사된 오가이가족 간의 문제와 의미를 같이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魔睡」와 「半日」은 오가이의 삶에 대한 <知足>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현실에서 피하기만 했던 오가이 자신의 문제로 「高瀬舟」에서 <知足>에 대한 의혹을 제시한 것이다. 「高瀬舟」의 <知足>은 오가이 자신의 삶에 ‘만족을 알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가이의 자기 부정은 「高瀬舟」의 <舟>를 통해 나타나는데 오가이는 여전히 문제로 인식하는 의혹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高瀬舟」의 마지막 행의 ‘高瀬舟’의 향방을 어둡게 묘사하여 석연치 않은 결과로 나타난다.³⁶⁾

차츰 깊어가는 어스름푸레한 밤에 침묵한 두 사람을 태운 高瀬舟는 검은 수면을 미끄러져 갔다.

<舟>의 어두운 향방은 ‘검은 수면을 미끄러져 갔다’로 나타나 있다. 이는 <안락사>와 <知足>의 문제의식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풀지 못한 오가이의 심정을 나타낸 것이다. <안락사>는 의사로서의 관점과 실제 경험을 통한 관점이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고 <知足>은 경제관념뿐만 아니라 오가

36) 森林太郎(1973) 「高瀬舟」 『鷗外全集』 十六卷, 岩波書店, p.235

次第にふけてゆくおぼろ夜に、沈黙の二人を載せた高瀬舟は、黒い水の面をすべって行った。

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사는지 반문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어 오가이는 <舟>의 장치를 통해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를테면 「高瀬舟」의 <舟>는 작가내면의 문제와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장치인 것이다.

4. 나가기

1915년에 발표한 「高瀬舟」는 1916년까지 집필활동을 한 오가이의 만년작으로, 자신의 생을 회고하며 지난날의 경험을 통한 자신의 문제의식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기법으로 집필한 작품이다. 「高瀬舟」는 죄인의 이야기가 <舟>를 통해 재구성되는 내용으로 <안락사>와 <知足>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안락사>는 의사로서 아버지로서의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일 것이고 <知足>은 남편으로서 아들로써 수난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식은 오가이 자신을 집요하게 몰아맨 내면의 문제로 결코 쉽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것을 오가이는 <舟>라는 장치를 통해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테면 <안락사>와 <知足>은 오가이가 살아가면서 가장 난해한 관점을 두었던 테마로, 그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는 기법으로 <舟>를 설정한 것이었다. <안락사>와 <知足>의 테마를 엄밀히 따져보면 <舟>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오가이는 오히려 관련이 없을 법한 것을 중심 소재로 삼아 자신의 문제를 한걸음 물러나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는 「高瀬舟」의 마지막 단락에 나타난 <舟>의 향방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어쩌면 오가이는 처음부터 자신이 제시한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난해한 결과로 이어질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舟>를 통해 제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舟>는 작가의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설치된 하나의 장치임을 엿볼 수 있었다.



Ⅲ. 결론

오가이는 明治・大正의 과도기에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문학자로서 그의 문학은 소설・詩歌・평론・번역 등 다채롭고 방대하여 한마디로 그의 문학관을 규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오가이의 문학을 주제나 내용의 흐름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표현하는 기법이나 형식을 통한 접근으로 작품연구에 대한 시도가 필요하였다. 본고에서는 문학자 오가이의 삶과 그의 문학에서의 <舟>의 위치에 초점을 두는 연구의 방안을 제시하여 <舟>가 오가이의 문학으로 재편되는 양상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1862년 쓰와노에서 태어난 오가이는 10년이 지난 시점에 막부체제가 붕괴되고 明治期를 맞아 동경으로 이주하여 무코지마에 정착하였다. 무코지마에서 강 건너 독일어학교를 다녀야 했던 오가이는 <舟>를 타고 통학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오가이 부친은 센주에 근무해야 했으므로 가족들은 이사를 하였지만, 독일어학교를 다녀야 했던 오가이는 홀로 무코지마에 남았다. 오가이는 주말이면 부친과 함께 가족이 있는 센주로 가는데 주로 <舟>편을 이용하였다. 오가이 유년시절 <舟>는 통학을 하거나 센주의 가족을 만나러 가기 위한 불가피한 생활의 수단이었다. 어린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오가이는 그리운 가족을 만나기 위해 부친과 함께 탔던 <舟>, 그 안에서 바라봤던 <舟>의 정경은 자연스럽게 그의 정서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무코지마시절 일상의 <舟>는 오가이의 성장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였다. 그것은 오가이가 자신의 집을 짓고자 할 때, 동경에서도 단고자카로 정한 것에서 알 수 있었다. 단고자카는 비교적 지

대가 높은 곳으로 시나가와 부두와 동경만이 훤히 내려다보여 유년시절의 정서가 작용한 것이었다. 그곳에 자신만의 집필 공간 관조루를 지어 창작에 몰두하였다. 관조루에서도 <舟>의 정경은 일상적인 대상으로 무코지마에서의 <舟>에 대한 기억을 한층 부각시켰다. 따라서 30년간 집필활동에 몰두했던 관조루에서의 <舟>는 유년시절의 <舟>와 불가분의 요소로 오가이의 작품에서도 불가피한 소재로 등장하였다. 그것은 「百物語」에 ‘무언가 사정이 있어서 강에 <舟>를 띄우는 가와비라키 행사가 한더위를 지나 행해졌던 아주 오래된 기억’으로 시작되는 대목에서도 알 수 있었다.¹⁾ 강에 <舟>를 띄우던 무코지마의 ‘가와비라키’ 행사는 주로 벚꽃이 만개할 시점에 행해졌으나 수해로 인해 시기가 늦춰지기도 했다고 한다.²⁾ 「百物語」에서 서두의 벚놀이 행사에 나타나 있듯이 <舟>는 유년시절의 기억으

- 1) 森林太郎(1972) 「百物語」 『鷗外全集』 九卷, 岩波書店, p.128

何か事情があって、川開きが暑中を過ぎた後に延びた年の当日であったかと思う。余程年も立っているんで、記憶が稍おぼろげになってはいるが又却てそれが為めに、或る廉々がアクサンチュエエせられて、翳んだ、濁った、しかも強い色に彩られて、古びた想像のしまっている、僕の脳髓の物置の隅に転がっている。

무언가 사정이 있어서 강열기가 한더위가 지난 후로 연기된 해의 당일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해나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약간 어렴풋하지만, 또한 오히려 그로 인해 어떤 부분들이 지워져 흐리고 탁한 게다가 강한 색에 칠해져 오래된 상상으로 나의 너리의 구석에 뒹굴고 있다.

- 2) 森まゆみ(1997) 『鷗外の坂』 新潮文庫, p.57

向島とはどういう土地か。田園が広がり文人墨客が住みついていた。すでに慶長のころから、夏、隅田川に舟を出す納涼の記載がある。享保十八年(一七三三)から川施餓鬼を目的とする川開きと両国の花火が始まる。そして、八代将軍吉宗は向島墨堤に桜を植えて江戸庶民を慰撫した。その後、何度か水害にあつて桜が傷められても、佐原鞠塙をはじめとする民間人の手で、再び植え続けられてきた。

무코지마라는 지역이었든가. 전원이 펼쳐진 문인 묵객이 살고 있었다. 이미 게이쵸(慶長) 무렵부터 여름 스미다강에 배를 띄우는 납량의 기제가 있다. 게이보(享保) 18년(1733)에서 강에 빠져 죽은 사람의 영혼을 추모하기 위한 가와비라키와 양 지역의 불꽃놀이가 시작된다. 그리고 8대 장군 요시무네는 무코지마 독길에 벚꽃을 심어 에도서민을 위로했다. 그 후 몇 번이나 수해를 당해 벚꽃이 망가졌는데도 사하라 기쿠우를 비롯한 서민들이 다시 계속해 심었다.

로 오가이 생애 오랫동안 인식되었고 이는 문학가로서 입문하기 전에 기록한 「独逸日記」에도 나타나 있었다. 「独逸日記」에서 <舟>는 미래를 향해 갈 수 유일한 수단으로 힘든 현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편으로 묘사되었다. 그것은 오가이가 무코지마에서 지낼 때 그의 부친이 병원에 입원하여 병문안을 가려 했으나 폭풍우로 강이 범람하여 이동할 방법이 <舟> 밖에 없었던 기억이 반영된 것으로 보였다.³⁾ 그리고 「キタ・セクスアリス」를 비롯해 「妄想」, 「雁」뿐만 아니라 만년 작 「細木香以」, 「渋谷抽斎」, 「伊沢蘭軒」 등에 이르기까지, <舟>는 무코지마와 관조루 일대에 불가분의 요소로서 그 배경이 되었다. 무코지마와 관조루의 <舟>는 오가이의 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소재였음에도 작가의 정서에 영향을 미쳐 작품에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일상의 <舟>는 3년간 부임했던 고쿠라생활에도 살펴볼 수 있었다.

고쿠라의 제12사단 사령부에 근무했던 오가이는 항상 무라사키강(紫川)의 도기와 다리(常磐橋)를 지나다녔다. 당시 오가이가 다녔던 길을 기념하여 고쿠라 市에서 도로이름을 ‘오가이 도로(鷗外通)’라고 명명하였다. 최근 그 길과 일직선상에 새롭게 다리가 준공되었는데, 다리의 이름을 ‘오가이 다리(鷗外橋)’라 했다. ‘오가이 다리’는 오가이가 실제로 이용했던 도기와 다리 보다는 강의 상류 쪽에 설치되었다. 고쿠라 부임 시절 매일 같이 도기와 다리를 지나다녔던 오가이를 미뤄 보면 무라사키강에 떠다니는 <舟> 또한 일상적인 대상이었다. 당시 ‘좌천’을 겪던 오가이가 다리 위에서 바라봤던

3) 森まゆみ(2008) 『鷗外の坂』 新潮文庫, p.133

これ以前、千住在のころも静男は一度倒れている。九月初めの台風のとであつた。嵐のあとの独流が川沿いの町をひたし、舟に乗って林太郎は父を見舞った。

센주에 있을 무렵에도 시즈오는 한번 쓰러졌다. 9월 초순 태풍이 지나간 후였다. 태풍으로 인해 탁류가 강가 마을이 잠겨 배를 타고 린타로는 아버지를 방문했다.

<舟>는 예사롭지 않았을 것이다. 무심코 가던 발걸음을 멈춘 오가이는 무라사키강을 떠다니는 <舟> 혹은 지나가는 <舟>, 어쩌다가 지나가면서 부딪히는 <舟>를 보면서 한문학에 조예가 깊은 그는 ‘장자의 빈 <舟>’를 떠올렸을 것이다. 이를테면 <舟>가 와서 부딪히더라도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면 누구도 화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를 되새기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신조로 삼았다. 이를 「鷗外漁史とは誰ぞ」에 빈 <舟>의 의지로 나타냈다. 오가이가 떠올린 <舟>의 관점에 주목해 보면, 한학에 정통한 오가이는 자신의 본연의 문제로 의식하여 드러낼 때는 ‘船’이 아닌 ‘舟’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여기에 유년시절부터 자신의 정서에 영향을 미쳤던 <舟>의 인식과 관련이 있었다. 유년시절 오가이가 바라본 강가에 떠다니는 <舟>는 큰 규모의 ‘船’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舟’로 인식했던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에 자신의 본질적인 내면의 문제를 언급하고자 할 때 ‘舟’는 자연스러운 정서였다. 어쩌면 ‘장자의 빈 <舟>’의 표기가 ‘舟’가 아니라 ‘船’이었다면, 오가이는 고쿠라 좌천 시절 자신의 심경을 밝히는 수필에서 인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쿠라 시절 오가이가 ‘舟’로 인식했던 관점은 도기와 다리와 무라사키강을 연상하며 적은 한 편의 詩에서도 나타났다.⁴⁾

지나가기만 하면 / 배로 반짝거리는 무수한 불빛이 / 타들어가는 바다
위를 / 나 혼자 타고서 노를 젓는다. (중략) 성 가까이 / 무라사키강의
/ 동쪽 마을 / 마치유를 알고 / 무희도 있고 (중략) 저녁 바람이 / 옷
깃을 스치고 / 도기와 다리 / 상행선의 기차를 보면 / 더욱 화가 났다.

4) 森林太郎(1972) 「うた日記」 『鷗外全集』十九卷, 岩波書店, p.337

いたりつかば / 舟に不知火 / もゆる海を / われ一人載せて / 漕ぎたみ給へ
(略) 廓近き / 紫川の / ひがし町 / 町湯にしりし / 舞子もありき (略) 夕風
に / 袂すずしき / 常磐橋 / 上りの汽車は / なほ妬かりき

고쿠라 부임에 불만을 가졌던 오가이는 도기와 다리 위를 달리던 상행선의 기차를 보면서 더욱 감정이 상했지만 <舟>를 바라보며 평온함을 되찾았다. 고쿠라 시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바라봤던 무라사키강의 <舟>는 ‘舟’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점이 「鷗外漁史とは誰ぞ」의 빈 <舟>의 의지로 나타났다. 자신의 의지를 빈 <舟>로 피력한 오가이는 집필에 몰두한 결과, 그의 文学史적으로 방대한 업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船’이 아닌 ‘舟’를 의식한 <舟>의 관점은 오가이문학을 이해하는데 키워드로 여겨졌다. ‘船’이 아닌 ‘舟’를 의식한 오가이의 관점은 「舞姫」와 「山椒大夫」에 의도적인 수법을 나타냈다.

「舞姫」에서의 <舟>는 상당한 규모의 여객선임에도 ‘船’이 아니라 ‘舟’로만 나타났다. <舟>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舟>의 공간이 강조하는 문학적인 기법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舞姫」의 <舟>는 주인공의 <약해진 마음>에서 비롯된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삶의 자각과 남에게 결코 드러내지 못한 <恨>을 토로하는 공간이었다. 이와 같은 <舟>는 「山椒大夫」에도 나타났다. 작품의 冒頭에는 ‘船’과 ‘お船’ 그리고 ‘舟’를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정작 작품이 전개되는 시점부터는 일관되게 ‘舟’로만 나타났다. 말하자면 「舞姫」의 <舟>와 마찬가지로 <舟>의 공간에 초점을 맞춰 작중 인물을 행동 양상을 통한 주제를 도출해내려는 작가의 의도가 있었다. 나아가 「山椒大夫」의 <舟>는 역사소설에서 ‘역사 벗어나기’를 시도한 오가이의 관점을 보였다. 「山椒大夫」는 오가이가 ‘역사 벗어나기’를 시도한 작품이었으나 ‘역사 벗어나기’를 하지 못한 작품이었다. 「山椒大夫」에서 ‘역사’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는 작중인물이 <舟>를 타던 시점에서 비롯되었다. 이를테면 오가이의 ‘역사 벗어나기’는 <舟>를 통해 이루어졌고 결국 오가이가 ‘역사 벗어나기’를 하지 못했다고 한 것은 <舟>안의 작중인물을

통해 시도한 것이 실패한 것임을 의미하였다. 이것은 작품의 인물 설정에
 서 야기된 것으로 오가이가 『說經節』의 내용을 각색한 부분이었다. 『說
 經節』의 주인공은 동생을 구하기 위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맞서는 인물이
 지만 「山椒大夫」에서는 돌연 자살을 해버려 인물설정에 맞지 않은 결과
 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山椒大夫」의 결말 또한 오가이는
 근대의 노예해방을 다뤄 작가로서 창작에 대한 한계를 보였다. 이것은 역
 사소설을 집필하던 시점부터 안고 있던 문제점으로 결국 「灰燼」의 미완
 성을 예고한 것이다. 「灰燼」은 단편소설만 집필했던 오가이가 본격적으
 로 장편소설을 시도한 작품이었으나 작가의 자질 부족으로 미완성으로 끝
 났다. 오가이의 불명예스러운 미완성작 「灰燼」은 작가 생명에 제동을 걸
 었던 작품이긴 했지만, 이후 「伊沢蘭軒」, 「北条霞亭」등을 발표하여 오
 가이는 문학자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굳혀갔다.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오가이의 저력은 「灰燼」뿐만 아니라 「伊沢蘭軒」에 빈 <舟>에
 비유한 강한 의지에 있었다. 「伊沢蘭軒」 또한 장편역사소설에서 나타내
 야 하는 복잡한 인간 심리나 인간탐구를 심층적으로 조명하는 다층적 구조
 의 결여를 드러낸 작품이었다. 하지만 오가이 특유의 빈 <舟>의 의지로
 스스로 작가 생명에 시동을 걸어 역사소설의 정수로 일컬어지는 「渋江抽
 齋」를 완성해냈다. 빈 <舟>의 의지는 고쿠라 '좌천'의 위기상황뿐만 아니
 라 창작활동에서도 저력으로 작용하여 채도약의 발판이 되었다. 이처럼
 <舟>를 통해 작가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수법은 문학에서 단순한 소재로
 나타냈던 <舟>의 유형과는 다른 새로운 <舟>의 양상이었다. <舟>의 유
 형은 「高瀬舟」에 또 다른 양상을 보였다. 「高瀬舟」의 <舟>는 <안락
 사>와 <知足>의 주제를 제시하고서 문학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매개였다.
 작가가 오랜 기간 의구심을 가졌던 <안락사>와 <知足>의 주제는 <舟>와

는 별개의 대상이었음에도 <舟>를 통해 드러냈다. 작품에 제기된 <안락사>와 <知足>에 대한 의구심이 과연 의구심인가의 문제의식을 제시하고서 독자를 통해 문제 해결을 기대한 작가의 의도가 있었다. 요컨대 「高瀬舟」의 <舟>는 작가의 의구심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오가이 문학에 있어 새로운 유형으로 구사되고 있었다.

한편으로 <舟>는 기본적인 이동수단으로 독일유학을 기록한 「航西日記」와 「還東日乗」, 두 전쟁의 참전 당시에 기록한 「日清役自紀」와 「徂征日記」, 「北游日記」에 나타나 있었다. 단순한 이동수단이던 <舟>는 일련의 작품에서는 <舟>를 타던 시점부터 기록한 공통점이 있었다. 「航西日記」와 「還東日乗」에서는 독일로 출발하기까지 3개월간의 수속 과정과 일본으로 귀국하기 위해 밟은 여러 철차를 <舟>를 탄 후 단 하루 만에 적었다. 「日清役自紀」와 「徂征日記」, 「北游日記」에서도 참전에 대한 상부의 명령을 받아 출발하기까지 열흘 이상의 일정을 <舟>를 타던 날 한꺼번에 적었다. 독일유학과 두 전쟁의 참전에 대한 기록에서 일률적으로 <舟>를 타고나서 적었던 것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필연적인 요소로 여겼던 오가이의 인식이 나타난 것이다. 나아가 오가이는 자신이 살았던 근대의 시대적인 관점 또한 <舟>를 통해 표현하는데 「堺事件」에서 볼 수 있었다. 「堺事件」의 <舟>는 근대의 경제력과 최첨단의 경쟁력을 갖춘 군함이었다. 군함은 근대화에 뒤떨어진 일본사회의 이면, 군과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나타냈다. 군인이었기에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오가이는 자신이 경험한 전쟁에 대한 비판과 비도덕인 군인들의 행태를 지적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비판의식은 「うた日記」에도 나타내는데 이를 ‘艦’으로 표현하였다. 적군의 군함은 ‘艦’으로 표기하는 반면 아군의 군함은 ‘舟’로 표기하는데 부득이하게 ‘艦’으로 표기했을 경우는 ‘후네(舟)’라고

별도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적의 군함은 ‘적함(敵艦)’ ‘패함(敗艦)’ ‘적함(賊艦)’으로 아군의 군함은 ‘이쿠사부네(軍ぶね)’와 ‘군노후네(軍の舟)’ 즉 군의 <舟>로 나타내어 의식적인 구별이 있었다. 이는 「徂徠日記」에서도 적군이 탄 군함은 ‘艦’으로 표기하고 자신이 탄 군함은 주로 ‘舟’로 적어 ‘艦’의 표기는 의식적으로 피하려는 인상을 주었다. 문학을 통한 비판의식은 본질적인 작가의식으로 오가이는 <舟>를 문학적인 수단으로 나타냈음을 알 수 있었다. 말하자면 <舟>를 통한 비판의식은 ‘艦’에 비쳤고 이와 상응되는 <舟>는 ‘船’이 아닌 ‘舟’로 나타났다. ‘舟’로 표현한 것은 오가이가 유년시절에 인식한 <舟>의 관점이 ‘舟’였음이 문학작품에 작용한 것이다. ‘舟’의 관점은 문학자로서 좌절을 겪던 시기에도 빈 <舟>의 의지로 작용하여 오가이 문학사에 있어서 저력이 되었다. 이 같은 ‘舟’의 의식이 문학작품에서 오가이만의 <舟>를 이끌어 냈다. 오가이는 일상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볼 수 있는 <舟>를 의식적 혹은 고의적으로 작품에 투영하여 특유의 <舟>를 구사한 것이다. 이에 오가이의 삶이 투영된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를 규명하는 작업으로 작가 신변의 사건을 살펴봤을 때 <舟>는 그의 생애와 불가분의 요소였음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오가이의 삶에 빠뜨릴 수 없었던 <舟>는 각 작품을 통해 여러 양상으로 재편되고 있어 작품의 해석에 키워드의 하나임을 규명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텍스트>

森鷗外(1971~1975)『森鷗外全集』第一卷~第三十八卷, 岩波書店

<국내 간행물 및 논문>

이남근(1984)「森鷗外の 歴史小説 및 史伝小説 小考」『일어일문학연구』

李鍾德(1984)「森鷗外の研究ノート — 史伝成立論への試み」『세종대학 논문집』

고영자(1994)「森鷗外の 역사소설 『山椒大夫』背景—<신여성>」『東国大学校 研究所』, p.122

유진우(1995)「모리 오가이(森鷗外) 역사소설의 同質 構造論—「山椒大夫」 「高瀬舟」의 ‘献身’의 구조를 중심으로—」『일본연구』, p.204

고호석(1995)「森鷗外の 『高瀬舟』에 관한 小考」『논문집』

西垣勤(1996)「일본 근대화와 지식인의 고뇌— 삼구외(森鷗外)의 경우—」『石堂論叢』 제24권

권태민(1996)「森鷗外の 『舞姫』 考察」『日本文化学報』

이기섭(1997)「森鷗外の 독일 유학에 대해」『일본어문학』

石崎公一(1998)「雁」『国文学』 1月号第43卷1号

신영언(1983)「森鷗外の 一断面」『연구논문집』

최재철(2001)「모리 오오가이(森鷗外)의 역사소설」『일본연구학회』

유진우(2003)「모리 오가이(森鷗外)와 권위 — 권위에 대한 대처방식과 권력 비판

- 의 양상—」『日本近代文学』
- 노해두(2004)「모리 오가이(森鷗外)의 『기러기(雁)』 考察 - 등장인물에 투영된 작가의 인생체험을 중심으로」『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 최춘화(2005)「森鷗外の 『舞姫』 表記意識」『일어일문학』
- 카네코 사치요(金子幸代)·유진우(2005)「모리 오오가이(森鷗外)와 근대극 - 『카부키(歌舞伎)』를 시점으로 하여」『일본근대문학』
- 권태민(2005)「한국에서의 모리 오가이(森鷗外) 문학 연구 성과와 과제 조명」『日本学報』
- 이평(2006)「森鷗外の目に映った日本明治維新近代化—『普請中』—」『경희대학교 비교문학연구소』
- 한정숙(2008)「森鷗外「興津弥五右衛門の遺書」論—<遺書>というを形式をめぐって—」『日本学報』
- 박성희·권혁건(2009)「回遊하는 智識과 近代留学—森鷗外를 중심으로—」『日本語教育』

<국외 단행본>

- 山崎正和(1972)『闘う家長』河出書房新社
- 大谷晃一(1983)『鷗外、屈辱に死す』人文書院, p.72
- 竹盛天雄(1984)『鷗外 その紋様』小澤書店
- 平岡敏夫(1990)『「舞姫」への遠い旅』大修館書店
- 金子幸代(1992)『鷗外と <女性>』大東出版社, p.32
- 小林安司(1993)『森鷗外と北九州』北九州森鷗外記念会, pp.78~79
- 松本清張(1997)『両像・森鷗外』新井信, p.146
- 森まゆみ(1997)『鷗外の坂』新潮文庫, p.76

- 森鷗外(1977)『鷗外全集』七巻, 筑摩書房, p.316
- 夏目漱石(1974)『夏目漱石集』筑摩書房, p.325.
- 池内健次(2001)『森 鷗外と近代日本』ミネルヴァ書房, pp.67～137
- 林尚孝(2005)『仮面の人・森鷗外』同時代社
- 小平克(2006)『森鷗外「我百首」と「舞姫事件」』同時代社
- 末延芳晴(2008)『森鷗外と日清・日露戦争』平凡社, pp.163
- 志田信男(2009)『鷗外は何故袴をはいて死んだのか』公人友社, p.71
- 荒木繁・山本吉左右 編注(2009)『説経節』平凡社
- 森まゆみ(2008)『鷗外の坂』新潮文庫, pp.47～76
- 意田信男(2009)『鷗外は何故袴をはいて死んだのか』公人の友社
- 林尚孝(2005)『仮面の人・森鷗外』同時代社, pp.14～30
- 末延芳晴(2008)『森鷗外と日清・日露戦争』平凡社 ,p.183
- 竹盛天雄(1984)『その紋様』小沢書店, p.11
- 新村出 編(1993)『広辞苑』第四版, 岩波書店, pp.563～2008
- 相賀徹部 編(1993)『日本国語大辞典』第九巻, 小学館
- 諸橋轍次 編(1995)『大漢和辞典』大修館書店, p.478.
- 日本大辞典刊行会(1995)『日本国語大辞典』小学館, p.1388
- 下中邦彦世 編(1966)『世界大百科事典』11 平凡社, pp.35～434

<국외 간행물 및 논문>

- 高橋義孝(1957)「『渋江抽斎』は、鷗外が創造しえたもとも小説らしい小説」『森鷗外』
雄山閣
- 平岡敏夫(1968)「鷗外における官僚の問題」『森鷗外必携』学灯社
- 磯貝英夫(1981)「森鷗外の人と作品」『鑑賞日本近代文学①森鷗外』角川書店

- 重松泰雄(1982)「『舞姫』諸説集成」『国文学』7月号第27巻10号
- 永吉雅夫(1983)「歩く厨子王—鷗外『山椒大夫』と説経」『国文学』11月号第28巻14号, 学灯社
- 竹盛天雄(1984)「『灰燼』の再考」『その紋様』小沢書店, p.657
- 竹盛天雄(1984)「書くことの位置」『その紋様』小沢書店
- 竹盛天雄(1984)「流離と邂逅」『その紋様』小沢書店, p.11
- 富崎逸夫(1989)「鷗外縁かりの土地—向島の旧居」『森鷗外記念会』43号, p.280
- 三田国芳(1995)「鷗外と小倉発信の書簡考」『森鷗外と北九州』, p.87
- 板垣公一(1997)「『舞姫』小論—諸家作品論定説化構築—」『名城大・人文紀要』五
六巻一二月号
- 斉藤茂吉(1977)「鷗外の歴史小説」『森鷗外全集』別巻, 筑摩書房
- ロバートキャンベル・戸松泉・宗像和重(1997)「『舞姫』注釈」『文学』季刊 第八巻・第3
号, 岩波書店
- 鈴木満(1997)「鷗外の受けた教育」『講座 森鷗外 鷗外の人と周辺』第一巻, 新曜社,
p.106
- 山崎穎一(1997)「鷗外における津和野」『講座 森鷗外 鷗外の人と周辺』第一巻, 新曜
社, p.45
- 山崎国紀(1997)「鷗外にかかわる母性」『講座 森鷗外 鷗外の人と周辺』第一巻, 新曜
社
- 森まゆみ(1997)「団子坂の鷗外—私注・鷗外日記」『講座 森鷗外 鷗外の人と周辺』第
一卷, 新曜社, p.239
- 須田喜代次(1997)「研究回顧展望」『講座 森鷗外 鷗外の人と周辺』第一巻, 新曜社,
p.466
- 森まゆみ(1997)「鷗外の坂」『講座 森鷗外 鷗外の人と周辺』第一巻, 新曜社, pp.23
4~235
- 出原隆俊(1997)「鷗外が多用する表現について—『山椒大夫』を中心に—」『講座 森鷗
外 鷗外の世界』第二巻, 新曜社

- 平岡敏夫(1997)「『舞姫』『雁』『高瀬舟』—く夕暮れ>を視点として」『講座 森鷗外 鷗外作品』第二卷, 新曜社, p.4
- 重松泰雄(1997)「妄想の生まれる時、生まれるところ—鷗外『妄想』一解」『鷗外における 津和野』『講座 森鷗外 鷗外の人と周辺』第二卷, 新曜社
- 柴口順一(1997)「『伊沢蘭軒』と『北条霞亭』—いわゆる史伝の位相」『講座 森鷗外 鷗外作品』二卷, 新曜社
- 金子幸代(1997)「近代劇の誕生—鷗外と戯曲—」『講座 森鷗外 鷗外作品』第二卷, 新曜社
- 山本俊一(1997)「鷗外と脚気問題」『講座 森鷗外 鷗外と知的空間』第三卷, 新曜社
- 萩原孝雄(1997)「森鷗外における西洋と日本—子宮の感性をめぐって」『鷗外と知的空間』第三卷, 新曜社, p.418
- 石崎公一(1998)「雁」『国文学』1月号第43巻1号
- 山田有策(1998)「舞姫」『国文学』1月号第43巻1号
- 山田有策(1998)「うたかたの記」『国文学』1月号第43巻1号
- 宗像和重(1998)「文づかい」『国文学』1月号第43巻1号
- 宗像和種(1998)「鷗外とドイツ (比較文学・文化の視点にも及ぶ)」『国文学』1月号第43巻1号
- 大塚美保(2001)「鷗外『魔睡』のスクランダル—く姦通>・語り・テキスト間相互関連性を 視点として—」『聖心女子大・論叢』九七巻九月号
- 高田知波(2000)「バイリンガルの手記—『舞姫』論への一視点—」『駒沢国文』三七巻 二月号
- 掛井みち恵(2001)「『キタ・セクスアリス』—試論—」『早稲田大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
- 青田寿美(2002)「鷗外『半日』における《家》」『神女大國文』
- 谷口巖(2003)「『舞姫』小考—物語中の<時間>を読む—」『岐阜女子大学紀要』第32号3月号
- 小泉浩一郎(2004)「『舞姫』『うたかたの記』『文づかい』」『森鷗外全集—新日本古

典文学大系明治編-』 p.539

上杉伸夫(2005)「鷗外旧居考」『森鷗外記念会』 p.256

田中美代子(2006)「独逸日記 小倉日記」『森鷗外全集13』 ちくま文庫, p.409

李呈(2008)「高瀬舟の悲」『綿陽师范学院学报』 第27卷第10期

意田信男(2009)『鷗外は何故袴をはいて死んだのか』 公人の友社, p.122

